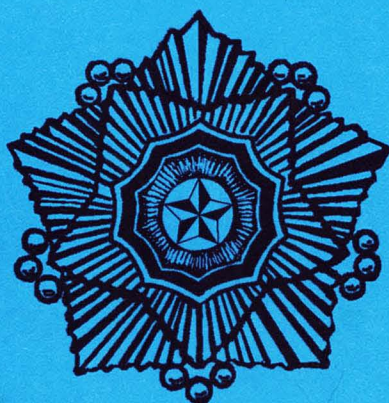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조선문학



3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3호

(루계 제 701 호)

◇◇◇◇◇◇◇◇◇◇

차 례

◇◇◇◇◇◇◇◇◇◇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올해 문학작품	3
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3
아, 장군님의 병사라네	4
영광이 있으라, 승리가 있으라	5
밤은 깊어도	5
장기바위	6
녀성군인들의 노래를 들어주시며	8
수령송가문학을 처음으로 창작한 혁명시인	9
김일성화 (외 2 편)	11
김정일화	11
불을 비볐소	12
총춤	12
우리는 이 땅에 태어 났네	12
주체문학의 대강	13
학 당 끝	13
땅에 대한 이야기	14
농민의 력사	15
농촌위원회의 밤	17
땅을 부여받은 날 밤에	18

밝은웃음	19
우리는 주타격전선에서 또다시 만났다	28
농장길	28
다시 한번!	29
바뀌여진 장면음악	30
어머님 사랑하신 노래	30
어머니들을 축복하노라	31
시적발견은 스스로 얻어지지 않는다	33
어랑천	37
눈 빛	42
아 삼지연의 밤이여	43
운명의 파도	44
숲은 애국으로 푸르다	54
소설을 가장 많이 쓴 작가	54
숲과의 인연	55
숲향기 (외 1 편)	55
숲과 폭풍	56
어제날의 인연	57
새 들 아 (외 1 편)	67
들꽃 한송이	67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68
경구, 격언	68
통일운동의 첫 세대에 바쳐진 감동적인 화폭	69
병사와 애국	74
근면성	75
《어느것이 더 가까운가?》	75
철 산 봉	76
우리 나라는 룡의 원산지	78
젊은 벗들에게 하고싶은 말	79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올해 문학작품

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지금 온 나라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에서 더 높이 비약하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올해 우리 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다.

우리 작가들도 당의 이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창작으로 기세 좋게 달리며 선군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주체95(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스런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공세의 해이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고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달려나갈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 오늘 우리 당은 전당, 전군, 전민이 대담하고 전면적인 공격전을 벌려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어떤 시기의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반드시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산 경험과 교훈을 줄수 있게 되여야 하며 거기서 사람들이 신심과 용기를 얻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승리적으로 걸어온 우리 작가들앞에는 우리 당의 붓대철학을 깊이 새기고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적극 고무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올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ㄷ. ㄷ》를 결성하신 80돐을 맞이하게 된다.

《ㄷ. ㄷ》결성 80돐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

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이 뜻깊은 정치적사변을 맞으며 주체의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을 자랑스런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창작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사상전진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것은 사회주의의 강성변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올해에도 우리는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사상과 신념으로 따르고 결사옹위하는 투철한 혁명가로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동지애를 지니고 장군님을 언제 어디서나 높이 모셔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혁명의 3세, 4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일심단결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우리의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는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모습을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창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릴뿐아니라 창작되는 모든 작품들이 우리 당의 선군철학, 선군혁명로선,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한 사상교양의 위력한 무기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작품창작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군사를 중시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원칙적립장에는 드림이 없다.

작가들은 자위적국방력의 핵심이며 사회주의의 기동인 백두산혁명강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우수한 작품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올해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 해이다.

우리 당은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

타격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한번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 선군시대 사회주의농촌의 전형적주인공을 더 많이 형상해냄으로써 농사에 적극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깊이 들어가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해내야 한다. 그러면서 경제사업을 실리가 나게 지도하는 일군들을 적극 찾아내어 그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그리고 작가들은 선군위업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청년전위들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작품 등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나감으로써 선군시대의 작가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필가들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붓대철학이라는 새로운 정식화를 주시고 우리 작가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오늘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을 받들어 전진하는 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시대를 선도하는 더 많은 명작을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붓대철학을 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면적공세를 힘있게 떠밀어주는 명작을 더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뛰어난 문학적천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주체문학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당에 의해 교양육성된 작가대중이 있는 한 우리는 얼마

든지 시대가 바라는 명작들을 창작할수 있다.

명작창작의 근본비결은 작가들의 정치사상적준비와 높은 창작실력에 있다.

작가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작가들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데로 창작하는 바로 여기에 명작창작의 방도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에 진심으로 매혹되고 공감되어 자기들이 써나가는 글줄마다에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가 뜨겁게 맥박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고 따르며 영원히 우리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올해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고 노력하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형상능력을 부단히 키우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가들은 1970 년대의 그 열정, 그 기백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창작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들끓는 현실에는 선군시대가 배출하는 수많은 시대의 전형들이 자라나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현실속에서 태어나는 원형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형상적으로 재현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내면세계와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을 폭넓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작품,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시와 가사를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아, 장군님의 병사라네

주명옥

피끓는 청춘의 높뛰는 이 가슴
총을 안은 궁지 넘쳐난다네
나에게 이 총은 믿음이 아닌가
그 믿음을 안은 나는야 병사
아 장군님의 병사라네

인생에 다시 없을 귀중한 이 시절
군복입어 떳떳한 모습이라네

나에게 군복은 맹세가 아닌가
그 맹세 지켜갈 나는야 병사
아. 장군님의 병사라네

쉽게는 못지날 더없는 믿음속에
보람찬 복무의 길 이어간다네
조국의 방패되어 초소를 지켜선
총과 군복은 바로 나라네
아 장군님의 병사라네

영광이 있으라, 승리가 있으라

김만영

고난속에서
시련속에서
사회주의붉은기를 지키며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내 나라
조국은 또다시 큰 걸음을 내짚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발걸음이나
얼마나 긍지높은 발걸음이나
나는 벅차오르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조국의 이 전진을 노래한다
휘황한 래일을 노래한다

이 발걸음속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러 날뛰는
원썩들의 아성을 짓몽개버릴
일당백병사들의 담력과 용감성이 있다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로 장비되는
우리 공장들의 동음소리가 있다
올해에 풍작을 안아올
협동벌의 드높은 숨결이 있다
강성대국의 지름길이 있다

오, 이 발걸음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기와 세기의 언덕을 뛰어넘는
전면적공세의 발걸음
비약의 발걸음

가사

우리는 이 발걸음으로
세기의 령봉들을
징검돌마냥 딛고 넘으리라
우리는 이 발걸음으로
고난을 박차고
기어이 이 땅에서
강성대국의 아침을 마중하리라

세기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를 따라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으로 충만되고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친
우리의 이 발걸음을 멈춰세울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더 높이 지축을 울리라
더 크게 보폭을 내짚으라
군대여, 인민이여
최후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보무당당한 그 전진에
시대와 력사는 뜨거운 축복을 보내노니

위대한 선군조국이여
그대의 전면적공세에 영광이 있으라!
사회주의강국이여
그대의 비약에 승리가 있으라!

밤은 깊어도

진춘근

밤은 깊어도 밤은 깊어도
하나의 불빛만은 잠들줄 모르네
아 최전연 령을 넘는 야전차불빛
장군님의 선군길에 새날이 밝아오네

밤은 깊어도 밤은 깊어도
사랑의 불빛은 더욱 밝아라

아 인민을 찾아가는 야전차불빛
장군님의 선군길에 행복이 실려오네

밤은 깊어도 밤은 깊어도
천만리 이어지는 사랑의 먼길
아 장군님 야전차 불빛에 실려
이 강산에 강성대국 새날이 밝아오네

장기바위

왜놈들의 《동기대토벌》이 시작되자 어느 한 중국인 구국군부대에서는 동요가 일고 탈주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왜놈들의 허장성세에 지레 겁을 먹은것이였다.

항일의 기치를 들고 부모처자와 헤어져 산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그놈들과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역량만 보존해오던 구국군부대였다.

(이젠 어쩌면 좋은가?)

구국군부대의 사령은 며칠째 끔찍대며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사면팔방으로 왜놈들이 달려들지, 대오안에서 도주자들이 생기지, 그렇다고 왜놈들의 대병력과 맞서 싸울 힘은 없지 하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그는 이때처럼 자기가 구국군부대의 사령이 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적이 없었다. 홀몸도 아닌 수백명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린것이였다.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얼마 안있어 부대는 사분오열되어 뿔뿔이 흩어지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했다.

그런데 왜놈들은 구국군부대라면 기를 쓰고 뒤쫓아 달려드는판이였다.

과연 부대를 살릴 길이 없단 말인가?

《사령님, 우린 이대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린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만 합니까?...》

병사들이 가슴을 치며 묻는 말에 사령은 대답을 줄수 없어 피가 나게 어금이를 깨물곤 했다.

(병사들, 무뎡한 이놈을 용서해주시요. 난 당신들을 이끌 재목이 못되는가 보오.)

사령은 때로 자총을 해서라도 왜놈들에게 굶어 들지 않는 자기를 보여주고싶었다. 그렇게 해서 병사들의 용서를 받을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는 일개 병사가 아니였다.

사령은 쉬이 죽을수도 없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했다. 구국군병사들의 처지는 날을 따라 처참해졌다.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일제가 《9. 18사변》을 일으키고 동북을 강점하자 많은 병사들이 그를 구국군사령으로 받들고 항일의 기치아래 모여들었다.

한때는 이 만주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은것이 구국군부대들이어서 왜놈치기에 신바람이 났었다.

게다가 늘 이웃에 축지법대장수인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기세는 더욱 충천하였다.

그런데 왜놈군대가 중국대륙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구국군부대들이 하나 둘 피멸되어갔던것이였다.

(우리 부대도 결국은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할수 없단말인가?)

사령은 절망에 잠겨있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김일성장군유격대》만은 여전히 기세충천하여 왜놈부대들을 죽쳐대고있다는것이였다.

《그게 정말인가?》

사령은 한발 나서며 물었다.

소문을 날라온 병사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사령은 이미 김일성장군님은 온 조선민족이 태양으로 받드는분이심을 알고있었다.

사령은 언제든 한번 그분을 만나 축지법을 배워 주십사 하고 절절한 청을 드릴 생각이였다.

《너희들은 어서 가서 김일성장군이 계신 곳을 알아오라.》

사령은 그길로 몇명의 병사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종무소식이였다.

사령은 기다리다 못해 부대를 거느리고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날 한 사병이 수상쩍은 포수로인을 사령에게 데려왔다.

사병의 말이 매우 이상한 령감이라는것이였다.

겉보기와는 달리 말소리도 컸고 몸가짐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로인장은 어디 사시오?》

《백두산의 포수울시다.》

《왜놈들이 산림속에 한벌 쪽 덮여 닥치는대로 죽이고 매달고 하는 이 사지판에서 무엇을 하는거요?》

《짐승을 잡지요...》

로인의 대답은 거침없었다.

사령은 그가 포수이니 그럴만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왜놈들은 포수라고 살려두는 법이 없었다. 동정심이 갔다.

《왜놈들이 무섭지 않으시오?》

《...》

그 물음에 로인은 대답을 안했다. 몹시 못마땅한듯 눈을 울리뜨고 내리뜨고 했다. 그의 눈길이 사령의 발끝에서 머리를 거쳐 다시 사병들의 처참해보이는 주제들에 가닿았다.

로인은 종잡울수 없는 질문을 했다.

《어른은 어느 편이요?》

《?...》

이번에는 사령의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의 물음에 이번엔 그의 자존심을 찌른것이다.

제눈으로 보고 구국군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머리가 좀 잘못된 로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갔다.

로인은 부시력부시력하며 담배쌈지를 꺼내서는 담배를 말았다. 그리고나서 또 한번 사령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이보시우, 어른! 마음놓수다. 저 백두산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백성들이 뭐가 무서울게 있겠소?... 오히려 왜놈들이 벌벌 떨고 있지요.》

《로인장, 이자 그 말이... 사실이요?》

사령은 귀가 번쩍 열리어 로인의 손을 잡았다.

《사실이지요. 지금 백두산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며 왜놈들을 죽치신다오. 며칠전에도 왜놈들이 쫓딱 녹아나는걸 내 눈으로 봤수다.》

사령은 그 로인을 귀인으로 대접했다.

그리고 며칠밤을 새워가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들을수록 한시바빠 그분을 만나뵙고싶은 소망이 커졌다.

이번 기회에 그분에게서 왜놈들을 골탕먹이는 죽지법이나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찾아드는 술법들을 모두 배워오리라 생각했다.

구국군병사들도 사령의 이 결심을 듣고는 한결 같이 호응해나섰다.

그길로 사령은 몇명의 호위성원을 거느리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떠났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다.

하루이틀이면 오겠하던 사령은 돌아오지 않았다.

구국군병사들은 기다리다 못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불안도 가지였다.

그러던차에 구국군부대는 왜놈들의 대병력과 맞다들게 되었다.

왜놈들은 대뜸 그들이 구국군부대라는것을 알아보고는 겁질기게 포위망을 좁혀들었다.

벌써 투항하면 살려준다고 고아대는 놈들도 있었다.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는데 창창 개인 하늘에서 파르릉— 파르릉 하는 우뢰가 터졌다.

우뢰소리에 기절초풍한 왜놈들이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흰 안개가 자욱한 언덕우에 사령이 느물느물 웃으면서 쫓겨가는 왜놈들을 보며 서있는것이 아닌가.

《사령님!...》

병사들은 우르르 사령을 둘러싸고 눈물을 흘렸다. 때아닌 우뢰소리에 왜놈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린것이였다.

《사령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웠습니까?》

《배워오신다면 죽지법은 어떻게 되였는지요?》

《그분은 어떤분이시오이까? 들리는 말엔 그분의 키는 하늘에 닿고 백발수염이 구름이 되어 흩날리신다는데...》

질문의 소나기에 사령은 벌췌벌췌 웃음으로 대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령 일행이 천신만고끝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게 된것은 불과 며칠전의 일이었다.

장군님께서는 구국군부대의 사령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반갑게 맞아주

시였다

사령은 온 만주땅에 전설처럼 명망이 높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매우 젊으신분인데 놀랐다. 마치도 청청한 푸른 하늘을 보는듯 온몸에 피가 끓고 힘이 우썩우썩 커지는듯 했다.

장군님께서는 구국군의 실태며 사령이 직접 불원천리하고 찾아온 사연을 들으시고는 백두산이 찌렁찌렁 울리게 웃으시였다.

기꺼이 왜놈들을 죽치는 신비한 지략과 술법들을 배워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가 장기를 좋아한다는것을 아시고 그를 너럭바위에로 이끄시였다. 둥근 밥상모양의 바위우에 장기판이 그려져있었고 옥돌처럼 빛같이 파르스름한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쪽들이 놓여있었다.

바로 그때 걱정이 생겼다.

장기라면 만사불구하고 끝장이 날 때까지 결판을 보고야마는 사령이었지만 대적이 덤벼드는 어마어마한 정황인지라 몹시 급해하며 자리를 일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그놈들이 손님도 알아못보는군...》 하시며 사령의 손을 잡아 장기판앞으로 이끄시는것이였다.

장기판에서 말과 상이 뛰어나가고 포가 넘나들고 차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기에 들어서서는 첫자리를 양보하라면 도리머리를 뒤흔드는 사령인지라 어느덧 장기에 심취되어 술수를 넘겨짚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왜놈들이 밀영을 포위하고 무척 가까이 접근했다는 걱정이 두번세번 알려오자 조급해나서 장기수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작은것에 골몰하면 큰것을 잃게 됩니다.》

장군님께서는 가끔 의미있는 말씀으로 그의 장기수를 튜겨주시였다.

이때 전령병이 왜놈들이 밀영을 향해 《돌격》해올 태세라고 보고드리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낮색 한번 달리하지 않으시고 장기판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쪽을 드시여 《장훈이요!》하고 큰소리로 웨치시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장군님께서 장기쪽을 들어 《딱!》하고 내려치실 때마다 그 소리가 어찌도 요란스레 울리는지 폴안이 쩡쩡 울리는것이였다. 장기판을 마중한 구국군사령도 깜짝깜짝 놀랐다. 분명 장군님께서는 자기와 꼭 같은 장기쪽을 옮겨놓으시는데 그때마다 벼락치는것처럼 그 소리가 공명되는것이 아닌가.

더욱 놀라운것은 밀영근처로 기여들던 왜놈들이 그 소리에 얼이 빠져 경황없이 뺑소니를 치는것이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총 한방 쏘지 않고 왜놈들을 쫓아버리시다니...

그의 이런 의문은 기절해 나자빠졌다가 유격대원들에게 끌려온 왜놈들에 의해서 풀리였다.

그날 제놈들이 유격대밀영을 은밀히 탐지하여 포위망을 한발자국 두발자국 좁혀들었는데 난데없이 끝안이 깨여지는듯 한 벽력소리가 울리더라는 것이었다.

그 벽력소리에 왜놈들의 귀청이 터져나갔다.

이어 무서운 평음이 울리면서 절벽이 와그르 무너져 팔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터져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구국군사령은 그제서야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를 불러 단순히 장기를 두신 것이 아니라 신출귀몰하는 축지법을 배워주시는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도 그분에게서 배운 축지법으로 우뢰소리를 타고 자기 부대에 돌아올수 있는 것이었다. ...

그로부터 얼마후 구국군부대와 항일유격대가 연합하여 왜놈들이 동지를 틀고있는 한 성시를 들이쳤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고 한다.

오늘도 백두산기슭의 울울창창한 그 끝안에 가보면 그날의 장기바위가 있다고 한다.

김종석

혁명일화

여성군인들의 노래를 들어주시며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에 흐르는 혼연일체의 감동적인 화폭들은 위대한 선군시대에 더욱 활짝 꽃피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혁명무력건설에서도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주체87(1998)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있던 일이다.

그날 공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일군으로부터 공장가까이에 여성해안포중대의 군인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여성군인들이 자신께서 감나무중대에 갔을 때 화력복무훈련을 하던 군인들이라는것을 아시자 못내 반가와하시였다.

뜻밖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께로 달려온 군인들은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장군님께 변변한 인사의 말씀도 울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헤여졌던 딸자식을 만나신듯 천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뜨겁게 만나주시였다.

이때 한 여성군인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중대군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불러드리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난 때였고 날씨는 몹시웠다.

더구나 어느 극장도 아닌 공장구내에서였다.

여성군인들을 정답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노래를 하겠는가고, 그런데 여기서 부르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씩씩하게 말씀올리는 여성군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일군들도 다 들어보게 어서

불러보라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공장구내에서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감동적인 화목이 펼쳐지게 되었다.

꿈만 같은 영광을 받아안은 여성군인은 행복과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금잔디 밟으며 첫 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성군인이 부르는 노래가 끝났을 때에는 잘 부른다고 하시며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중대에 갔을 때 있었는가, 노래는 어디에서 배웠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보시며 친아버이 심정으로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다심한 사랑에 어려움을 잊은 다른 한 여성군인이 감나무중대의 한 문학통신원이 쓴 자작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노래에 이어 시까지 다 들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감나무중대 여성군인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괜찮게 읊는다고 다시금 치하하시였다.

또다시 노래를 불러드린 여성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춘을 조국보위초소에 바쳐가는 녀병사들이 더없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우시여 그들을 둘러보시며 군사복무를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공장구내에 펼쳐진 혼연일체의 감동적인 화폭!

그것은 위대한 아버지와 병사들간에 흐르는 뜨거운 혈연적관계의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수령송가문학을 처음으로 창작한 혁명시인

《너는 김혁, 나는 성주》, 이 불멸의 글발은 오늘날도 우리 작가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조선혁명의 러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혁과 맺으신 동지관계, 인간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숭고한 화폭으로 펼쳐지는 수령과 작가의 관계의 빛나는 전통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혁은 나의 청춘시절에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시며 그에 대하여 여러차례 회고하시었다.

조국땅에 민족수난의 비운이 드리웠던 1907년 10월 11일 평안북도의 한 농촌에서 태어난 혁명시인 김혁은 어려서부터 일제침략자들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서 나라없는 민족의 설움과 고통을 뼈아프게 체험하며 성장하였다.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항학열이 높았으나 식민지나라 지식청년의 불우한 운명을 면할수 없었던 김혁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됨으로써 비로소 참된 삶을 찾고 인생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E. C》성원으로 된 김혁은 반제청년동맹과 공산주의청년동맹의 핵심적골간으로 사업하였으며 첫 당조직의 성원으로서 혁명적출판물《불세위크》의 주필로, 조선혁명군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다.

혁명시인이며 주체형의 혁명가인 김혁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생을 마치기까지의 기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그의 고결한 혁명생애는 우리 모든 작가들에게 주체형의 혁명전사는 자기 수령을 어떻게 옹위하며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시인의 필봉을 어떻게 추켜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시인 김혁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 항일혁명대오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비범한 사상론적식견과 탁월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 더욱 깊이 매혹되었다.

혁명의 전도와 그 승리에 대하여 아직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한 김혁의 투철한 자세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이끌어줄 령도자는 오직 김일성동지 한분밖에 없으며 그의 령도의 손길, 동지적사랑의 품을 떠나서는 혁명도 할수 없고 살아갈수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의 발현이었다.

혁명시인 김혁은 길림, 카툰, 고유수, 류하, 할빈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과 그이를 조선혁명의 수령으로 모신 우리 인민의 행운에 대하여 격조높이 이야기하면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조국과 민족의 밝은 앞날이 있고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열정적으로 해설선전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령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김혁의 열렬한 충성심은 혁명송가《조선의 별》을 창작보급한데서 더욱 뜨겁게 발현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노래한 혁명적인 가요이다.》

혁명시인 김혁이 심혈을 다하여 창작한 혁명송가의 가사와 선률에는 일제에게 짓밟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환희와 창창한 희망이 맥맥히 흘러넘치었으며 찬란한 향도성을 우러러따르며 기어이 조선의 새날을 안아오려는 맹세가 숨엄하게 울리었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

삼천리강산을 밝게 비치며 캄캄한 밤하늘에 솟아오른 조선의 새별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기쁨, 그것은 짓밟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행복한 미래에로 이끌어주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기쁨과 환희였다.

차광수, 김혁, 계영춘 등 참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벌린 그때로부터 조선의 앞길을 밝혀주는 새별이 되어주길 바라는 숭고한 뜻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한 일》자와《별 성》자를 붙여 김일성동지 또는 한별동지라고 불러오다가 것처럼 위대하신 민족의 령도자를 어찌 새별에만 비기라 하여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념원에서 《날 일》자와 《이를 성》자를 써서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게 되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새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념원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으며 그이를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모심으로 하여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굳은 신념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혁명송가에는 계속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끝까지 혁명하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드팀없는 혁명적신조가 투철하게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받들어모시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자세와 립장, 수령님에 대한 비길데 없는 충성심의 열도는 가요의 3절에서 더욱 숭엄하게 울리고있다.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삼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혁명송가에는 이처럼 간악한 원쑤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을 이룩한 다음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토록 높이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념원과 확고한 신념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혁명투쟁에서 참다운 령도자, 탁월한 수령을 어떻게 모시며 수령의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아가야 하는가를 높은 시적형상으로 표현한 혁명의 노래, 충성의 노래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도록 고무해주는 충성의 노래로 되어 항일혁명의 그 준엄한 나날 힘차게 계속 올려퍼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혁이 노래 《조선의 별》을 지어 혁명조직들에 보급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엄하게 만류하시였으나 김혁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신념으로부터 혁명송가보급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탁월한 수령을 맞이한 조선민족의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담은 우리 인민의 첫 수령송가였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령도자와 대중이 일심동체를 이룬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를 알리는 장엄한 혁명송가였다.

혁명시인 김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 방침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전사였다.

김혁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류하현 고산자일대에서 대중정치사업을 벌리던 때의 일이다.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의 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방침을 고수할수 없고 혁명대오의 사상적단합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확신한 김혁은 회생을 각오하고 그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김혁은 테로를 일삼는 놈들의 비렬한 행위로 하여 언제 어디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낮에 밤을 이어 반제청년동맹의 여러 지부들을 찾아다니며 청년들을 설득력있게 깨우쳐줌으로써 진부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혁명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하게 받들어나간 김혁의 혁명적립장과 높은 충성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과업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불같은 열정을 쏟아부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끝없는 헌신성에서 뜨겁게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카툰회의가 있는 후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사상적대변자의 역할을 할 혁명적출판물 《불세워크》를 창간하시고 김혁에게 그 주필로 사업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수령님의 숭고한 의도를 빛나게 관철하였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리를 지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받든 김혁은 한없이 고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수령님의 안녕을 받들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견결한 혁명투사였다.

주체19(1930)년 8월 조선혁명군소조를 책임지고 할빈에 파견된 김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부두, 철도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계층 군중속에 들어가 혁명조직을 확대하면서 기층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벌리는 한편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적들의 탄압이 우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해나가던 김혁은 어느날 할빈도리의 비밀련락소에서 불의에 달려든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었다.

김혁은 자기를 혁명의 길에서 돌려세워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는 적들과 총격전으로 맞서 불사조와 같이 싸웠다. 마지막탄알까지 원주의 가슴팍에 안긴 김혁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비밀련락소 3층집에서 결연히 몸을 던졌다.

우리 인민의 첫 수령송가 《조선의 별》을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청년공산주의자, 혁명시인 김혁은 려순감옥에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가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 견결히 싸웠으며 자신의 빛나는 최후를 통하여 주체혁명의 혁명전사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어떤것인가를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었다. 그는 또한 혁명의 수령을 받들고 수령의 위업을 노래

가시류

하는 혁명가—시인의 심장이 어떤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온몸을 애국으로 불태우며 보람찬 혁명투쟁속에서 청춘을 빛내이던 혁명시인 김혁은 너무도 일찍이 우리결을 떠났다.

그러나 그 어떤 명예나 공명도 바람이 없이 오직 혁명가의 신념과 의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혁명의 수령으로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닦을 올리는 성스러운 투쟁에 피끓는 청춘, 고귀한 생명을 바친 김혁의 혁명생애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선군시대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 작가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빛을 뿌리고있다.

박준택

김일성화 외 2 편

가메다 노보루

꽃잎을 꽃잎을 날개처럼 팔랑이며
날아간다 날아간다 떼지어 정연하게
고귀한 **김일성화** 고귀한 꽃의 나비
김일성주석님 은혜론 향기 그윽히
진분홍 아름답게 따듯이

고귀한 **김일성화** 고귀한 꽃에 담긴 말
김일성주석의 미소속에 미래가 비친다
진분홍 아름답게 따듯이

우주에 우주에 꽃잎 날아오른다
온 세계에 온 세계에 만발하네
고귀한 **김일성화** 고귀한 꽃의 마음
김일성주석님 자애의 빛 그윽히
진분홍 아름답게 따듯이

고귀한 **김일성화** 고귀한 꽃의 마음
김일성주석님 자애의 빛 그윽히
진분홍 아름답게 따듯이

김정일화

활짝 피어난 붉은 꽃
이 세상 어디에나 그 어디에나
꽃색도 향기도 생생한 **김정일화**
한없는 인덕으로 인민을 품어주는
김정일총비서의 인품 어려있네

꽃색도 향기도 생신한 **김정일화**
한없는 인덕으로 인민을 품어주는
김정일총비서의 인품 어려있네

뜨거운 마음처럼 붉은 꽃
래일을 향하여 포근히 미소 짓네
조선의 기상인가 생기넘친 **김정일화**
아름답게 피어난다 마음속에 우주에
김정일총비서의 태양빛을 뿌리네

조선의 기상인가 생기넘친 **김정일화**
아름답게 피어난다 마음속에 우주에
김정일총비서의 태양빛을 뿌리네
김정일총비서의 태양빛을 뿌리네

불을 비볌소

불을 비볌소 달려가서 천리마에
올려다만 보았을뿐 지금까지는
처음 말했소 들었소 속마음을
달리고싶구나 날고싶구나
평화가 꽃피는 지구의 창공을 창공을

바라고있소 누구보다도 천리마가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어제는 침략의 깊은 상처 입었으나
달리고싶구나 날고싶구나

전쟁이 없는 지구의 창공을 창공을
함께 걷자 조선과 말하자 천리마와
달리고싶구나 날고싶구나
지구의 창공을 창공을 세계는 하나

함께 걷자 조선과 말하자 천리마와
달리고싶구나 날고싶구나
지구의 창공을 창공을 세계는 하나
(일조문화의 회 대표)

총춤

김경석

전술훈련 휴식참
또 하나 타고 앓은 고지우에
춤판이 펼쳐졌다
병사들의 총춤!

경쾌하게 울리는 하모니카반주에
새들도 슬며시 고운 목청 거두는데
어허라, 땀젖은 군복차림 그대로
제일 먼저 뛰어든 중대장의 출현에
어찌 박수만 보낼가부나

들썩이던 어깨들이 자리차고 일어선다
웃을 피는 얼굴들이 달려나온다
오르며 내리며 번쩍이는 총대여
쿵—쿵 우뢰치는 발구름이어

보아라, 푸른숲도 참지를 못해
아지를 한껏 펼쳐 흥을 돋우고
저기 흘러가는 흰구름도

그냥 가기 아쉬운듯 걸음을 멈췄구나

좋다! 종구말구 춤이라도 총춤이
백두의 눈보라 혈전의 천만리에
투사들 새힘을 가다듬던 총춤
해방의 춤바다 전승의 춤바다
원썩마다 무찌르고 이 땅에 안아온 춤

좋지, 종구말구 어허— 어여차!
침략자가 이 행성에 남아있는 한
휴식의 한때에도 놓을수 없는 총
총춤이 없이야 야전오락회
이처럼 멋지고 벽찰수 있으랴

춤을 추자 전우들아
원썩무리 깨끗이 쓸어내친 그때 가서도
이 춤을 추자 영원히 놓지 않을 총, 총춤을
아무렴 그렇지 앓구 어허라 좋다!
높이 쳐든 총대우에 하늘 맑고 푸르구나!

가사

우리는 이 땅에 태여 났네

오금희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은 승리의 땅
항일의 선렬들 피가 스민 땅
동무여 이 땅의 한줌흙 쥐여보라
투사들 배낭에서 뜨거워진 그 흙을
아 이 땅에 우리가 태여났네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은 승리의 땅
전승기념탑이 높이 솟은 땅
동무여 나뭇기는 공화국기 바라보라

영웅들 넋으로 찬연한 기발을
아 이 땅에 우리가 태여났네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은 승리의 땅
수령님과 장군님 높이 모신 땅
동무여 후손만대 지켜갈 내 조국
오늘은 새세대 우리앞에 있어라
아 이 땅에 우리가 태여났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은 우리 말과 글의 민족적특성을 가장 순결하게 고수하고 발전시킨 문화어의 중심지이다.》

《작가는 우리 당의 언어정책의 정당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써야 한다.》

《언어탐구와 형상에서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지켜나가려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워야 한다.》

《수령님의 문풍을 따라배우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언어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을 많이 읽고 새기면서 문장과 단어표현의 묘미를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학 당 골

학교와 서당이 많다 하여 학당골
그때의 옛모습을 찾아볼길 없다고
애국애민에 불타던 선생님의 숨결은
가버린 세월따라 멀어져만 갔던가

학교마다 서당마다
제나름의 지식은 가르쳤건만
그 누구도 가르쳐줄수 없었던
독립의 길을 찾아 김형직선생님
결연히 승실중학교 떠나셨던 학당골

이 땅에 문명의 빛을 주기엔
학당골이 너무 좁아
나라없는 겨레의 눈을 띄워주시려
이슬 차며 헤치신 밤길은 얼마이며
그 길우에
리정표마냥 솟아난 학교는 그 얼마던가

들려왔더라
무지와 몽매의 어둠을 밝혀
선생님 이 나라의 화불이 되셨음은
순화학교아이들의 여문 글소리에서
명신학교아이들의 맑은 노래소리에서

그 나날에 키우심은 학생들뿐이던가
삼천리전역에서 반일의 넋을 키울
뜻을 두신 걸음으로 다시 오시여
선생님 무어주신 조선국민회!

명신학교 교단에 나서시던 그 차림새로
민족이 일치단결 단합된 힘으로
조선독립 이룩하고
문명국가 세우자고 호소하신
1917년 3월 23일은

선생님 애국의 스승이 되어
각지에서 모여든 열혈투사들에게

조선독립 새 강의를 시작한 날이었다
민족단합 큰 교실에 모두 불러들이는
학당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 날이었다

아 그날의 학당골을 터전으로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의 은은한 종소리는
지식은 애국의 터전우에 다져야 함을
만사람을 깨우쳐 날마다 울리는가
온 겨레를 마음껏 배우게 하고싶던
선생님의 념원 담아 온 나라에 울리는가

지금 여기에
그날의 학교는 보이지 않는다
허나 나라를 위한
그날의 중대한 회합은
여기 솟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 오늘도 열리고있다

학교가 자리잡고있었다는 방향의
만수대에술극장 창가마다에서는
김형직선생님을 그리는 노래가
금시 귀전에 들려올듯싶구나

아, 학당골이 네우에 솟은
평양학생소년궁전 희망의 집에선
순화학교, 명신학교 그 세월을 안고 아이들이
《지원》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민족의 래일로 자라는게 아니나

내 굳이 민노라
그때의 옛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도
학당골에 일떠선 그 모든 건축물마다
선생님의 숨결로 숨을 쉬고있음을
그로하여 길이 빛날 학당골, 학당골!

땅에 대한 이야기

유성희

나는 땅에 대하여 잘 모른다. 땅을 다루어보지 못한 내가 어찌 구수한 땅의 향기를 알며 그 땅으로 하여 겪어온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다 알 수 있으랴. 다만 한없이 귀중하다는것만 알뿐이다. 나라없던 그 세월 어느 한 시인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가슴속의 울분을 토했었다.

그 땅, 그 봄을 다시 찾으려고 우리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굳은 맹세를 다지시고 혁명의 길에 오르시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신것 아니었던가...

얼마전 대동군의 어느 한 농장에서 현실체험을 하던 나는 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사는 한 로인을 알게 되었다. 이 고장태생인 그의 한생은 땅과 함께 흘러왔다.

《사람은 일하는 밭에 산다.》

이것은 그가 버릇처럼 외우는 말이었다.

나도 많은데 쉬라고 권고하면 당에서 농업전선을 주타격전선으로 내세우고있는데 멀쩡한 사람더러 집구석에 앉아있으라니 말이 되는가 하고 오히려 제편에서 언짢아하는것이였다.

일밖에 모르는 로인이였다. 해종일 젊은이들과 어울려 일하는것도 그렇거니와 아들딸 다섯남매를 농장의 주인으로 키운 로인이다.

어느해인가 군사복무를 마친 맏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도소재지에 있는 농업기업소에 배치된적이 있었다.

《거참 잘 됐수다. 아들을 잘 두어 늘그막에 락을 보게 되었구만.》

한뉘 농사밖에 모르는 로인을 생각해서 사람들은 제일처럼 기뻐하였다. 하지만 로인은 겹다희다 아무 말도 없었다.

시허연 눈섭을 꿈틀거리며 한두번 입귀를 실룩거렸을뿐이였다.

그후 아들이 도소재지에 나가 함께 살자고 찾아왔을때 그는 불만을 터뜨렸다.

《나더러 이 고장을 뜨라구?》

그는 아들을 쏘아보며 화를 내었다.

《나는 한생을 이 고향땅을 다루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땅을 버리라구?》

그는 피로운 표정을 지으며 갈린듯 한 음성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그게 어떤 땅이라구... 그 땅을 버리고 호의호식한다고 내 맘이 편할상싶으냐?》

아들은 두말을 못했다. 그 소문이 마을에 퍼져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기웃거리며 로인의 성

미가 피벽하다고 나무랐다.

누가 뭐라고 하든 로인은 땅을 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버릴수 있으랴.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보통흙이 아니였다. 생명이고 존엄이고 미래가 약속되어있는 앞날이였다. 생명이여서 버릴수 없고 존엄이여서 지켜야 했고 앞날이여서 더잘 가꿔야 했던것이다. 더군다나 땅을 버리는것은 농사군의 량심을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로인이였다. 그는 아들이 자기의 이런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을 못내 서운하게 생각하였다. 한두해가 지나서 아들이 농장에 진출하여왔을 때에야 그는 얼굴의 주름을 펴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원 녀석두 진작 그렇게 할게지...》

이런 로인이였다.

나는 언제인가 로인과 자리를 같이한 기회에 어떻게 되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지금까지도 그토록 땅을 사랑해오는가에 대하여 혹시 그 어떤 남다른 사연이라도 있는게 아닌가고 물었다

나의 질문을 받은 로인은 입을 꼭 다물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모름지기 가지가지의 사연으로 엮어진 자기의 한생을 돌이켜보는듯 했다.

《올해의 3월 5일은 우리 농민들의 큰 명절입니다.》 하고 로인은 얼마쯤 지나 회억에 잠긴 어조로 말꼭지를 뺐다.

《세월두 참... 우리 수령님의 품에서 이 땅이 인민의 땅으로 새롭게 태어난것이 어제같은데 벌써 예순돌기를 새기게 되는군요. 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땅이 없는 설움, 쌀이 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자랐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제땅 한뼘기라도 가져보았으면 하던 소원을 풀지 못한채 밭고랑에서 숨을 거두고요. 결국 13살밖에 안되는 내가 피멍이 들도록 가대기를 끌어야 했지요. 땅때문에 겪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말하자면 끝이 없수다. 그러니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농군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소. 지금도 눈에 선하오. 온 마을이 들썩했지요.》

해방된 이듬해 봄, 이 땅이 생겨 처음보는 감격과 환희가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넘쳐 흘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법령이 일군 생의 희열과 기쁨의 파도였다.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민주개혁의 첫 포성으로 울려퍼진 이 메아리는 인민의 새 땅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력사의 선언

이었다.

《그해 봄의 어느날 놀라운 소식이 마을에 퍼졌지요. 글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마을에 찾아오셨다는게 아니겠소.》

로인의 말에는 누를수 없는 흥분이 실려있었다. 그가 농촌위원회로 달려갔을 때에는 술한 사람들이 앞마당에 모여있었다. 자나깨나 그립던 백두산의 전설적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지척에서 뵈게 될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농촌위원회 일군들에게 토지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밖으로 나오시자 사람들속에서는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었다. 그러시고는 토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하고있는 농민 여러분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마을이 떠나갈듯 또다시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토지개혁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오》하고 로인은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올라 눈물이 글썽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선인민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열려져있다고,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은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잊지 말고 지주와 반동들을 철저히 소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지요. 참으로 우리들의 계급적각성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놀고먹는 지주는 땅의 주인이 아니다.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었지요.

땅의 영원한 주인! 얼마나 뜻이 깊은 말씀이요. 얼마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말씀인가 말이요.

머칠후 마을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토지개혁을 끝냈지요. 나한테도 제땅이 생기구요. 아버지가 그처럼 바라던 제땅이... 그날 이름 석자 씌여있는 패말을 안고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지요. 땅이 없어 무지렁이처럼 천대받던 지난날이 떠올라 울었고 받아안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울고 또 울면서 멀리 평양쪽을 향해 절을 하였지요 영원한 땅의 주인이 되어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겠다는것이 그때 내 가슴에 새겨진 맹세였지요.》

나는 비로소 로인의 진정을 알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뵈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수령님을 우러러 다진 맹세를 지켜 땅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식들도 땅의 주인들로 키워 떳떳이 내세운 그 심정을...

나는 땅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더듬곤 한다.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풀린 그때로부터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도 산천도 변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것은 이땅에 영원히 흐르고있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토지개혁으로 인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토지정리의 세기적위업을 실현하시여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의 대지, 선군대지를 펼쳐주시었다. 세월은 흘렀어도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젊어지는 이 땅에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가 세차게 흐르고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인민은 이 땅에 정들고 사랑과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라고. ...

—대동군 성삼혁명사적지에서—

농민의 력사

김정경

별에 타고 비에 젖어
붉어진 얼굴을 들고
흙빛에 절고 풀물이 든 이 손에
서슴어지는 붓 삼가 들고
우리 장군님 펼치신 선군시대
주타격전선을 지켜선 농민의 자격으로
내 오늘 말해보련다
이 땅에 흐른 농민의 새 력사를

1

땅을 받은 분여지의 첫해농사
중천의 둥근달도
난가리에 걸터앉아 웃는 밤
쉴어보며 어루쓸며 몇고래 돌고

그래도 잠들지 못하노라
장지문 열어젖히고 바라보며 또 장밤
퇴마루에 나앉아 담배연기 물씬물씬
잠들지 못하는, 잠들수 없는 재령땅의 농민
땅과 같이 말이 없는 농민이며
땅속같이 속이 깊은 농민이며
흐뭇한 마음, 그 한가운데 든 생각은
풍성한 살림에 대한 꿈인가
그리도 소원이던
소 사매고 기와집 짓고...
아서라
땅이 없어 날품팔이에 나섰던 사람
부자집너편네에게까지 멸시를 받고
가슴도 탕탕 두드려본 사람
한때기 강변돌밭을 일구었다는 죄아닌 죄로

육신이 걸레처럼 되어본 사람
 —내 기어이 땅을 장만해
 이런 신세 면하리라—
 입술을 강물고 살아왔건만
 모 한줌 꽃아볼 땅도
 제것으로 가져보지 못한 사람
 오 해방과 함께
 수령님 주신 제 땅의 훈향에
 천대와 멸시로 쌓이고 쌓인 울분
 가슴후련히 가서내며
 억척스레 매고 가꾼 그 보람이
 오늘의 이 잠못들음으로 변하였으니
 생각하면 은혜요 높은 덕이요
 은혜에는 은혜로 덕은 덕으로
 이것이 바로 농민된 도리
 날이 새고 또 밤은 깊어
 생각은 날가리우에 높이도 솟았으니
 —내 평양을 찾아가리라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리라
 새벽닭이 운다
 듬뿍 여물 먹은 재령벌의 둥글소
 애국미를 싣고
 온 마을의 부락을 가득히 싣고
 평양으로 간다
 수령님을 찾아서 간다
 수령님을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는
 농민들의 첫 평양길은 이렇게 열렸다

2

촌로친네라 흉을 본 그 신사들에 비하면야
 그대 아는게 없지
 여기저기 다녀보아 세상물계 알겠나
 없는 글에 책을 읽어 세상리치 환하겠나
 처녀 한시절 물래와 샅바느질로 누비고나니
 서당문전에도 못가본 너인
 —못난 세월에 서방이라도 잘 만났으면...
 부모들은 그리도 소원했다만
 세월도 가난한 사람에겐 늙음만을 주는지
 너무도 이르게 흰머리 쓸며
 풀머슴된 자식들의 신세를 한탄할 때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셨다
 해방!
 성수가 난 세월이어
 신바람 난 낮과 밤이어
 아들들은 군대나가 큰 사람 되고
 할머니는 야학에서 제 이름자 배우며
 수령님의 존함 빨리도 익혔다
 잘 산다는 말갈아서
 사람답게 산다는 말갈아서...

그렇다, 수령님존함 받들고 사니
 그대로 행복이 되었다
 주인을 닮아 머리를 못들던 오막살이추녀는
 새집으로 솟아 하늘높이 들리고
 장밤 들어도 싫지 않은 재봉기소리가
 새 생활을 누버나갈 때
 머리를 끄떡이며 맘속에 알게 된것
 —그래 수령님만을 따르면야...
 정책이란 말은 귀에 설어도
 그이의 말씀만은 귀에 속속 들어오니
 —그래그래 하늘의 별인들 못따오리
 수령님따라 아들들은 잘 싸워서
 피어린 전장에서 승리도 하였다
 지금은 허리띠를 더 동여매도
 수령님만 따라간다면야...
 되지 못한 놈들이 채머리를 흔들며
 농민들의 생활이 이렇소 저렇소 할 때
 울고싶도록 울고싶도록 가슴속에 맺힌것
 그 나쁜 놈들때문에
 수령님모습 축간것이 너무도 아파
 그이 지나가실 길 쓸고 또 쓸며
 마음속 비단필을 늘이였으니
 그날의 그 비단필의 길들이
 오늘도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얼마나 많이도 뻗어갔는가—평양으로
 하나의 기둥에 이어진 단심줄처럼

3

은혜의 력사가 굽이쳐흐른 이 땅에서
 충신들의 력사가 력력한 이 나라땅에서
 오늘은 순박하고 꾸밈새없는 그 자손들이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산다
 장군님만을 받들어 산다
 쌀은 곧 사회주의라 하신 수령님의 유훈 받들어
 단발머리처럼 명랑한 꿈 이랑우에 얹고
 사회주의를 지켜 애티를 가신 그 젊은 세대들이
 오늘은 반장, 분조장이 되어 농장을 떠맸다
 그 가슴밑에는
 수령님을 더 잘 모시지 못한 아픔도 있어
 장군님의 노래로 날과 달을 당기며
 억척스레 일을 한다
 그 순박한 마음들은
 고난의 찬바람이 불 때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결연히 마음의 신들메 조여매고 그 길에 나서
 우리는 들판에 땀의 자욱 찍었다
 때로는 한덩이 찬밥도 달게 나누며
 마지막 김고랑을 툴아올랐고
 눈보라를 맞받아 거름짐을 지고 일어섰다

그리움에 씨를 묻고 기다림에 벌을 자래우며
 장군님 가시는 전선길에 이 마음 따라세웠노니
 발이랑을 베고 죽을지언정
 이늑한 곳을 찾지 않은
 우리의 높은 정신이여
 너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드높이 자랐거나
 그것은 한줌의 흙에 얼굴을 부비던
 투사들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어려울 때마다 잡소리하는것들을 찍어던지며
 이 땅에 흐른 애국의 력사가 자래운 정신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뿔뿔 피 우리가 이었거늘
 어찌 뜨겁게 불타지 않으랴
 또 투박해도 정찬 손들이
 붉은 넥타이 매여주며 배워준 정신에
 어찌 한점의 얼룩이라도 지랴
 우리는 포전에서 오곡을 키우며
 시련의 천만리도 뚫고나갈 정신을 자래웠다
 이제 다시 폭풍의 바다 만리가 놓인다 하라
 우리는 웃으며 나아갈 정신의 기둥을 세웠노라
 이 정신의 기둥이신 김정일장군님
 이 정신의 기치이신 김정일장군님
 이 정신의 해빛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쌀로써 웅위하는 농업전사 우리 대오

이 땅이 선군시대 포전답게 풍요해질 때
 뗏뗏이 찾아가려니
 장군님 계시는 그리운 평양으로
 찾아가 아뢰려니
 오늘도 만수대언덕에서
 우리를 기다려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언제나 장군님만을 받들고 따라온 우리의 신념을
 그리고 소원하리라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대를 이어 이 땅을 풍요하세 가꾸기를
 행복을 투정질하는 세대가 아니되기를
 그것을 위해 그네들과 가슴헤쳐 이야기하리
 고난의 세월이 또다시 온다 해도
 변치 말아야 할것이 있으니
 그것은 어려워도 힘겨워도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면
 그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이 우리의 신념임을
 또 이야기하리
 해방과 함께 찾은 농민의 력사가
 수령님과 함께 시작된 농민의 력사가
 위대한 장군님과 더불어
 길이 길이 력력하다는것을

추억에 남는 시

농촌위원회의 밤

김우철

두메산골
 풀밭에서 자라
 바위처럼 살아왔더란다

등잔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산비탈 돌짝 발머리
 오솔길이 눈앞에 선하다

한평생 화전을 캐먹고 살아온
 구새먹은 어매 아배는
 가난에 허리굽고
 시름에 쪼들려
 산과 같이 늙었고

산에서 산으로 자리뜬하며
 두더지마냥
 복데기를 파뒤지기 서른해
 너편네와 조마구니자식을 거느려

구름보다 높은 마을에 쫓겨왔고
 하늘도 좁은 골짜기에 초막을 쳤더니라

눈꽃이 흩날리는
 북쪽의 3월달
 얼음밑에 숨쉬는 실개천이
 해방의 봄노래를 돌돌... 굴려
 산기슭을 굽이 돌아 씻어내릴무렵
 땅은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토지개혁의 우람찬 환성은
 등을 넘고 비탈길을 감돌아
 두메산골에까지 산울림해왔다

—나라를 찾은것만 해두 고마운데
 땅까지 차지하게 되다니...
 —이게 모두 꿈인가. 생시인가
 눈은 뜨이고 귀는 열리어
 꿈처럼 느린 산 사람들은
 금시 줄달음쳐

그악한 산비탈을 타고 넘어왔고
약수터가 자리잡은 마을의 글방에
불을 밝혀 밤으로 모이였다

농사꾼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살아나갈 앞일을 의논해본적이
어느 한당대 꿈엔들 있었던가
어느 세월 하향 상놈이 어울려
하고싶은 말 되어본적 있던가

—땅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칠판에 굶다랴게 쓴 토필글씨를
한자한자 더듬어읽는 돌쇠는
야학에서 이태나 익혀 유식하다는
머슴살이에 잔뼈가 굵은 로총각이었다

—올봄부턴 제땅 갈아 장가밧친 장만하겠수...
돌쇠의 입김은 능청맞고
—출출하고 일 잘하는

마을처녀를 증매서주리!
박첨지의 대꾸는 너털웃음에 흥겨워
이처럼 오가는 잡담속에서도
기쁨이 샘물처럼 솟는다
눈오는 봄도 3월달
약수터를 에워싼 농촌위원회의 밤은
산 사람들의 새로운 꿈을 결고
밤을 밝혀 심지를 돋우며
호박꽃처럼 빨갱게 익었다

이제 첫닭이 해를 치면
산발을 타고 초막에 돌아가
어메 아베앞에 무릎을 꿇고
이 꿈같은 소식을 전하리라
...등살을 쳐먹던 지주들을 내몰고
우리들 농사꾼이 땅의 주인이라고—
이 기쁜 소식, 어엿이 사되리라!

—1946—

땅을 분여받은 날 밤에

김정곤

한끝을 기울이면 쏟아져내릴듯
하늘엔 별무리 별무리...
춘삼월이라 들엔
어디선가 입떨어진 개구리소리...

땅!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내 땅
3천평!

어머니는 이밤에
다시 만져보고 쓸어보고
흙을 쥐여 다시 말아보고 품어보고...

땅!
땅이 무엇이라고
한뼘기 제 땅이 없어
이 산비탈 돌밑에 아버지를 묻고
그밑에 남편과 세 목숨을 더 묻고
모진 운명이 여기에 또 비끄러매웠던가!

아 이 땅을 다 췌어지고 일어설수 없어

기슴에 불안고 차마 집으로 갈수 없어
두고서는 차마 한발자욱도 옮길수 없어
어머니는 아예 땅을 안고 누우시네

그러자 그 언제인가
첫애기를 채우던 그밤처럼
마음은 속삭이고 노래부르고싶어...
어머니는 가슴을 헤쳐
대지에 젖을 물리고싶고...

아, 땅이 어머니를 안았는가
어머니가 땅을 품었는가
땅도 어머니도 위대한 품에 안겨
말도 없이 깊어가는 밤

어머니는 잠이 드셨네
서른살에 처음 발편잠을 자고있네
고요한 밤
별많은 밤...

—1977—



백은웃음

김명진

아침이면 한정순은 언제나 바쁘다. 올망졸망한 어린애 셋을 데리고 나서기가 조련찮은 일이다.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에 나가는 그 애들 차비를 하는데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른다.

책가방을 꾸리는 애순이를 거들어주기도 해야 하지만 그아래 두 아이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손을 대주어야 한다.

밖에 나와서도 애들은 어머니한테서 떨어질줄 모른다. 큰애는 앞세우고 둘째는 손목을 꼭 잡아 쥐고 셋째는 품에 안아주어야 한다.

길을 가면서도 그 애들의 단련을 받기가 일쑤다. 사내처럼 벌차고 고집이 센 계순이가 찍하면 무슨 일을 만들어내곤 한다.

오늘 아침에도 그 애는 집을 나서자마자 바쁜 시간을 지체시켰다.

《엄마, 저 꽃을 꺾어줘요.》

높다란 돌담벽우에 빨간 앵초가 바람에 한들거리고 있었다. 정순은 그 애의 손목을 잡아 이끌었다.

《엄마는 시간이 바쁘단다.》

《꽃을 웃에 달아줘.》

그 애는 발을 번디디고 서서 졸라댔다. 정순이는 그애에게 또 사정을 했다.

《거기는 높아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도 계순이는 기어이 꽃을 꺾어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한번 말을 내면 벽을 문이라고 내미는 성미였다.

그 애가 너무 떼를 써서 애가 탄 정순은 《너 정말 이러겠니? 큰엄마한테 대줄테다.》하고 말했다.

그러자 계순은 기가 죽어 더 졸라대지를 못했다. 이런 경우에 정순은 의례 아버지를 찾아야 하겠으나 저도모르게 《큰엄마》소리를 하게 되었다

남편 강현무는 1년내내 집을 떠나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이었던것이다. 연풍지질탐사대에서 중대장을 하고있는 그는 지금 랑림산줄기에서 새 광맥을 찾는 일에 열중하고있었다.

그래도 전에는 달이 바뀌일 때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고 일손도 도와주곤 했었는데 올해에 들

어와서는 몇달이 넘도록 아직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다나니 정순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머니노릇에 아버지의 역할마저 하여야 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바로 키우자면 신발을 옮겨 신겨주는 아버지의 엄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순은 어머니로서 그 애들을 애뜻이 대해줄수는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애들에게 큰소리를 칠줄 모르는 천성적인 성미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애들이 투정을 부리면서 어머니속을 태우는것이였다. 별이 센 계순이가 더욱 그랬다.

이런 때에 아버지가 곁에 있어도 애들의 버릇을 때줄수 있겠는데...

헌데 그 아버지를 대신해주는 《큰엄마》가 있었다. 그는 공장당비서 김순임이였다. 김순임비서는 이들이 멀다하게 공장 탁아유치원에 나와 애들을 돌보곤 하였는데 정순이네 아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돌려주는것 같았다.

그러던 김순임이 언제인가는 집을 찾아와주거까지 했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여서 정순은 아침부터 묵은 옷가지들을 빨래하고있었다. 빨래를 절반도 하지 못했는데 계순이가 또 말썽을 일으켰다.

공원으로 산보를 나가자고 졸라대는것이였다.

《엄마는 빨래를 하지 않니. 너 혼자 가보렴.》하고 아무리 달래어도 그 애는 어머니를 꼭 앞세우고 가겠다고 투정을 부렸다.

때마침 집에 들어선 김순임은 속상해하는 정순의 말을 듣고 계순이를 앞에 세워놓았다.

《넌 왜 어머니속을 태우곤 하니?》

그 애를 엄하게 질책하다가 나중에는 종아리를 되게 쳤다. 계순이가 아프다고 울어댔으나 사정을 보지 않고 또 한번 매를 안겼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계순이는 떼질을 하다가도

《큰엄마》소리가 나오면 속이 질려 그만두는 것이었다.

김순임비서가 애들과 가정에 관심을 돌려주면 줄수록 정순은 그를 어렵게 대했다. 김순임이 애들에게는 《큰엄마》로 될 수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어디까지나 당일군이었던 것이다.

당비서의 말을 무겁게 새겨들었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일하려고 마음을 쓰곤 했다.

얼마전에 당회의에서 김순임비서가 모든 종업원들이 더욱 분발하여 올해를 뜻깊게 빛내이자고 호소하였을 때에도 정순은 그 말을 가슴깊이 받아들였다. 우리당 대렬에 갓 들어선 신입당원인 나는 무슨 일을 특색있게 할 수 있을가.

(말겨진 임무를 보다 잘하는 수밖에...)하고 그는 생각했다.

정순은 옷공장에서 손꼽히는 재단사였다. 그의 손을 거치고난 옷은 언제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정확성, 섬세성, 우아함... 이 모든 것이 그의 여무진 일손에서 드러나곤 했다.

더 좋은 옷을 더 많이 지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자면 재단작업을 갱신하여야 한다. 그는 언제부터 머리속에 새로운 재단작업을 무르익혀오고 있었다. 재단작업을 흐름식공정으로... 이렇게 하면 재단능률을 올리고 과학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을 뜻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에게 뜻하지 않은 정황이 생겼던 것이다...

가슴에 시름을 안고 거리에 나선 정순은 얼굴이 밝지 못했다.

그랬어도 그는 방금 피어난 한 떨기 수선화처럼 청신한 기운을 풍겼다. 긴 속눈썹아래 호수처럼 그윽한 빛을 띠고있는 크고 서늘한 눈, 끝이 조금 쳐들린 코와 홍조가 피어오르는 두볼, 물기 어린 입술... 살갗이 맑은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은근하고 따뜻한 빛이 어리었다. 수박색양복을 꼭 맞게 입은 몸에서는 신선한 건강미가 넘쳐흐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한瞥씩은 돌아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린애 셋을 데리고 걷는 모습은 봄빛이 흐르는 거리에 생기를 한껏 더해주는 듯싶다. 품에 안겨 웃는 어린것의 얼굴에서도, 손에 매달려 설새없이 조잘대는 유치원생의 말소리에서도, 책가방을 달랑거리며 걷는 어린 학생의 발걸음에서도, 그리고 그애들을 거느린 여인의 탄력있는 몸에서는 거리를 한결 밝고 아름답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여인과 아이들에게 친근한 미소를 보낸다.

《아이, 정순이구나!》

길 건너편에서 나직한 부름소리가 일더니 한 여인이 바삐 달려왔다. 정순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옥희!》

두 여인은 손을 부둥켜잡았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중학동창생이 문득 나타난 것이 반가웠다. 정순은 함박꽃무늬를 수놓은 달린옷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옥희의 얼굴이며 몸매를 새삼스레 더듬어 보았다.

《그새 더 젊어진 것 같구나. 어디를 갔었니?》

《응, 평양에 장기출장을 나가있었어...》

도인민위원회 문화국에서 일하는 옥희는 날개처럼 돌듯 수도며 지방도시들을 돌아다녔다. 정순이 아이들한테 매여 집에서 옷공장까지 바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녀자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제가고싶은데는 다 다니었다. 일찌기 낳은 아들하나를 할머니한테 맡겨놓았으니 거칠것이 무엇이랴. 나이는 정순이와 동갑이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선 그는 한창나이의 처녀처럼 젊고 아릿다와보였다.

《아유, 요 귀염둥이, 그새 더 컸구나.》

옥희는 정순이한테서 철이를 받아안고 그 애의 볼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어주었다.

《애 아버지한테 자주 오니?》

정순은 대답이 궁해졌다. 가슴에 깃든 서글픔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아 말을 좀 더듬거렸다.

《저, 요새 일이 바빠서...》

《그랬구나...》 옥희는 얼마간 축이 간 그의 얼굴을 잠시 더듬어보고 나서 속삭이듯 물었다.

《그런데... 너 몸이 달라진 게 아니냐?》

그 말에 정순은 두볼이 발갛해져 눈길을 떨구었다. 아직은 물어두어야 할 것이 동무에게 서둘러 드러난 듯싶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내자신도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얼마전야야 알았는데... 눈이 밝은 이 애가 옹히 알아보누나. 하긴 소년시절부터 쌍둥이처럼 늘 붙어다니던 사이이니 동무의 얼굴표정만을 보고도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옥희였다.

그는 철이를 한번 추어올리고 나서 가볍게 웃었다.

《넌 <서방님>소리만 해도 애가 생기누나. 그이는 알고있니?》

《아니...》

정순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에게 알릴 사이도, 의논할새도 없었다. 아직은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근심을 안고있었다. 산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것을 다시 확인했을 따름이었다.

옥희의 얼굴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아이 셋한테 빠져 헤여날길 없는데... 어떻게 또?...》

《...》

정순은 얼굴을 더욱 붉혔다. 웅색한 처지에 빠져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는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은 이 물음앞에,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때마침 애들이 그를 바쁜 처지에서 구원해주었다.

《엄마한테 갈래.》

철이가 옥희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려였다.

그 애를 옥희한테서 넘겨받는데 이번에는 애순이가 재촉하였다.

《엄마, 빨리 가자. 학교에 늦어.》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더라도 한듯 정순은 동무에게 어של픈 웃음을 지어보였다.

《저, 미안해. 시간이...》

《어서 가봐.》

옥희가 그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다. 정순은 철이를 한번 추어올리고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갔다. 서로 인사말을 나누며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바쁜 걸음걸이, 날새들처럼 달려가는 처녀들의 맑은 웃음소리...

그 물결에 끼여 아이들 셋을 이끌고가는 정순의 얼굴에는 옅은 그늘이 비졌다.

(내가 이제 동정을 받는구나...)

사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때에 어린애 셋을 키우는것도 험치 않은데 또다시 어린애를 낳아 기른다는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것이 조련찮은 일이다.

방금 옥희도 동무의 일이 걱정되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정순은 그것이 싫었다. 애들을 키우는것이 고달파도 사람들한테서 그 어떤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옥희처럼 어린애를 일찍 떼어놓은 녀인들을 볼 때면 얼마나 홀가분할까하고 일순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후회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어린애 셋이 무슨 대수랴, 우리 어머니는 다섯 남매를 낳아걸었는데... 아니, 우리 동리에만도 일곱, 아홉자식을 낳은 어머니들이 여럿이 있다. 그리고 부모잃은 아이들을 열명, 스무명 데려다 키우는 가정도 있지 않는가.

어려움속에서도 애들을 키우는것을 그 어떤 궁지로 여겼다. 올망졸망한 그 애들의 뒤통자를 해주는것이 고생스럽기는 해도 거기에서 보람을 느꼈다. 이 애들이야말로 가정의 큰 재부이고 희망이다. 지금은 생활이 좀 곤란하다 해도 이 애들의 앞길은 넓게 열릴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있기에 그는 혼자손으로 세 아이를 껏끗이 키워왔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남모르는 고충도 웃음으로 이겨가고있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어린애가 생겨난것이 기뻐보다도 근심을 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도 하나가 아닌 쌍둥이가 생겨난것이...

웃공장장은 장자강의 흐름이 완만해진 호젓한 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실실이 드리운 수양버들속에 묻힌 크지 않은 공장이었다.

애순이를 학교에 들여보내고 계순이, 철이를 유치원과 탁아소에 맡기고나니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정순은 정해진 시간안에 공장에 빠듯이 들어섰다.

여느사람들보다 별로 늦어진듯싶어 그 어떤 죄스러움을 느꼈다. 껏끗이 쓸어놓은 마당에 발을 들여놓으려니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가 더욱 낮을 붉힌것은 문가에서 공장당비서 김순임을 만났때문이었다. 머쓱하여 인사를 하기 전에 그가 먼저 《수고해요.》하고 말을 건넸을 때는 몸둘바를 몰라했다.

동식한 얼굴에 실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중년의 비서는 언제나 어머니처럼 다정한 인상을 주었다. 정순에게 흐린 빛을 보인적이 한번도 없었다.

오늘처럼 어쩌다 늦어지는 경우조차 편잔이 아

니라 수고한다고 말해주는것이였다.

《정순동무. 내 방에 좀 와요.》

김순임은 문에서 어기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으나 정순은 가슴이 헤워졌다.

(무슨 일로 찾는것일까?)

이제까지 비서가 그를 찾은적은 별로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불러다 파업을 주면서도 그에게 분공을 준적이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신입당원이기 때문이 아닌지...

그런데 자신은 당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준 분공마저 수행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오늘따라 비서가 문득 찾은것은 올해에는 무슨 일을 특색있게 하려는가고 물으려는게 아닐까...

정순은 당위원회를 조용히 찾아갔다. 가벼운 손기척을 하고 방에 들어선 그는 문가에 머리를 수그리고 서있었다.

《정순동무, 왜 그러구 있어요? 여기와 앉아요.》

김순임이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해서야 그는 의자에 가서 조심히 앉았다.

《몹시 힘들지?》

따뜻한 물음, 정순은 대답대신 수줍게 고개를 수그렸다.

《철이 아버지는 집에 오군 해요?》

《네...》

《그런데... 요새 무슨 근심이 있는가보지요?》

김순임의 눈길에 가슴을 꿰뚫어보는듯 했다.

《정순동무가 웃음을 잃으니 어딘가 공장에 그늘이 지는것같아요. ...》

정순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귀밀이 화끈 달아올랐다. 김순임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한것이 그의 아픈데를 건드려주었던것이다.

사실 정순은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비타민》으로 불리워왔었다. 그의 얼굴에 늘 피어있는 맑은 웃음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안겨주는듯 했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환경에서도 티없이 웃는 웃음이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이 하고 공장을 밝게 해주는지도 몰랐다.

이런 웃음을 이즈음에는 잃어버렸으니 사람들의 눈에 왜 띄우지 않으랴.

정순이 몹시 근색해하는것을 띠여온 김순임은 더 캐여묻지 않고 기본용건을 이야기했다.

《정순동무를 만나자고 한것은... 좀 의논하고싶은게 있어서요.》

《?》

《사실 그동안 정순동무에게 일거리를 따로 주지 않은것은... 동무에게 부담을 적게 주자는 생각에서였어요. 어린애 셋을 키우는 일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 내게 분공을 주지 않은것은... 그때문이었던가?)

정순은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수그렸다. 김순임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토론된 문제를 알려주자고 해요. 지금 재단실에 책임자가 없지 않아요?》

정순동무가 그 중요한 사업을 말해주면 좋겠어요.》

《네?》

정순은 놀란 얼굴을 쳐들었다. 잘못 듣지 않았는가 했다. 재단실의 책임자라니?... 너무도 뜻밖이었다. 평범한 재단사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차례지는가.

《지금 공장에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필수품을 안겨줄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한창 들끓고있어요. 기능이 있고 책임성이 높은 정순동무가 그 일을 말해주면 생산이 잘될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임무를 맡기려고 하는거예요...》

김순임의 말에 정순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는 놀라고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는것으로 본분을 다해오고있었다. 자기가 남을 지도하거나 한개 단위를 책임지리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어린애 셋이 달린 자기에게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왔었다. 그런데 다 이제는 홀몸이 아니지 않는가. 어린애가 또다시 생겼는데... 10월에는 그애들이 태어나겠는데... 어떻게 그런 중임을 맡아안울수 있을까.

정순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실린것을 보고 김순임은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뭘 그렇게 어려워할게 있어요?》

《...》

《정순동무가 하자꾸나 하면 못할게 있어요?》

《비서동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정순은 자기 심정을 솔직히 고백했다. 너무도 크고 뜻밖의 문제여서 선 자리에서 대답을 할수 없었다. 어떻게 결심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김순임은 또다시 웃음을 머금었다.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는 즉석에서 하겠다는 대답보다 그 임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이는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군이였다.

《래일 아침에는 대답을 주겠어요?》

《예...》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벌려였다. 당의 신임과 기대를 앞질러버리는듯싶어 가슴이 저려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말을 하랴. 책임적인 대답을 할수 없지 않은가.

정순은 무거운 시름을 안고 당비서의 방에서 나왔다.

×

어느덧 해가 서산마루에 올라앉았다. 불타는 저녁노을이 새잎들이 파랗게 피어나는 장자강기슭을 불그레하게 물들여놓았다.

퇴근길에 나선 정순은 저절로 발길이 그리로 향했다. 그는 탁아유치원에 들려 아이들을 찾기전에 저혼자 호젓이 있고싶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게 되는 이 기슭에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있다.

정순은 물결이 철썩이는 돌계단에 앉아 소연히 흐르는 강을 점토록 지켜보았다.

저 멀리 개고령골짜기에서부터 굽이굽이 달려 내려온 물줄기가 복천의 물결과 일싸 부둥켜안는 합수목, 흰천을 담그면 금시 물이 들듯싶은 파아란 물결, 설레는 그 물결우에 가볍게 날아에는 아름다운 물새...

장자강의 즐기찬 흐름을 떠나서는 살수없는듯 하늘높이 솟아올랐다가는 물결우에 내려쫓히기도 하고 스칠듯 날아에는 그 물새를 바라보느라니 10년전 군사복무를 마치고 이 강변에서 다시 만났던 강현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 했다.

《나는 장자강을 사랑하듯이 저 물새를 사랑하오. 세찬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미를 닮은듯싶어 더 정이 가는지 모르겠소. 이 강을 떠나 살수 없는 저 물새처럼... 동무가 나의 길동무로 되어줄 수 없겠소?》

그 뜨거운 고백에 녹아들어 그는 부끄럼도 잊고 땅크병의 억센 가슴에 안기고말았던것이다.

사랑의 결정에 오른 강현무는 정순을 《나의 물새》라고 불렀다. 장자강의 거센 물결에 깃을 가다듬고 종횡무진으로 내닫는 그 물새처럼 억세게 살것을 바랐었다.

그때부터 두 젊은이는 장자강의 푸른 물에 운명을 싣고 생활을 힘있게 노저어갔다. 눈비가 쏟아지고 찬바람이 휘몰아쳐도 언제한번 노질을 멈춘적이 없었다.

그 사나운 폭풍우속에서 어린애가 셋이나 태어난것은 금지로운 일이었다.

첫아이를 낳던 때는 민족의 태양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안고 《고난의 행군》을 한창 하고있던 시기였다.

서방통신들이 사회주의조선도 이제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것이라고 떠들던 그 시각에도 우리 인민은 그덕없이 자기 생활을 지켜가고있었다.

공장들에서는 동음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높았으며... 녀성들은 어린애를 낳고있었다.

정순은 첫아이를 낳고 어머니로서의 기쁨을 한껏 맛보았다. 그때도 남편은 먼 탐사지에 가있어서 옆집녀인이 그를 산원으로 데려갔었는데 한시간도 못되어 순산을 하였다.

정순은 남편이 그림고 보고싶어 그에게 전보를치고싶었으나 부끄러움으로 하여 누구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퇴원하는 날에는 뜻밖의 일이 기다렸다. 산원앞 마당으로 먼지오른 낮익은 승용차가 들어서는것이였다. 차에서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내리는게 아닌가. 김순임비서가 차를 보내주었던것이다. 온 산원이 떠들썩했다.

첫어린애 어머니가 된 정순은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이마가 넓고 두눈이 까맣고 코날이 선 그 애를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어머니를 닮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쁨중에서도 정순의 가슴에는 한

가닥 아쉬움이 깃들었다. 남편이 것처럼 고대하는 《땅크병》이 태어났더라면...

허나 그 아쉬움을 남편이 먼저 지워주었다.

《이 애는 해군으로 보내야겠군.》

정순이 처녀때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했었는데 그는 항상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있었던것이다. 떠나온 자리가 텅 빈듯싶어하는 그 심정을 남편이 알아주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땅크병을 낳아야 하오.》

남편이 다짐했다. 허나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두번째에도 역시 처녀애가 태어났던것이다.

이번에도 남편은 섭섭함을 애써 감추고 정순에게 웃음을 보였다.

《이 애는 육군이에요.》

《육군이라니요?》

《허, 간호원으로 말ियो. ...》

남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간호원들이 세운 위훈을 이야기하면서 두번째 애의 앞날을 정해주었다.

안팎의 정세는 나날이 어려워졌다. 사회주의조선을 질식시키려는 원수들의 봉쇄와 압력이 강화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 우리 인민은 모진 시련을 겪고있었다. 식량난, 연료난이 심각해졌다.

두 어린이를 먹여키우는것이 여간 어렵고 고되지 않았다. 정순은 젖이 나오지 않아 어린것의 입에 멀겁게 쏜 강낭가루죽을 떠넣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따금 거리에서 옥회를 만나면 그는 얼굴이 못쓰게 된 정순을 보고 말하였다.

《이젠 두 아이면 되였구나.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같지 않니. 오히려 딸을 더 중히 여기더구나.》

그렇어도 정순은 아들을 낳았으면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한 가정의 대를 잇고 땅크병을 내세우고싶어하는 남편의 소원을 꼭 풀어주고싶었다.

드디어 세번째로 임신이 되었을 때 그의 가슴은 어지간히 떨리었다.

(이번에도 또 딸이면 어찌나?...)

허나 그것은 공연한 근심이었다.

얼마후에 정순은 아들을 낳았던것이다.

그날 산원은 물론 공장사람들과 동리사람들이 정순의 생남을 무척 기뻐하며 축복해주었던것이다.

아들을 낳은 정순은 날듯한 기분이었다. 얼마나 고대해온 오늘날가. 이제까지 쌓였던 시름이 말끔히 날아나버리는듯 했다.

한 가정의 대를 잇고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어머니로서 할수 있는 일을 했다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었다.

《당신이 큰 일을 했소. 조국의 땅과 바다, 초소에 아이들을 모두 내세울수 있게 되었으니 말ियो. ...》

남편은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군인가정》이라고 하면서 병중에 따르는 아이들의 대호를 정해주

었다. 애순이는 《갈매기》로, 계순이는 《간호원》으로, 철이는 《땅크》로 지어주고 이 3군의 《부대장》은 자신이고 《정치위원》은 어머니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정치위원>을 꽤 할수 있을가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오.》

남편의 얼굴에 환히 피어난 웃음을 보는것이 정순에게는 더없이 큰 표창으로 되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애순이는 벌써 소학교학생이 되고 계순이는 유치원 높은반에 올라갔다. 철이는 탁아소에서 《힘이 센 아이》로, 앞으로 용감한 땅크병이 될것이라고 떠받들리었다.

이제는 바랄것이 그 무엇이랴. 집안에 넘치는 아이들의 웃음이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재부였다.

그렇게 안정된 생활의 리듬이 갑자기 파탄되었다. 네번째 어린애가 생겨날줄은, 그것도 쌍둥이라니...

정순은 처음에는 당황해지고 다음에는 심각해졌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오늘까지 어린애 셋을 키워오면서 나라의 은덕을 받아왔었다. 알고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받은 것이 더 많은 사랑...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힘껏 일하려고 했는데, 뜻깊은 율해를 몇몇이 맞으려 했는데... 모든것이 틀어지지 않았는가.

공교롭기 그지없었다. 자신만이 특색있는 기여를 할수 없게 된듯싶어 안타깝기만 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누구에게 가슴을 터놓고 의논할수도 없고 저 혼자 근심을 안고 모태기였다.

(내가 웃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김순임비서가 내 얼굴을 정확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내 생활을 그대로 엿보았을 것이다. 시름을 안고있는 가슴에서는 웃음이 피여날리 없는것이다.

그런가위에 오늘은 새로운 과업이 나서게 될줄이야... 얄친데덜치기였다. 당조직에서는 나를 믿고 신임을 베풀어주는데, 분에 넘친 고정분공을 맡겨주는데 어린애를 가진 몸으로 그 일을 하기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몸이 무거워 못하겠다고 거절하기도 어렵고... 어쩌면 좋은가.

(철이 아버지. 이런 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순은 쉬임없이 흐르고있는 강물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속삭였다.

이 강을 거슬러 오르고오르면 남편이 일하는 탄사지에 이르게 된다. 남편은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어머니 강줄기가 하나로 이어주고있어서 정순은 늘 마음이 든든해지곤 하였다. 그이가 그림고 보고싶을 때면 이 강기슭에 나와 강물을 들여다보는 때가 많았다. 강물위에 떠내리는 나무잎을 보고도 혹 남편이 띄워보내게 아닐가 하고 애뜻이 건져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저녁에는 강물을 들여다보는것만으로

는 성차지 않았다.

그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받고싶었다. 그녀는 나에게 문제해결의 열쇠를 안겨줄수 있더라.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러져가는 노을빛을 밟으며 곧바로 우편국으로 찾아갔다. 이제는 퇴근시간이어서 조용하리라고 생각했던 우편국에는 예상외로 손님이 많았다. 우표를 사는 사람, 소포를 찾으러 온 사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다.

정순은 순번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취급하는 처녀에게 연풍지질탐사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신청한지 5분도 못되어 접수원처녀가 말했다.

《연풍이 나왔습시다.》

정순은 그 처녀가 내주는 송수화기를 받았다. 송수화기를 귀에 가져다대니 전류가 흐르는 웅하는 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연풍탐사대예요? 여기는 강제입니다. 저 철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자 수화기에서는 석ષ한 목소리가 반문했다.

《누구라구요?...》

《거기 강현무라고 있겠는데...》

《아, 강현무중대장을 찾으시우? 좀 기다리시오.》

상대방은 잠시 자리를 뜨는것 같았다. 송수화기를 손에 꼭 지고있는 정순의 가슴은 야릇한 흥분으로 뛰었다.

《그이가 혹 자리를 비웠으면...》

웅— 하고 전류흐르는 소리... 이어 누구인가 송수화기를 집어들고 후후 불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강현무입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그랬어도 남편은 이쪽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듯 싶었다.

(아이. 듣하기란...)

정순이 하는수 없이 《<정치위원>이예요.》 해서야 남편은 《아, 당신이요?》 하고 반기는것이였다.

몇달만에 남편의 정겨운 목소리를 들으니 그리움이 가슴에 몽클 차올랐다. 뜻밖의 전화를 받고 놀라움으로 웃음이 빙글썩하게 피어난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듯싶어 송수화기를 두손에 더욱 꼭 그러쥐었다.

《그새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전화를 할 생각을 했소?》

남편은 아직까지 전화로 자기를 찾은 일이 없는 안해가 문득 찾으니 저으기 놀랍고 반가운듯싶었다.

《당신이 보고싶어서요...》 하고 말하려던 정순은 옆에 사람들이 있는것을 느끼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저... 좀 의논하고싶은게 있어서요...》

《의논을? ... 그래 우리 <3군병사>들은 어떻게

지내고있소?》

남편은 먼저 아이들 소식부터 물었다. 정순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덤벼치기 시작했다.

《모두 잘 있어요. <갈매기>는 썸이 들고 더 착실해졌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5점을 받았어요. <간호원>은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따금 투정을 부리군해요. <땅크>는 여전해요. 몸이 더 튼튼해지고 힘이 세졌어요. 군사놀이를 즐겨 하고있어요 그런데...》

정순은 말을 이으려고 하다가 송수화기를 든채 옆을 돌아보았다. 옆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있었다. 전보문을 쓰는 사람, 소포를 찾고있는 사람... 빨리 자리를 떴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 의논하자는것은 무엇이요?》

이쪽에서 침묵을 지키자 남편이 다그쳐물었다.

《당신에게 말하자고 하는것은... 좀 제기되는게 있어서요...》

정순은 말머리를 떼고 또 옆을 돌아보았다. 곁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성거리고있었다. 안내글을 읽는 사람, 전화순번을 기다리는 사람... 소포를 찾은 사람이 나가자 이번에는 또 새 사람이 들어왔다. 그들은 전화를 하고있는 정순의 말을 들으려고 지못게 자리를 지키고있는듯싶었다.

《무엇이 제기되오? 어서 말하오...》

남편한테서 또 독촉을 받아 정순은 당황해나기 시작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송수화기를 바꾸어쥐었다.

《당신에게 말하자는것은...》

이번에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용기를 내어 그것을 말하려고 했으나 목구멍이 갑자기 막혀버리기라도 한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린애가 생겼는데... 어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웃을게 아닌가. 그들의 놀림에 들게 아닌가.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남편과 미리 이제 태어날 어린애의 대호를 정해놓았더라면 쉽게 말할수 있겠는데...

《여보, 무슨 일이 생겼소? 왜 말을 못하오?》

마침내 남편의 어성이 높아졌다.

정순은 오한을 만난듯 송수화기를 든 손을 덜덜 떨었다.

《그렇게 됐어요...》하고 변명처럼 외우고난 그는 온몸이 땀으로 폭 젖어든것을 느꼈다.

(그래, 내가 그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이 달라졌다. 멀리 떨어져있는 《부대장》에게 의존하려는것이 부질없는 일로 여겨졌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도 약해진듯싶었다. 이런 때야말로 《정치위원》이 스스로 결심해야 할것이 아닌가.

이쪽의 대답을 기다리고있던 남편이 마침내 힘주어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근심이 생긴것 같은데... 모든것을 당신에게 맡기오. 어려운 문제가 있다해도 웃으며 헤쳐가야 하오. 오늘까지 당신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소?

나는 지금 자리를 뜰수 없소. 새 광맥을 찾아

당에 보고를 드려야 하오. 모두가 분발하여 떨쳐 나섰소. 내가 광맥을 찾아놓아야 당신에게도 기쁨을 주고 아이들도 떳떳이 만날수 있지 않겠소?»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여기 일은 조금도… 모든 일이 제대로 될거예요…》

정순은 어쩐지 목이 메어올랐다. 남편이 모든것을 이해해주고 힘을 보태주는듯싶어 눈물이 나게 고맙게 느껴졌다,

《다른 할 말이 더 없소?》

《없어요. 그저 당신에게… 모두 잘 있다는것을 말하고싶었어요. 몸 건강히… 수고하세요. 꼭 그렇게 하겠어요.》

정순은 남편의 다정한 음성이 더 들려올듯싶어 송수화기를 한참이나 귀에 대고있었다.

우편국에서 나온 그의 가슴은 어쩐지 허우룩했다. 남편과 전화를 한 시간이 너무도 짧게 생각되었다. 남편에게 그 말은 하지 못했다해도 무엇인가 더 이야기할수도 있었는데… 그이는 내 목소리에서 무엇을 감촉했을까? 그이에게 웃음을 보내지는 못할망정 근심을 끼쳐드리게 아닌가…

자신이 부질없는 전화를 하여 남편의 사업에 지장을 준듯싶어 마음이 개운치 못했다.

이제는 남편의 의견을 바랄수 없게 되었다. 그누구의 도움을 기대할수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 토론하고 결심하여야 한다.

《모든것을 당신에게 맡기오.》 남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문득 거리의 한옆에서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이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정순은 그쪽을 돌아보았다. 붉은기를 앞세운 군인대렬이 길복판으로 씩씩하게 행진해오고있었다.

군모의 오각별이 유난히 빛나고 빨간령장이 얼비치여 불그레하게 달아오른 얼굴들…

발을 맞추어 힘차게 노래를 부르는 대오는 두부모처럼 각을 이루었다. 땅을 구르며 힘있게 내딛는 발걸음에서는 힘과 열정이 넘친다.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어느때에는 무심히 보아온 군인대오가 오늘 저녁에는 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10여년전 그 시절에 정순은 이런 대오에 끼여있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못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보무당당히 행진하군하던 그 궁지와 장쾌함… 그것은 백두산3대장군의 손길아래 백두의 수림에서 떠나온 그 먼 행군길을 자신도 이어가고있다는 행복감이였다.

대를 이어 계속되고있는 이 계승자들의 대오에 머지않아 애순이, 계순이, 철이가 들어설것이다. 이들처럼 씩씩하게 걸으며 노래도 힘차게 부를것이다. 그뒤로는…

앞을 지나는 군인들의 힘찬 노래소리가 그에게 무엇인가 호소하고 요구하는듯 싶다.

문득 오늘아침에 들은 보도가 떠올랐다. 지난밤에도 높고 험한 철령을 넘어 전선길을 걷고계시는 아버지장군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승리로 이끌고나가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녀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잘 받들어나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루동안 가슴을 태우며 찾고있던 그 대답을 노래소리가 튕겨준듯싶어 정순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이튿날 아침, 정순은 어느날보다 30분 먼저 집을 나섰다. 다시는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강심을 먹고 전에없이 일찌기 서두른것이다.

애순이는 앞세우고 계순이는 손목을 꼭 쥐고 철이는 품에 안고 걸었다.

하루밤사이에 앓고난 사람처럼 얼굴의 살이 내렸다. 하지만 모진 진통을 겪고난 마음은 오히려 거뻐했다.

《엄마!》

손에 꼭 매달려 걸고있던 계순이가 갑자기 쉿한 목소리로 그를 찾았다.

(이애가 또 무슨 일을 만들어내려고 할가?)

정순은 수심을 띤 눈길로 그애를 내려다보았다.

《어제 놀이시간에 큰엄마가 찾아왔뎡다…》

《큰엄마가? … 네가 또 못되게 놀아 종아리를 맞은게구나?》

《아니, 이젠 엄마말이랑 잘 듣겠다고 했더니 붉은별을 달아주었는데 뭐.》

《그래?》

정순은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 심정이였다.

《나 이젠 혼자 걸을래.》

《?》

《엄마한테서 떨어질래.》

계순은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 앞으로 종종걸음을 쳐나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몸에 안겨있던 철이가 손을 뻗치며 버둥거려였다.

《나도 내릴래.》

정순은 놀라운 마음으로 그애를 내려놓았다. 철이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저만치 앞서간 누이를 따라가겠다고 달음박질쳤다.

《나를 따라와.》

계순이가 뒤돌아보며 신명이 나 소리치자 철이는 짧은 다리를 재봉기바늘처럼 놀리며 따라갔다. 애순이가 좋아라고 웃어댔다. 계순이와 철이도 짙게 깔거리며 달려나갔다.

(원 애들도…)

정순은 그만 가슴이 몽클해지고 눈곱이 찌릿해졌다. 엄마품에서 떨어질줄 모르던 애들이 하루아침에 이렇듯 달라지다니, 나이를 한살 더 먹더니 셈이 든것인가, 《큰엄마》가 《매》를 안기며 남달리 원심을 써준때문인가.

《엄마, 어디 아프나?》

애순이가 웃음을 거두고 어머니를 뻔히 올려다보았다. 정순은 한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애들은 웃음을 터뜨려도 자기는 웃음이 나오지 않아 입을 다물고있었더니 그게 이상해서 그러는게 아닌가.

《아니…》

그는 머리를 저어보였다. 그래도 애순이는 의문을 풀지 못해했다.

《그런데 왜 아침밥이랑 조금밖에 안먹었나?》

《그건, 먹고싶지 않을 때가 더러 있단다.》

《정말?》

《정말 아니구.》

정순은 웃음을 지어보였으나 어린애의 눈은 속이지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제 더는 사람들에게 그늘빛을 보여서는 안될것이다. 그는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아아, 이젠 우리가 더 바빠 살아야 한다. 출근도 빨리 하고… 엄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단다…》

공장에 남보다 먼저 들어선 정순은 곧바로 재단실로 올라갔다. 아침해살이 한껏 비쳐든 방안은 밝고 아늑했다. 창턱에 놓인 제라늄이 밤새 망울을 터뜨려 정순에게 활짝 미소를 보내는듯싶었다.

정순은 작업대맡에서 자그마한 종이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놓았다. 언제부터 무르익혀온 새로운 재단방법을 도면으로 그려본것이였다. 무수한 선과 점, 부호들로 얽혀진 복잡한 그림… 거기에는 재단작업을 흐름식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화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정순은 도면을 만들어놓고도 어딘가 미흡하고 불만족스러워 선뜻 내놓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물어두지 말아야 한다. 옷가공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재단작업부터 대담하게 갱신하여야 한다. 어떻게 할것인가.

《무엇을 그렇게 보고있어요?》

등뒤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정순은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다. 김순임비서가 빙그레 웃으며 들어서고있었다.

정순은 일어서 몸가짐새를 바로 했다. 당비서가 왜 이렇게 서둘러 방에 찾아왔는지 알수 있었다. 어제 하지못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것이다.

그런데 김순임은 도면에 보다 흥미를 느낀듯 가까이 다가서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새로운 재단방법이군요…》 이윽하여 얼굴을 든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언제 이런걸 다 생각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눈길은 정순에게 이것을 꽤 실현할수 있는가고 묻는듯 했다.

정순은 무엇부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껏 부풀어오른 가슴을 누르고 나직이 입을 뗐다.

《비서동지, 저는…》

《정순동무, 거기 앉아요.》

김순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주며 자기도 함께 앉았다. 몹시 흥분해있는 그의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가 얼굴을 들자 김순임은 차분한 어조로 먼저 이야기했다.

《정순동무, 내가 덜통하다나니… 너무 늦게야 알았어요.》

《무엇을 늦게 알았단 말인가?》

정순은 한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김순임비서가 무슨 까닭으로 몹시 어쭙은 표정을 짓고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정순동무가 왜 웃음을 잃었는지, 어제 왜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어했는지… 우리 옥희가 귀찮게 주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옥희가?…》

정순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김순임비서가 옥희의 이모였을줄은… 그애가 비서에게 말해준것이 아닌가.

정순은 가슴에 차오른 자책감을 더는 그대로 못어둘수 없었다.

《비서동지, 제가 잠시나마… 생각을 잘못했었습니다. 어려움앞에서 그만…》

《됐어요. 그 심정을 알만해요. 사실 그 몸으로 이제 책임자사업을 하기는 힘들거예요. 그래서 토론끝에 당분간 고려하기로 했어요.》

사실 김순임은 정순이 남먼저 나와 새로운 재단방법이 그려진 도면을 펴놓은것을 보고 그의 결심을 알았다. 밤새 마음의 진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었다는것이 알렸다. 기뻐다. 다르게 나올수 없는 녀인이였다.

하지만… 그의 몸이 무거워졌는데야 어찌하랴, 마음만 가지고는 일할수 없지 않은가. 아쉬운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서동지.》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서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강계사람입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주는 과업을… 힘껏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당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립장이였다.

김순임은 의아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 몸으로?…》

그는 정순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정순은 얼굴이 붉어졌으나 또렷하게 입을 뗐다.

《네…》

그의 타는듯한 눈빛에는 변함없이 간절한 지향이 어려있었다.

강계사람! 어쩐지 가슴이 쿵 울린다. 그저 평범하게 보았던 녀인이 얼마나 돋보이는가. 우리 시대가 이렇듯 인간들을 훌륭히 성장시켜주나.

《정순동무, 고마워요. 동무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믿었어요.》

김순임은 흥분을 누를수 없는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나서 정순이앞에 멈춰섰다.

《오늘과 같이 모든것이 부족한 시기에 어린애를 낳는것이 얼마나 큰일이예요? 난 우리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일이 그저 단순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아요.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이고 나라앞에 어머니의 본분을 다하려는 뜨거운 심정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식은 가정의 대이자 민족의 대, 애국의 대가 아니겠어요. 그렇기때문에 아이를 낳는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순동무가 재단실을 책임진 일을 못하더라도… 아이를 낳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침해살을 받아 불그레하게 상기된 김순임의 얼굴에는 경건한 빛이 떠올랐다.

《오늘 아침보도를 들으니… 경애하는 장군님께

서는 또다시 머나먼 최전연 초소를 찾으시여 인민군전사들과 함께 계셨어요. 조국의 운명을 지켜가는 것이 열

마나 중요하셨으면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전선길을 걸으시겠어요.

우리 녀성들은 더 많은 아들딸들을 낳아 강성대국건설장에도 조국보위초소에도 내세워주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이고 혁명의 요구예요.

정순동무가 결심한 것이 나도 기뻐요. 이제는 마음껏 웃으세요 어머니의 웃음이야말로 우리 생활의 꽃으로 되고있어요.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우리 녀성들만이 웃을 수 있는 행복의 웃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웃음속에 우리 생활의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김순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순은 고개를 수그렸다. 행복의 웃음... 눈곱이 절로 뜨거워지고 가슴이 찢어졌다.

돌이켜보면 배고픔과 추위가 엄습하던 시련의 시기에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었다. 통강냉이 한그릇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도 집안에 웃음꽃을 피웠었다. 엄혹한 추위에 몸이 얼어들어도 더운 가슴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었다. 그것은 부모들이 물려준 천성적인 성격에서였던가.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내놓은 우리 나라,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때에도 아이들을 많이 낳아 키우는 세대들을 우대하는 특별조치를 취해주고 공로를 세운 어머니들에게는 모성영웅의 칭호까지 안겨주시는 뜨거운 은정...

그 고마운 품이 있어 자신은 어린이 셋을 구김살없이 키워올 수 있지 않았던가.

인민반에서는 《울망줄망이네》 집을 누구보다도 따뜻이 보살펴주고 무엇이 생겨도 아이들에게 주라고 손에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출근길에 나서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뺄스에 오르면 저마다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 서로 돕고 이끄는 이런 사람들속에서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랴.

정순이 두눈을 습벅이고있는데 김순임은 주전자에서 물을 한고뿌 따라마시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새세대부부들은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어린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있어요. 어린애를 하나 아니면 극상해서 둘을 낳군하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는 조국보위도 나라의 앞날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육회를 만날 때마다 그래선 안된다고 꾸짖어왔는데... 어제는 그애가 눈물을 흘리며 잘못 생각했노라고, 어린애를 더 낳겠다고 했어요. 아무튼 정순동무가 결심을 아주 잘했어요. 새 재단법은 모두가 달라붙어 실현하자요. 정순동무는 공장일은 넘겨달고... 어린애를 낳으세요.

여기에 어머니로서의 참된 보람이 있고 애국이 있는 것이예요.》

《!》

정순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주는 가장 큰 《분공》이고 믿음이 아닌가. 진정 이런 품이 있기에 우리 녀성들은 어려움속에서도 웃으며 어린애를 낳고있는 것이구나. 그 고마운 품에서 일시 마음이 흔들렸던 어머니인 나도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닌가.

《비서동지!》

정순은 참고참아오던 것을 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오열을 터뜨렸다. 가슴에서 북받쳐오르는 뜨거운 것을 넘기며 어깨를 가볍게 떨었다.

《그만해요. 오늘처럼 기쁜날에 활짝 웃어야 할 텐데 눈물을 보이다니...》

이렇게 말하는 김순임 자신도 축축히 젖은 두눈을 습벅이고있었다.

《그동안 정순동무가 바빠 지내다나니 병원에도 자주 가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밖에 차를 준비시켜놓았어요.》

정순은 일어설 수 없었다. 샘솟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고 두어깨를 끝없이 들먹이기만 하였다.

《어서 눈물을 거두세요. 그리고 크게 웃으세요. 정순동무가 밝게 웃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싶어 해요.》

정순은 손등으로 눈곱을 닦고 일어섰다. 김순임에게 애써 웃음을 보이려고 했으나 입귀만 벌여젖을 뿐 웃음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어머니!...) 하고 목메여 불렀다.

어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고 남편마저 멀리 떨어져있어도 나에게 더 가까이에서 살뜰히 보살펴주는 품이 있구나. 남모르는 가슴속 시름마저 가셔주고 웃음을 꽃피워주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내 무엇을 아끼고 서슴으랴.

정순은 차에 올라 김순임의 따뜻한 눈길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차창으로 눈부신 해살이 가슴에 한가득 안겨들었다.

정순은 얼굴을 들었다. 저 하늘은 어찌면 저리도 맑고 푸르른가. 거리에 늘어선 가로수들은 어찌면 저리도 청신하고 새들의 노래소리는 저렇듯 아름다운가.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면 저렇게 생기를 띠고 활력에 넘쳐있는 것일까.

정순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티없이 밝은 웃음이 활짝 피어났다. 행복에 겨운 가슴에서 샘솟는 웃음이었다.

이 순간 그는 먼 북방땅에서 새 광맥을 찾고있을 남편을 생각했다.

(그이에게 기쁨의 전보를 보내야겠어.)

언제나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남편이 자신의 결심을 찬동해주리라 믿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없이 부풀어오른 정순의 가슴에는 언제인가 읽은 시의 한구절이 울려왔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기에

오늘도 웃으며 낳는 귀여운 아이들

조국이며, 소중히 받아다오

사회주의를 믿는 이 나라 녀인들의 뜨거운 확신을

공동시설에서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타격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타격전선에서 또다시 만났다

박세옥

화선에서 우리 만나듯이
그렇게 만났노라
보병들이 지원온
포병들을 만나듯이
그렇게 주타격전선인 농업전선에서
우리 또다시 만났노라

지난해 우리 함께
한전선에서 싸웠거니
자, 인사도 전선식으로
전투도 그때처럼 불이 번쩍나게 하세
이해 우리 또 같은 명령을 받았거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전투야 전투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주타격전선이 아닌가
나누는 이야기 병사맛이 나 좋구나
이해는 지난해보다
급절 일을 해도 성차지 않으리

그렇지 땅이 아무리 무겁다한들
뜨거운 우리 가슴에 안은
이삭들보다 더 무거우랴
총전 병사들의 목표는
척 타고앉는 고지밖에 없듯

우리에게는 높은 난가리 타고앉는것밖에 없노라

지난해 그 땅이다
땅은 또 얼마나 넓으나
이리저리 맘껏 작전을 펴도 성차랴
해벌에 탄 농장원들만
어찌 땅의 주인이라
군대도 인민도 주타격전선의 주인이다

우리 무엇이 다르랴 총전 병사와
기세차게 나뭇기라 우리 추켜든 붉은기여
우렁차게 울려가라 트락또르의 발동소리여
온 나라가 주타격전선에 떨쳐나섰거니
벌써 풍요한 가을은 우리의것이라네
우리는 이해에 총대같은 대줄기에
총알같은 영근이삭 달리게 하리

화선에서 우리 만나듯이
그렇게 만났노라
승리만을 아는 병사들
언제나 유쾌하듯
웃음소리 높이 이해의 주타격전선에서
우리 또다시 만났거니
시작한 전투 승리로 맺으세
풍성한 잔치 가을에 베푸세

농장길

백하

그 어데를 밟아도 낮이 익구나
못잇을 이 동쪽길
새벽이면 이슬을 밟고
저녁이면 달빛을 밟으며
폭폭 정이 스민 농장길

헐치 않았노라
낮설은 이 벌방길에
출근길을 옮겨놓고
봄, 가을
더운 땀으로 적신 농장길

우리 또 왔노라
별이여, 정든 포전들이여
아느냐
흰눈덮인 저 농장벌에
그 어떤 크나큰 믿음이 실리였는지
그 어떤 위대한 사랑이
또다시 뜨거이 깃들었는지

오늘은 동구길이
이리도 좁구나

온 나라가 농장길에 들어섰다
 줄지어 늘어선 자동차들, 지원의 마음들이
 농장벌에
 영농물자를 내리며
 한껏 터치는 즐거운 웃음소리

온 강토우에 대비약의
 전면적공세를 선포한 이해
 또다시
 농사를 주타격전선으로 내세워
 온 나라를 농장길에 불러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여

그 고마움에

그 하늘같은 은덕에
 눈덮인 대지가 품을 헤친다
 오, 우리 또 한해
 정든 농장길에 출근길을 옮겨놓고
 빛나는 이해를 장식하리라

믿어다오
 우리 저 농장벌이 꺼지도록
 풍성한 가을을 실어
 오직 인민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장군님의 그 뜻을 기어이 꽃피우리라
 또다시 승리자의 자욱을
 이 농장길우에 새기리라

다시한번!

김창호

원대한 포부
 드높은 신심
 가슴마다 차넘친다
 다시한번!
 당의 부름 강산을 뒤흔든다

격동적인 사변
 금별의 위훈으로 커진 심장들
 비약의 나래 한껏 펼쳤다
 다시한번!
 조국이 움썽 큰 자욱 내딛는다

전설의 천리마
 사회주의강국으로 치달아오르던 50년대 그
 날개로
 선군혁명대고조의 불길높이 창공을 날은다
 다시한번 주타격전선 농업전선에
 총동원, 총집중의 열풍 몰아친다

눈속에서 단잠 자던 농장벌들
 서둘러 봄맞이 아지랑이 피워올리는가
 드넓은 사회주의대지에 차넘치는
 봄의 훈향 철을 앞당겨 안겨드누나

녀인들은 녀인들대로
 콧직이 무은 썰매우에 거름을 싣는다

어제날의 로병들
 락동강 불모래 넘던 그 걸음으로
 포전길에 들어선다

다시한번! 그 한마디에
 온 나라가 주타격전선 한전호가 되고
 천만군민 농업전선의 주인이 되어
 나라의 쌀독을 함께 책임졌다
 로력도 설비도 물자도 농업전선에 최우선적으로!
 아 쌀은 곧 사회주의라 하신
 어버이수령님 유훈
 위대한 철리로 이 땅우에 가득차 흐른
 쌀로써 사회주의 결사수호할
 천만의 맹세와 기상 하늘을 찌른다

다시한번!
 호소이기전에
 한없는 믿음 열렬한 사랑인
 우리 당의 웅심깊은 목소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라고 부른다

온 한해 우리 심장 끓이고 끓이자
 장군님 불러주신 주타격전선 대지우에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자
 오 다시한번! 다시한번!

바뀌어진 장면음악

주체85(1996)년 12월 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카프》작가편 제4~7부를 보시고나신 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화를 잘 만드는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일부 장면에 고쳐야 할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색에 잠겨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르며 일군은 다음말씀을 기다렸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인공이 간도에 갔다가 쪽배를 타고 쏘련(당시)에 갈 때 노래 《이부슈까》의 선율이 나오는데 그것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성곡선정을 잘못하였다고, 그때가 1930년대인데 당시의 쏘만국경에서는 《이부슈까》의 정서가 나올수 없다고, 그 장면에 그런 노래를 넣은것은 순전히 멋을 부리기 위한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일군은 방금전에 인상깊게 본 그 장면들을 다시금 그려보았다.

의로운 창작의 뜻을 품은 주인공 리찬이 서울과 도교, 간도지방을 방황하면서 간난신고와 우여곡절을 겪다가 절망의 심연속에서 마지막 한가닥 희망을 안고가는 길, 그것마저도 다 닳은 쪽배에 몸을 싣고 남의 나라로 가는 길은 정처없이 떠나는 울분의 길이었다.

이러한 리찬의 심리에 호느적이는 수양버들을 노래한 《이부슈까》의 선율이 맞을리 없었다.

더우기 리찬이 쏘련(당시)을 향해가던 당시 일제의 쏘만국경침입사건으로 하여 정세가 매우 긴장하고 날카로웠다. 창작자들은 이런 때 쏘만국

경지대에 있는 주인공의 심리를 돋구려고 《이부슈까》(수양버들)노래선율이 흐르게 하였던것이다.

많은 창작가들과 지도일군들이 작품을 창작완성하면서 이 장면의 음악만도 수없이 들었지만 장면의 생활정서와 주인공의 심리에 음악이 맞지 않는다는것을 발견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화를 보시면서 장면의 생활과 주인공의 심리, 《이부슈까》의 노래선율이 풍기는 정서와 쏘만국경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까지 일괄하여 분석하시고 음악이 장면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순간에 포착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시여 영화에 중국 동북지방에서 일본인들이 식당에 가서 고전음악을 듣고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을 보여주자고 하는것인지 알수 없다, 그때의 일본인들이 그렇게 유식한 고전음악감상자들은 아니다, 그런 장면에 음악을 넣으려면 썩어빠진 시대의 케케묵은 음악을 넣어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고상한 감정과 지성이 없이 침략과 전쟁, 약탈과 살인으로 길들여진 저능아들에게는 고전음악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명철한 말씀이셨다.

이렇게 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카프》작가편 제7부에서 주인공 리찬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쏘만국경으로 쪽배를 타고 가는 장면의 노래는 《이부슈까》대신 로씨야원무곡 《쏘브까 만주리》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또한 식당에서 일본인들이 듣는 음악은 케케묵은 구린내나는 노래의 야생적인 선율로 바뀌여졌다.

어머님 사랑하신 노래

김영옥

이 세상에서
너성들을 제일 사랑하신분이 있다면
그이는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도 사랑하신 노래도
《너성의 노래》입니다

머리조차 못들던
이 나라 너성들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며
새 조국 건설에 이끌어주신 너성들을
천으로 만으로 어떻게 세입니까

설움에 우그러든 그 어깨들을
당당하게 펴주시고
공장마다 농촌마다 펼쳐나신 너성들의 손을
정으로 잡아주신 어머님

새 세상에서 마음껏 날으라
남먼저 세워주신것도
한뼘한뼘 이불을 지어가며 마음기울이신
그 이름도 못잊을 3.8락아소입니다

아십니까
수령님 받들어온 이 나라 력사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영웅으로 자라났는지
이 나라 여성들이
어이하여 그렇듯 아름답고 강한지
그것은 우리 어머니 키워주신 모습입니다

짧으신 한생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래일을 주시고
복된 행복을 다 주시려
불같이 사신 어머니이시여!

《여성의 노래》

그것은 어머니의 뜻입니다
조국앞에 어엿이 여성들을 내세워준
어머니의 그 사랑이
노래로 력력한 이 땅입니다

어머니 한생을 바쳐 사랑하신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 사랑하신 이 노래를
장군님의 선군위업 잘 받들라는
절절한 당부처럼 새겨안습니다

장시

어머니들을 축복하노라

—어머니대회에 드림—

송양란

저 하늘의 해살을 여기 다 모아 뿌리는가
위대한 태양의 축복아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이 나라의 자랑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대회장으로 들어선다

얼마나 크나큰 공지를 안고
영광의 대회장으로 들어서는것이냐
총대가정 어머니
모성영웅어머니

어머니란 그 이름과 더불어
력사가 창조되고
시대가 흘러왔건만
오늘처럼 그 이름이
값높이 불리운적 또 있었던가

어머니 !
사랑으로 웃고
사랑으로 남몰래 울기도 하며
생의 굽이굽이마다에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말없이 고여온 어머니

다 자란 자식도
언제한번 제 마음의 등에서
내려놓은적 없고
한번 엮은 자식 무거운줄 모르고
자식이 걷는 인생의 먼먼길을
함께 따라서는 어머니

자식이 해놓은 장한 일 앞에서는
자신이 바쳐온 천만고생을
행복의 한순간과
기꺼이 바꾸고
때로 아픈 매를 들 땐
우는 자식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어머니

언제한번 고생이라 생각한적 있었던가
언제한번 희생이라 여겨본적 있었던가
자식위해 자신을 바치는 재미에
나라앞에 끝끝하게 자식들을 내세우는 락에
한생을 사는 어머니의 삶이여

어머니 자신마저도 잊고사는
하많은 헌신의 날과 달들을
갈피갈피 찾아 구슬처럼 꿰여
세상에 빛내주신분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이시거니

집을 찾아오시면
부엌의 가마부터 열어보시고
이불의 두께까지 가늠해주시며
어머니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열어보시고야 시름을 놓으시던
우리 수령님

수령님 마음속 깊은 곳엔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가는
우리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거니

백년이 간들 잊으랴
천년이 간들 잊으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머니대회를 발기하시고
어머니들에게 안겨주신
그 믿음 그 사랑

어머니들이 들어선다
위대한 사랑의 해빛아래 성장한
선군시대 어머니들이
우리 장군님 놓아주신
사랑의 무지개 타고
세번째 어머니대회장으로 들어선다

수령님 생전에
아끼고 사랑하시던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
제일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려
야전복자락을 찬바람에 날리시며
장군님 맞으신 눈비는 얼마였고
이어가신 전선길 몇천몇만굽이었던가

천리 방선을 찾으시여
병사들과 기념사진 찍을 때면
군대 나간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들의 마음부터 헤아려주시고
고향에 사진을 꼭 보내주라 이르는
우리 장군님

때로는 병사의 고향에까지 들리시여
최고사령관의 야전차에
이름없는 병사의 어머니를 태워
꿈같은 상봉을 마련해주신
전설같은 그 사랑이여

오오, 부러워하라 세계여
산원의 보석주단을 밟고선
이 땅의 평범한 어머니들
어머니란 그 부름앞에 귀중한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천만년 미래를 축복해주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우리 녀성들을 부러워하라

이 시각도 우리 장군님은
전선길에 계시려니
천만시련 다 이기며 헤쳐가는

그 길에서 올려오는 심중의 노래여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한 어머니도 아닌
이 나라 천만어머니들의 삶을 다 안아
세상앞에 빛내주시면서도
자신께서 바치시는 그 헌신은
마음속에 노래로만 새기신 우리 장군님

장한 자식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지만
이 나라 천만어머니들뒤에는
이렇듯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나니

장군님 그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들 체온이
그렇듯 따스하고
자식에게 바치는 정
그렇듯 다심한것 아니라

장군님 그 사랑으로
가장 뜨거운 모성애를 지닌 우리 어머니들
가장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 키우는 자식들 어찌
병사라면 총폭탄영웅
과학자라면 세계적인 발명가
체육인이라면 선군조선의 영예떨치는
금메달수상자가 되지 않으랴

어머니들이 들어선다
선군길에 가정의 행복이 있고
그 길에 자식들의 앞날도 있음을
가슴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안은 어머니들이
대회장에 들어선다

축복하노라
아홉자식 낳아 총대감을 세우고도
열번째 총대감을 또 기다리며
장군님앞에 내세울 꿈을 꾸는
그 어머니들의 보람찬 삶을
축복하노라

어머니들의 웃음으로
내 나라가 더 밝아지고
어머니들의 행복이 비껴
더없이 맑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 조국이 어머니들을 축복하노라
조국이 어머니들을 사랑하노라

시적발견은 스스로 얻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발표된 몇편의 시들을 놓고—

리동수

발견은 곧 창조이다. 창조는 기성의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기성에 기초하지 않은 창조란 있을 수 없다.

창작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이 불러일으킨 충격과 그 요인을 심오한 정서적체험속에 무르익혀 깊이 사색하고 환상을 펼치는 속에 얻어지는것이 새것이고 발견이다.

시에는 반드시 새것이 있고 발견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낸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독자들을 시세계에 깊이 끌어들이자면 거기에 시인의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새롭고 풍부한 서정

시 《전선으로 올라가라 나의 시여》(류동호작, 《조선문학》 주제94(2005)년 1호)에는 생활속에서 받아안은 강렬한 충동과 그것을 불러일으킨 근본요인을 심오한 체험속에 무르익혀 깊이 사색하는 과정에 뜨거운 주정으로 터친 열렬한 주장과 발견이 있다.

설날 저녁 온 나라가 새해의 축복속에 즐거운 밤을 보내고있던 행복의 시각 서정적주인공은 오늘도 휴식을 모르시고 전선길을 달리시는 어버이 장군님 생각에 깊이 젖어든다. 이것은 시인의 생각이자 온 나라군대와 인민모두의 생각이며 공통의 감정이다. 시에서는 이 전형적인 체험세계를 깊이 파고들어가 《그리움의 시》라는 세부적이며 개성적인 생활정서에 담아 감명깊은 시세계를 펼치고있다.

《이 저녁엔 그리움의 시도 눈물에 젖어/간절한 소원을 안고 불타는데/눈길들어 바라보니 더 멀어만지는/위대한 장군님의 전선길 전선길》

설날 하루만이라도 평양으로 돌아오셨으면... 소원은 간절하였으나 야전차의 불빛은 전선길 아득한 저 한끝으로 더 멀어만지는것이다.

소박하고도 꾸밈없는 절절한 체험은 덧쌓이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선군령장의 선군길

에 《세월의 진대》하나 못치워드리고 험한 령 눈길우에 《모래 한줌》 못뿌려드린 죄책감에 깊이 젖어든다.

설날에 받아안은 이 평범한 생활감정은 《그리움의 시》라는 구체적인 체험속에서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더욱 격조높이 고조되면서 마침내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내적으로로 뜨겁게 분출된다.

...

눈보라 전선길에
고드름 맺힌 장군님의 야전복
잠시라도 더웁히게 모닥불이 되지 못한
나의 시여
너는 백편이 있어 무엇하랴

명절날도 발이랑우에서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이런 날이
나에겐 제일 기쁜 명절이라 하시며
장군님 근감자로 끼니를 에우실 때
그 기슭에 울리지 못한
나의 노래여
너는 천편이 있어 무엇하랴

태양의 그 품속에 온 세상을 안으시고
선군정치의 찬란한 해빛으로
핵전쟁의 불구름을 막아주신 장군님
그이의 선군총대에 탄알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이의 전선길우에 군가가 되지 못한다면
나의 시와 노래여
너는 선군혁명성전에 바칠것이 무엇이나

...

가슴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열과 정을 얼마나 뜨겁게 뿜어올린 열정의 토로인가. 만약 시인의 내적체험속에 격동되어있던 《그리움의 시》가 한갓 그리움 그자체에서 벗어나고 그이의 선군혁명의 길에 바쳐지지 못한다면 그런 시와 노래가 백편이 있든들 무엇하며 천편이 있든들 무엇하겠는가.

깨끗하게 정화된 그리움의 정을 뿜어 터친 이 순정의 토로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꾸밈없는 체험속에서만 나올수 있는 이 시의 고유한 서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업적을 가슴속에 새기며

설날의 전선길에 《그리움의 시》를 부치는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은 《눈비에 젖은 야전복》을 톡톡 터시며 설을 맞는 평양으로 돌아오실 아버지 장군님을 그리보는것이다. 허나 우리의 장군님은 오늘도 최전선에 계시는것이다.

마침내 전선에서 전선으로 내려쳐가는 《그리움의 시》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그리움》으로 승화되어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는 전선으로 울려가는것이다.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체험세계로부터 천만군민의 보편적인 감정체험으로 승화시킨 시적일반화의 예술적솜씨는 이 시의 심오한 사상을 무게있게 안받침해주면서 새롭고 풍만한 시세계를 펼쳐보여준다.

시 《김일성광장의 종소리》(문용철작, 《조선문학》주제94(2005)년 4호), 《땅과 농민》(리진철작, 《조선문학》주제94(2005)년 3호), 《다시 찾은 이름》(최태국작, 《조선문학》주제94(2005)년 2호)과 같은 시들도 탐구와 사색이 엇보이고 발견이 있는 좋은 시들이라고 본다.

새것은 생활과 떨어진 허공에서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새것도 생활속에 있고 발견도 생활속에 있다. 새것은 누구나 일상 보고 느끼는 생활속에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기발한 착상에 의하여 얻어진다.

시 《김일성광장의 종소리》는 누구나 보고 느끼며 체험하고있는 일상생활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인상깊은 작품이다.

수도의 청신한 새벽하늘을 흔들며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률을 타고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새날의 종소리, 숙연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아버지수령님 우리러 경건한 마음 가다듬게 하는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생각도 깊어진다.

서정적주인공은 새날이 시작되는 거리의 한복판에서《생활의 들끓는 음향》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을 펼친다.

출근길에 줄지어 달리는 무궤도전차와 버스, 처녀들의 경쾌한 발걸음, 필갑소리 딸깍거리는 아이들의 잔걸음발, 만수대언덕에서 축복의 미소 뿌리시며 손길높이 바래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손길아래 또 하루를 빛내인 기쁨 안고 돌아오는 저녁, 생활은 이렇게 레사로이 흘러간다.

만약 광장의 종소리와 함께 새날이 시작되고 생활이 흘러간다는 일반적인 표상만을 펼치였다 라면 이 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겠는가. 누구나 체험하는 상식에 더 주는것이 없었을것이다.

허나 시에서는 그속에서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없었던 생활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냈던것이다.

종소리, 그것은 이 나라의 무궁할 날과 달을 이어주며 《조국의 크나큰 가슴》속에 뛰고뛰는 《수령님의 거룩한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그렇다. 시에서는 그것을 보았다. 조국의 크나큰 가슴에서 뛰고있는 수령님 심장의 박동소리는 조국의 새날을 부르며 새삶의 활력과 생기를 안겨주는 《삶의 노래》, 《행복의 메아리》였다.

...

아, 종소리

이 마음을 흔드는

김일성광장의 종소리 !

이 나라의 무궁할 날과 달 세월을 이어주며

조국의 크나큰 가슴속에 뛰고뛰는

수령님의 거룩한 심장의 박동소리런가

그 박동소리

이 땅우에 무궁할 삶의 노래되며

행복의 메아리를 안고

우리의 세월이 흐른다

우리 장군님 선군의 총대로 울려가시는

불멸의 종소리와 더불어

내 조국의 아침이 열린다. 열린다

시에서는 광장의 종소리가 영원하듯이 오늘 장군님께서 《선군의 총대》로 울려가시는 종소리는 불멸할것이며 수령님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고 계신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시가 레사로이 흘러가는 생활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보탬을 준 몫이 있다.

리진철의 시 《땅과 농민》도 개성이 있고 발견이 깃든 인상적인 시라고 본다.

지금까지 땅과 그것을 다루는 농민들에 대하여 노래한 시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중엔 성공한 시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들도 있었다. 이 시가 성공하게 된것은 종래의 시들과 다르게 반복을 피하고 시점을 다르게 가져간데 있다.

시인의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 얼굴이 있어야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펼쳐질수 있다. 이 시는 사상미학적주장이 명백하고 개성이 뚜렷한 시세계를 펼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새로운 맛을 주고있다.

땅이 만물을 먹여살린다면 농민은 그 땅에 젖을 물려주고 살지워주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다. 농민은 땅의 어머니이다. 확실히 땅과 농민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노래하고있다.

땅은 만풍년의 풍요한 가을로 사람들을 먹여살리며 기쁨을 안겨준다. 그러나 그 땅을 가꾸고 살지우며 풍요한 결실을 안아오게 하는것은 농민

이다. 농민의 정성이 기울여지면 지는것만큼 땅은 보답을 한다. 그래서 농민은 땅과 함께 숨쉬며 말을 한다는 시들도 나왔다.

그러나 이 시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땅을 아기에 비기고 농민은 그 땅에 젖을 물려 키우는 어머니에 비교하였다. 비유에 무리도 없고 새맛도 있다. 땅을 다루는 농민들이 모두가 어머니된 심정으로 땅을 가꾼다면 얼마나 좋으랴.

시에서는 겨울로부터 봄을 거쳐 여름내내 땅때문에 잠못들고 땅을 품에 안고 잠을 깨치며 땀에 절고 비에 젖은 잔등에서 땅을 자래우는 농민의 수고를 알아주듯 가을이면 품들여 키운 자식 장한 일 마치고 품에 안기듯 땅은 알알이 알찬 열매를 빚어 무겁게 받아들여올린다고 노래하고있다.

...

성실하고 꾸준하고
미덥고 대견한 땅
그러나 땅에 젖은 손길 끊어지면
어머니의 젖줄기를 떠난
어린 아기와 같아

하기에 농민 나는 한생 내 지켜갈
땅때문에 애쓰고 웃으며
애오라지 모든 정 다 바치거니
아 땅은 만물을 먹여살린다지만
농민 나는 그 땅의 어머니입니다.

농민이 땅의 어머니라는 발견이 갖는 주장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생활적인 풍만한 서정에 안받침되어 감동깊게 안겨오고있다. 땅에 바쳐지는 농민의 수고를 땀내, 거름내가 꼭 배인 농촌의 후더운 체취속에 생신하게 형상하면서도 그것을 1년 4계절 아기를 잠재우고 깨면 젖을 물려주고 등에 업어키우는 어머니의 정성에 비겨 생동하게 그리고 뜻이 깊게 상징함으로써 독창적인 시세계를 펼치고있다.

그의 다른 시편인 《농민의 지계》역시 개성적으로 탐구된 문제성이 뚜렷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농민의 어깨우에서 잠시도 내려져본적이 없는 지계를 두고 노래하면서 이 작은 하나의 세부를 파고들어가 정서적으로 심화시켜나가면서 농민은 그 지계우에 거름만이 아닌 죽어도 버릴수 없는 농민의 근본인 땅! 땅을 지고살았다는 뜻깊은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새로운 의미를 깨우치려고 사색한 탐구의 흔적이 엿보여야 한다.

또한 نوم들의 철창속에서 전향과 죽음을 강요당한 비전향장기수의 뼈저린 체험속에서 탐구된 시《다시 찾은 이름》이 안겨주는 여운도 크다.

시에서는 고통과 환희와 격동으로 엮어진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깊이 파고들어가 함축과 비약,

극적인 대조와 립체적인 서정구조속에 그의 한생을 보여주고있다.

체험이 깊고 진실할뿐아니라 《다시 찾은 이름》을 통해 거기에 심오한 철학을 부여하려고 한 의도가 새롭고 풍만한 정서에 실려 감동깊게 전달되고있다.

세상에 고고성을 터치던 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릎을 마주하고 밤새 골라 지어준 이름이었다. 걸음마 떼던 때 손벽치며 어머니가 불러주던 이름, 그 이름은 《애국가》배워주던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정든 초소 분대장의 반복구령에도 있었다.

허나 악착한 원썬놈들은 그 이름을 빼앗았다. 그리고 거기에 《3586》번이라는 이름아닌 《이름》을 붙이였다. 전향의 유혹, 모진 고문, 차디찬 감방... 그의 앞가슴에 악마처럼 붙어 원썬놈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3586》번.

허나 오늘은 그에게도 이름이 있다. 부모들도 찾아줄수 없었던 이름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것이다. 홍안의 청춘시절에 불러주던 이름 백발을 엮은 그날에 다시 불리웠다 그러나 다시 불리워진 이름. 그것은 어릴적에 불리우던 단순한 이름이 아니였다.

...

오, 나에겐 이름이 있다
우리 장군님 찾아주신 이름
리력서갈피에
당원증의 첫머리에

...

그 어떤
원썬들도 빼앗지 못할 이름
아, 그 이름앞에 덧붙여
신념과 의지의 강자
공화국영웅으로 불리우는 나의 이름

...

격조높이 터친 이 주정토로에서 《다시 찾은 이름》에 붙여진 심오한 뜻을 읽을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간존엄의 최고의 상징, 고귀한 정치적생명의 호칭으로 빛나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공화국영웅》으로 불리우는 가장 값높은 이름이었다. 바로 여기에 이시가 노리고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새로운 시세계가 있다.

우에서 본 시들모두가 어느 모로 보나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 완성해야 할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시적체험과 사색을 깊이하여 뚜렷한 주장을 세우고 그것을 발견이 갖

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으로 펼쳐보이기 위해 애 쓴 흔적이 력력하다는 점에서 긍정된다.

뚜렷한 뉘앙스가

우리 시들가운데서 주장이 뚜렷치 못하고 신통한 발견이 없는 시들도 더러 찾아보게 된다. 뚜렷한 주장이 없고 발견이 없는 시들은 레외없이 이것저것 라렬하기마련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답습하는데 머무르거나 생활적인 정서를 떠나 직선적이며 추상적인 선언으로 시를 따분하게 만드는 데로 떨어지기마련이다.

시 《노래하노라, 오직 한마디》(김휘조작, 주체94(2005)년 1호), 《봄하늘》(채동규작, 주체94(2005)년 4호),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에게》(최남순작, 주체94(2005)년 2호), 《우리의 감사를》(김송남작, 주체94(2005)년 3호)등과 같은 일부 시들을 들어 말할수 있다.

물론 이 시들에 실린 시인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생각되는바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불만되는 점이 더 많다.

다른 시들이 뚜렷한 주장이 없이 현상라렬에 치우치고있다면 특히 《봄하늘》과 《노래하노라, 오직 한마디》와 같은 시들은 신통한 발견도 없이 구호적인 선언으로 시를 개념화, 추상화하고있다.

시 《봄하늘》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경사스런 날을 맞이하여 그이께 올리는 흠모와 격찬의 노래로 엮여지고있다.

그런데 작품에 독창적으로 탐구된 똑똑한 종자를 심지 못한데로부터 추상적이며 상식적인 내용을 아무런 시적론리도 없이 이것저것 가져다 맞춰나가는 식으로 꾸미고있다. 따라서 시가 감정 정서발전의 계기를 타고 일관성있게 흐르지 못하고 초점이 없이 산만하게 련거되어나가면서 시인의 사상미학적주장을 돈구어주는데로 지향되지 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봄하늘, 봄빛, 봄동산》과 같은 식연치 않은 상징적인 시어들을 수많이 반복해쓰면서 직선적이며 구호적으로 시줄을 엮어나갔기때문에 시가 정서를 타고 흐르지 못하고 극히 추상화되고말았다.

결국 시인은 장군님품은 《나를 후더웁게 품어주는 하늘》, 장군님 계시여 《조선의 하늘은 영원한 봄하늘》,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봄하늘》이라고 칭송하면서 《흠모의 격찬을 드리웁니다!》, 《최대의 영광을 드리웁니다!》라고 격동에 겨워 웨치고있으나 독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있다.

시 《노래하노라, 오직 한마디》또한 개성적인 종자를 찾아쥐지 못하고 생활적인 정서를 떠나

추상적이며 직선적인 표현들을 련거하면서 시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있다.

내 나라의 강대함과 존엄은 오직 한마디 총대, 선군에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려 한것 같은데 이미 상식으로 되어버린 이런 주장이 어찌 새것이 나 발견으로 될수 있겠는가.

시에서는 《총대, 다박술초소, 야전차, 야전복 자락, 전선길, 선군의 길, 선군조국》과 같은 직선적인 표현들이 련이어 튀어나오고있으며 《위대함, 강대함, 존엄, 압살책동, 성새, 의지, 신념, 강성대국》과 같은 정치적용어들로 시줄들이 이어지면서 시를 딱딱하게 만들고있다.

정론적인 시도 아닌 시에서 생활적인 시어들과 정서가 배제되고 다분히 구호적이며 선언적인 시줄들로 시가 엮여진다면 앙상한 론리밖에 남을것이 무엇이겠는가.

시인의 주장에 발견이 없고 구태의연한 상식외에 더 주는것이 없다면, 그리고 시가 발견이 깃든 풍부한 서정을 타고 뜨겁게 흐르지 못한다면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치고 어떻게 감동시킬수 있겠는가, 이 시엔 바로 그런것이 없다. 정을 담아 뜨겁게 호소하는것이 없을 때 그것은 한갓 구호적인 선언으로밖에 되지 못한다.

...

그렇다! 이 땅은 선군의 조국
넘치는 긍지와 자부를 안고
그 한마디로 나는 이 땅의 위대함을 노래하노라
그 강대함과
그 높은 존엄과
그리고 눈부시게 빛날 무궁한 번영을

이것은 시를 결속짓는 마감련이다. 물론 이 시는 세부적인 계기를 깔고 생활적인 정서를 파고들어 일반화한 시는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감정체험에 기초하여 폭이 있게 정서를 펼치는 경우에도 체험을 개성적으로 구체화하고 일반화하여 가장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감정을 격조높이 토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생활적으로 받아안고 공감할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는 구체적이며 생활적인 정서적체험을 떠나 미리 고안된 주관적인 틀에 맞추어 씌여졌기때문에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 추상적인 시가 되고말았다.

시인은 주관을 앞세우기전에 어떻게 발견이 깃든 새로운 문제를 잡아 보여줄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그것을 정서적으로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한 묘리를 찾아내야 한다.

시에는 바로 시인이 노린 뚜렷한 주장과 발견이 있어야 한다.

공동시설에서

간고한 시련을 헤쳐나가야 할 우리 혁명은 대세와 추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강毅하고 건실한 열혈투사들을 요구하고있다.

장시

어랑천

전승일

태고의 랑림산줄기
천험의 궤산봉에
아득한 뿌리 두고
장쾌한 고고성 광광 울린다는
어랑천 어랑천

몇백 몇천년을
속절없이 흘렀더니
이 나라 백성들의
눈물을 싣고
피를 싣고
재난을 덮쳐우며
너는 흘러왔더니

도도한 흐름 멈춰
눈뿌리 아득히
대호수되어 고요히 일렁이는 너
용용한 네 흐름 가로질러

하늘에 맞닿은
이 거창한 언제우에 올라서서
내 지금 부피 큰 전투기록장을 펼치나니

땀에 젖어 무겁고
사랑에 젖어 무거운
이 생각깊은 갈피갈피 번지며
가슴헤쳐 말하자
선군시대 선군세월
조국에 열을 주고 빛을 주는
복의 강 덕의 강되어
천년흐름의 역사를 바꾼
뜨거운 이야기
가슴치는 어랑천의 이야기를...

1. 믿음

어랑천의 자서전
어랑천의 일기장같은
이 전투기록장엔
거짓도 꾸밈도 없고
위선도 가식도 없으랴
오직 깨끗한 진실만이
숫눈우의 발자국처럼
또박또박 적혀있거니

위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이 전투기록장은
순진한 아기의
엄마 찾는 목소리 같구나

용서하라 어랑천이여
세상앞에 큰소리로
이 폐지 폐지를 번지는것을
그리고 나무람말라
승리한 사람들의 심장에야
숨겨둘 비밀이 따로 없지 않는가

×

우우 눈보라
첫페이지에서부터 태질치는구나
3년전 1월
천고의 원시림이
흰눈천지에 파묻혀
아득한 우듬지만이 보이는
어랑천 팔랑팔랑짜기로
눈발을 차며 이들은 왔구나

12시에 해가 떠
2시에 진다는
울울한 골짜기
눈사태를 일으키며
골짜기에서 마주내려오는
메돼지의 피성을
동물원에서가 아니라
이들은 코앞에서 놀랍게 들었거늘

믿어지지 않는구나
강도 산도 한길넘게 눈에 쌓여
열흘나마 눈을 녹여
세면을 했다는것이
여기가 이제부터
청춘의 명예를 걸고
결판을 파야 할
황포한 대자연과의 격전장이었구나

따스한 고향집 온돌방이

그리워지는 밤
귀틀막 온기있는 아래목엔
또다시 전투에 입고나가야 할
젖은 작업복들을 널어놓고
밤별을 바라보며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던가

나서 처음으로
둥둥 얼음이 뜨는 강물속에
너도나도 뛰어들며
퍼렇게 언 입으로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고
웨치던 나날
이들 마음속에 뜨겁게 갈망했던것은
파연 무엇이던가

돌격대 어느 소대의 막내가쳐너
어머니에게 써보낸 편지가
여기 기록장에 적혀있구나
남자들도 힘겨워하는 다섯차분의 돌
그 돌산을 언제기초에 다 물어놓고
어깨에 진 멍자리 쓸어보며
나의 어깨도 언제를 받들었다고
어랑천언제가 내 어깨에도
첫 《훈장》을 달아주었다고
또박또박 써보낸 편지가...

돌격대 어느 소대장이였던가
집떠난지 한달만에 태어난 첫 아들
첫 아들의 돌사진 작업일지에 끼워놓고
매일매일 아들뒹까지 총화짓기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들아 언제를 세우고 땀땀이 돌아가는 날
첫 돌상을 다시 크게 차려주마!
그 뒤면에 박아쓴 보풀진 사진이
지금도 이 전투기록장에 붙어있구나

아 꿈에도 소원인 언제
언제야 빨리 일어서라
언제를 떠나서
무슨 큰소리로 할말이 있었고
무슨 고민과 기쁨이 따로 있었으랴

대줄기같은 폭우를 들쓰며
행진곡높이 언제로 나가던 7월의 아침
그만 대오가 바위처럼 굳어졌구나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저도 몰래 마음속 피를 끓여주던 언제전경도
그 소원의 전경도가
세찬 바람에
사정 없이 찢기울줄이야...

찢어진 전경도를 붙여가는
처녀들의 눈에서는
비물인지 눈물인지 하염없이 흘렸고
숨기지 않았구나 이 기록장에는

벼랑가에 전경도를 다시 세우는
젊은 대장부들의 손도
천근만근 무거웠다는것을

오 운명의 전경도여 대답하라
우리 심장에는
장군님앞에 맹세한
언제완공의 그 날자가
펄펄 끓고있지 않는가

그밤
코고는 소리로 소란스럽던 병실안에도
조용히 침묵이 찾아왔다
언제, 언제를 두고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한
괴로운 밤이었다

아 이 무슨 꿈같은 소식이더냐
아침에 무거운 잠을 깨고보니
우리 장군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소식
희미한 잔별이 남아있는 이른 새벽
질적이는 감탕을 밟으시며
수십리작업장 곳곳까지
다 돌아보고 가시였다는
정녕 꿈아닌 이 소식이

아직은 언제의 기초만이
파헤쳐진 땅우에 머리를 내밀고
산악같이 솟구쳐야 할 대언제가
허허중천에 작은 전경도만으로 서있는
어설픈 전투장앞에서
장군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심장을 뿡뿡 두드리었던가

나는 여기에 달려나온
청년들을 믿는다고
만난을 박차고 강의한 의지로 싸워나가는
어랑천전투원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해달라고
두번 세번 거듭거듭
청년돌격대장의 손을 잡아주신 우리 장군님

감탕에 찍혀진 차바퀴자욱을
두손으로 쓸어보며
소리없이 흐느끼던 이들
삽시에 수백의 손들이
대장의 손에 바위처럼 뭉쳐지지 않았던가
—장군님 잡아주신 그 손을
우리도 쥐여봅시다!

어랑천 수만심장에
불이 달렸더라
순간의 동요와 주저도 모르는 불
폭우에도 죽지 않고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 불

언제기초의 물줄기 터졌을 때
 비켜서라고 소리치는 로동안전원앞에
 한몸 그대로 타입물되어
 강물을 향해 뛰어드는
 무서운 활화산의 불이
 어랑천에 타번졌더라

아 나무와 석탄에 달린 불은
 꺼질수 있어도
 믿음이 달아준 불
 믿음을 불씨로 심장에 달린 불은
 식지도 꺼질수도 없다고
 광광 나의 흥벽을 두드려주는
 전투기록장이여 !

2. 사랑

전투기록장엔
 값높은 위훈들만 기록되더라
 땀을 바치고
 청춘과 심장을 바쳐
 한자한자 적혀지는
 전투기록장은 말그대로
 당과 조국앞에 드리는
 승리자들의 전파보고서가 아니었더나

허나 어랑천전투기록장엔
 위훈보다도
 사랑이 더 많이 적혀있구나
 사랑을 적자고
 세상에 태어난 책마냥...

때없이 부여주신 사랑
 밤이나 낮이나 어랑천을 안고사신
 위대한 태양의 사랑이 적힌
 전투기록장 갈피갈피를
 내 지금 가슴치며 번져가노라

×

한번 터지면
 주먹같은 돌들이 날린다는
 어랑천의 광풍을
 전투원들만이 맞았던가
 기록장엔 눈물겹게 적혀있구나
 11월 사나운 겨울날의 이야기가...

누가 알았으랴
 분과 초가 쪼개지는
 어랑천전투장에서도
 《작업금지》 명령이
 중대와 소대들에 다급히 전해진
 이런 날에 장군님 다시 찾아오실줄

하얗게 성예를 들쭉 야전차

차바퀴마다에 누런 감탕얼음들이
 덩이덩이 얼어붙은 야전차는
 곧바로 언제앞에 떴어선다
 차문이 열리고
 인민의 심장에 새겨진
 야전복차림의 우리 장군님께서
 성큼 내려서신다

오 언제여
 다시 오실 이 순간을 기다려
 소원의 키
 한치한치 높여왔건만
 눈보라 폭풍치는 오늘엔
 기쁨보다도 만세보다도
 뜨거운 눈물이 앞서는구나

일군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장군님의 안광은
 언제에도 빛발쳐가신다
 1년전 벼랑턱에
 예대로 걸려있는 언제전경도
 허나 지금은 까마득한 발치에
 그 전경도 떨거여놓고
 산악처럼 솟구친 대연제

뉘 알랴
 언제와 마주서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심중을
 언제에 스며든 땀과
 언제에 새겨진 소원과 갈망까지
 한가슴에 다 안아보시고
 쓸어 보시는것은 아닌지
 말갈기처럼 날뛰는 눈보라앞에
 번쩍 머리를 드시는 장군님
 우렁우렁한 음성
 대연제와 계곡마다에 부딪쳐 메아리친다

—대단하오, 대단해
 정말 장하오
 1년사이에 동무들은
 기적을 창조했소
 우리가 전쟁준비를 한다고
 제국주의자들이 떠든다는데
 이 어랑천 대연제를 보면
 눈이 뒤집힐거요
 하하하

짧았던가 길었던가
 어랑천의 1년이여
 힘겹고 빠져리던 고생도
 소중한 추억으로 봄물마냥 차오르는
 행복한 순간이여

눈내리는 정초의 아침부터
 다시 눈내리는 12월의 그밤까지

우리 장군님께만은
휴식날이 있었던가
명절날이 있었던가
우리 한껏 즐기던 명절의 밤
그밤에조차 병실의 텔레비존에서
가슴아프게 뵈옵지 않았던가
사계절이 다 지나도록
벗지 못하신 야전복차림으로
최전선고지에 오르시는 장군님 모습을

그러시고도
여기 북변땅 아들딸들이 흘린 적은 땀방울까지
소중히 마음속에 적서보시는 장군님
말하랴 언제여 물길굴이여
어랑천의 땀과 소원만으로
너는 솟구치고 뿜어졌던가를

지난해 가을날
어느 기계공장을 찾으시였을 때도
장군님 마음속엔 어랑천이 있었더라
최첨단유압굴착기앞에서
어서 어랑천에 보내주자고
어랑천의 등짐을 벗겨주자고
그리도 기뻐하신
장군님이 아니시였던가
무적의 근위땅크병들에게
굴착기 조향륜을 쥐여주시며
어랑천전투장에
혁명적군인정신의 폭풍을 일으키라고
최고사령관의 가슴치는 명령이 내려지고
북방의 천리산발 흔들며
우렁우렁 무쇠철갑굴착기 달려올 때
어랑천이여 말하랴
울었던가 웃었던가

차마 번지지를 못하겠구나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무거워진
기록장의 폐지폐지를
성벽같이 일어난 대언제의 높이
지심깊이 뻗어간 물길굴의 길이가
전투기록장이여 어쩌면
내 번져가는 사랑의 폐지폐지가 아니더냐
—자, 이 언제를 배경으로
우리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야
사진을 찍을 멋이 있지
장군님의 보폭 큰 걸음이
대언제 한복판으로 다가가신다

오 사람들이여
매일매일 당보와 텔레비존에서

그리도 자주 뵈옵는 장군님모습
병사들과 인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는 친아버지 그 모습

허나 이날의 사진만은
부디 다시한번 새겨보시라
온 조국땅이
뜨거운 환희와 감격속에 받아든
이날의 당보사진이
드세찬 광풍으로 해
온 전투장에 《작업금지》명령이 내려진
기습저린 날에 찍혀졌음을
전투기록장만이 내 심장에 속삭이는구나

콩크리트타입물이 얼지 말라고
얼기설기 가마니로 둘러막은 발전기실
수십리 떨어진 그 작업현장까지
다 돌아보신 때는
우중중한 팔향의 산발너머
그제야 빠르게 해가 얼굴을 내민 정오무렵

한초가 새로운 장군님의 시간
반나절이나 흘러간 어랑천의 시간으로
몸돌바를 모르는 일꾼들앞에
이제야 어랑천결음의 시작이런듯
장군님 말씀하신다
제기할것이 있으면 다 제기하라고
수천명 대원을 거느린 청년대장이
한번 말해보라고

없다고 거듭 말씀올리는
청년돌격대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왜 없겠는가
전선길을 달리다가도
이 사나운 겨울날에 언제를 쌓고
무릎치는 물속에 잠겨 굴을 뚫는
동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장군님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
세멘트를 마음껏 써보는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세멘트
세멘트라...

저 멀리 키를 솟구는
언제에 멈춰서신채
움직일줄 모르시는
아 장군님의 뜨거운 눈빛이여
아마도 생각하시리

방금 돌격대병실앞을 지나시며
한자두자 마음속에 새겨보신
그 어느 돌격대원이 지어
벽에 써붙였다는 소박한 시구절을

...

물길굴속 쏟아지는 석수와 돌가루속에
남모르는 격전을 벌리고
해빛 눈부신 밖으로 나와
우리는 서로 배를 그러쥐고 웃었네
누가 누군지 가려 못볼
얼룩진 얼굴들을 두고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우리는 생각했네
장군님 불러주신 어랑천전투장
이 전투장을 외면하고
만약 우리 얼굴들에
티 한점 묻지 않았다면
그 깨끗한 얼굴들이 오히려
장군님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것인가를!

...

그리고 생각하시리
대언제앞에서 열린
화선입당 세포총회
세포비서가 신입당원에게 했다는 말을
이 언제가
동무의 량심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비쳐주는
거울이라고
티없이 깨끗한 이 언제가
만년토록 맑은 거울이 되어
동무의 한생을 비쳐준다는
가슴치는 그 이야기를

이윽고 돌아서시는 장군님
격정에 호흡이 빨라지신다
—고맙소 동무들
세멘트와 강재
기름과 다이야까지 다 풀어주겠소
국방위원장의 명령으로
내 특별조치를 취해주겠소

줄줄이 흐르는 눈물에
두볼은 젖고
터지는 오열에 입술을 깨무는
일군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완공의 날에 다시 오겠다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아 뜨거운 사랑을 남기시고
조용히 떠나가시었다

펼 후날에야
차안에서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어랑천전투원들을 울린
장군님의 말씀이
이 전투기록장에 적혀있구나

—어랑천에 와서
큰힘을 얻고 갑니다
언제도 대단하지만
건설자들의 정신이
몇천배로 더 훌륭합니다
만난을 뚫고 솟구치는 저 언제처럼
우리 조국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으로 솟아 일어설것입니다

×

3년세월
값비싼 청춘의 한시절을 바쳐
황포한 대자연과 격전을 벌려온
불굴한 인간들의 노래 전투기록장
슬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환희도 있고 사랑도 있는
이 땀결은 전투기록장
마지막페이지에는
진리처럼 적혀있더라
심장의 고백이

—어랑천 대언제여
너의 기초에는
장군님 맞으신 7월의 불별이
만년토록 달아있고
너의 머리우에는
장군님 맞으신 11월의 눈보라가
억년토록 녹지 않고있거늘

물과 돌과 세멘트만이 아닌
땀과 소원과 량심이 더 많이 섞여
만년성벽으로 굳어진 대언제
이 승리한 건설자 첫 명부에
우리는 삼가 적어넣으리라
어랑천을 위해 온넛을 불태우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존함

차마 덮을수 없는
전투기록장을 안고
대언제머리우에 가슴을 대니
어디선가 들려오는듯싶구나
완공의 날에 다시 오실
장군님품에 행복의 눈물 쏟으며
어랑천이 아뢰이는 그 한마디
—장군님
어랑천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눈 빛

최 련

지금껏 나는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자기 한생을 묵묵히 바친》이라는 문장을 레사롭게 들어왔고 또 내가 쓰는 글에도 인용하곤 했다.

사회적평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 개인이 사회앞에 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고 찬양이며 고무인것이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된것은 수년전 어느날부터이다. 그날은 우리 시어머니의 70돐생일이 되는 날이었다. 대학에서 방학이 끝나고 방금 새학기가 시작된 때여서 휴가를 받을수는 없었다. 그날 나에게는 세번째 강의가 있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끝나는 강의인지라 나는 어찌했으면 좋을지 마음을 결정할수가 없었다. 늦어도 12시경이면 상을 차리겠는데 아무리 빨리 간대도 늦을수밖에 없을것이다. 강좌에서는 사정을 알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나는 동의할수 없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고심하여 써낸 소론문들에 대한 합평을 이번 토론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했기때문이었다. 그 때 론문들에 깃든 자기들의 소중한 꿈과 사랑, 창조가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하는 기대와 흥분의 눈빛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약속을 어길수가 없었다.

강의를 끝내고 조급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나의 눈앞에 자꾸만 노여움이 실린 얼굴들이 일튼거렸다.

시어머니는 몹시 엄한 분이였다. 40대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일곱자식을 키워냈으며 예순나이가 넘도록 직장생활을 해온 시어머니에게는 하나의 확고부동한 지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녀자는 녀자다워야 한다》는것이였다.

갓 시집온 막내며느리에게 신발을 단단히 신기려고 작성했는지 어머니는 나에게 늘 집안에 들어와서는 항상 기름기가 돌게 쓸고 닦고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직업이 있는것이다. 남들처럼 직장에서 끝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직장에서만아니라 집에 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인것이다. 그렇다고 그 직업으로 변명할수도 없었다. 나에게는 이 서로 다른 생활의 두 측면을 조화시킨다는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언제한번 어머니한테서 칭찬받은적이 없었지만 꾸중을 듣지 않는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수밖에 없었다. 밤늦게까지 부엌과 집안팎을 《기름기가 돌게》해놓고 방안에 들어와서 지친 몸을 창가에

기대고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면서 나는 (시집살이란 과학자든 교원이든 일군이든 녀자라면 꼭같이 겪어야 할 고비인게야.)하고 홀로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오늘같이 온 가정이 다 모이는 이런 때 막내며느리의 지각이 온 가문의 화제거리로 될가봐 그것이 나는 무엇보다 두려웠다.

불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현관복도에 들어서니 남편이 출입문앞에 나와 서성거리고있는것이 첫눈에 띄웠다. 남편의 얼굴에는 초조감이 짙게 서려있었다.

《상을 받으셨어요?》 나는 급히 물었다.

《아니, 어머니가 당신 온 다음에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자, 어서!》

《막내며느리가 왔습니다.》 시형이 반기며 소리치자 안방에있던 어머니가 전실로 나왔다. 그러나 나는 눈길을 들수가 없었다.

《막내가 왔니?》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막내》라고만 불렀다.)

가까스로 눈길을 들어 어머니를 보았을 때 나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지금껏 보아온 엄하고 팽성한 그 눈빛이 아니였다. 거기에는 따뜻한것이, 무언가 부드러운것이 조용히 가라앉아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짜릿이 퍼져드는 기쁨과 감사의 정을 느꼈다. 그래,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울렁이는 마음속에 물었으나 그 대답은 찾을수 없었다.

부엌에 나서니 시누이들이 저마다 반긴다. 그들에게서 질책의 눈빛은 찾아볼수 없었다.

《아유, 그만 손 적시지 말아요. 우리가 다 해냈으니...》

《좀 숨을 돌려요. 교원이 바쁘지요?...》

나는 우리 시누이들이 참 마음씨가 고운분들이라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어쨌든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천척들과 손님들이 다 헤어져간 다음 가족만 따로 모여앉았을 때 뜻밖에도 시어머니는 문쪽에 웅송그리고 앉은 나를 불렀다.

《<막내>야, 이리 온.》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 옆에 앉히더니 조용히 말을 떼었다.

《그새 힘들었지? ... 네가 밤새 불을 켜두고 책을 보고 쓰고 하는걸 내 다 안다. 난 네가 자기일을 그렇게 사랑하는걸 보니 기쁘더구나.》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그 따뜻한 눈

빛속에 한없이 넓은 리해의 바다, 사랑의 바다가 조용히 설레이고있다는것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어머니는 다시금 내 손을 꼭 잡아주더니 말을 이었다.

《모두들 우리 막내를 잘 도와주거라. 우리 집안에 지배인두 있구 과장두 의사두 있지만 과학자면서 교원은 <막내> 혼자뿐이야. 너희들두 다 나름대루 사업에서 보람도 있구 생활방식도 있겠지만 난 우리 <막내>가 제일 큰 일을 한다구 생각한다. <막내>는 너희네 자식들의 래일을 키워주고있거든. 그 일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두 어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나? 잘 도와주거라.》

그 순간 나는 눈곱이 뜨겁게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엄하고 두렵게만 느껴지던 시어머니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잘 리해하고있을 뿐아니라 집안의 궁지로 생각하고있었다는 사실은 나의 가슴속에 놀라움보다는 뜨거운 걱정과 파도를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팻팻하고 거칠지만 것처럼 부드럽게만 느껴지는 그 손의 따스한 온기가 내 마음에 흘러들어 눈물을 자아내었다.

시어머니는 지금 우리 곁에 없다. 그러나 그날의 그 눈빛은 내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힘든 고비마다 그 찬양과 고무, 기대의 눈빛은 나를 지켜보곤 한다. 때로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 따스히 애무해주고 위로해주기도 한다. 바로 그래서 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단을 떠날수 없었고 탐구를 버릴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 눈빛이 나에게 힘을 주고 열정을 주었던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은 결코 막내며느리를 응심깊이 리해하는 이 나라 평범한 한 녀인의 눈빛만이 아니였다. 그 눈빛에는 나를 키워주고 내 세워준 고마운 인민의 눈빛, 조국의 크나큰 기대

와 믿음의 눈빛이 담겨져있었다. 그 기대와 고무의 눈빛앞에서 절대로 헛되이 살수 없다는 자각이 탐구의 길에서 별처럼 빛났고 그 눈빛에 실리는 찬양과 감사를 생각하며 외롭고 힘겨운 순간에도 다시금 일어섰다.

그 눈빛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훈장이나 메달이 결코 따라설수 없는 높이에서 빛뿌리는 그 눈길을 심장으로 감득할 때 우리의 창조, 우리의 래일은 그 얼마나 아름다와질가. ...

나는 생각한다. 그 누가 보는데 없고 열광적인 박수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오늘의 선군시대에 사는 평범한 인간들이 지금껏 보지도 알지도 못한 영웅적기적과 위훈을 떨치는데는 바로 인민의 눈빛, 조국의 눈빛을 가슴속에 새길줄 아는 애국의 심장이 불타기때문이라고.

그렇다. 보이지 않는 눈빛이지만 삶의 매 자욱 자욱을 지켜보며 떠밀어주는 인민의 눈빛을 심장에 느끼는 그 순간에서 애국이 시작되고 창조가 나태를 펼친다.

조국이 우리를 바라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외진 산중의 눈덮인 초소에 있어도 병사의 총창은 그때문에 더욱더 서슬푸르게 번쩍이고 엄혹한 대자연의 광란과 싸우며 선군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저 백두산기슭의 청춘들의 심장들도 그 확신이 있어 더욱더 뜨겁게 타는것이 아니겠는가.

애국이란 결코 요란스러운 위훈 그자체만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눈빛앞에 부끄럼없는 생을 창조하려는 순결한 마음이기도 한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다짐하곤 한다.

내 한생 그 눈빛앞에 후회없이 살자 고마운 그 눈빛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가사

아 삼지연의 밤이여

리인봉

저 하늘의 빛나는 별들이 내렸는가
밀림속의 락원에 불빛도 밝아라
아 아름다운 삼지연의 밤이여
창가마다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네

백두밀영고향집 불밝은 지붕아래
행복의 추녀 잇고 락원이 솟았네

아 아름다운 삼지연의 밤이여
선렬들의 념원이 찬란히 꽃피었네

내 조국의 빛나는 래일의 그 모습을
황홀한 별천지로 여기에 펼쳤네
아 아름다운 삼지연의 밤이여
잠들수 없어라 이밤이 지새도록



박장광

1

석양이 기울어진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장들이 달리는 렬차의 꼬리를 쫓고있었다. 렬차에는 조선이 해방되자 조국으로 돌아가는 동포들로 꽉 차넘치고있었다.

객차칸은 말할것도 없고 승강대와 객차꼭대기 에까지 사람들이 하얗게 올라앉아있었다.

고생많은 이국땅을 떠나는 심정들은 한결같이 들뜨고 흥분된 상태였으나 때없이 멈춰서군 하는 데다가 굼벵이처럼 느리게만 느껴지는 이놈의 렬차를 타고서는 어느때 가서야 목적지인 시모노세끼까지 가겠는지 알수 없었다. 게다가 오끼노우라를 지나서부터는 을씨년스럽던 하늘에서 진눈까비가 퍼붓더니 끝내 사나운 눈보라를 몰아왔다.

수옥은 포단에 쏘아 어린아이를 꼭 부둥켜안고 갈수록 험악해지는 차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을 잡 시도 진정 못했다. 그는 자기품에 안겨서 잠에 든 어린것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애기에게 우유를 풀어먹일 더운물을 얻어야 했다.

어느덧 눈보라 휘몰아치는 바다기슭을 지나 험한 산줄기가 있는 계곡을 통과하고있던 렬차는 어느 한 긴굴속으로 들어갔다.

렬차안은 순식간에 암흑세계로 변했고 깨어진 창문으로는 매캐한 연기와 석탄가루가 마구 쏟아 들어와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켜지 못하였다.

이때 갑자기 어둠속에서 구원을 청하는 아녀자들의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렬차안에 숨어있던 렬차강도들이 일시에 승객들한테 덮쳐 들었던것이다.

수옥이도 한 사나이의 몸이 자기를 덮치고 거 کل진 손으로 아기를 안고있는 품사이를 들이밀어 마구 헤집는통에 질겁해서 비명을 올렸다.

전후 일본에서는 렬차강도들이 성행했다. 더우 기 귀국의 길에 오른 조선동포들이 탄 렬차들에

서는 더 심했다. 강도들이 흥기를 빼들고 덤벼들 어서는 그들이 한푼두푼 모아 마련했던 러비들을 강탈해갔으며 더우기 연약한 녀인들한테 달려들 어서는 별의별짓들을 다 해댔다.

이것은 패전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사회적혼란 이라기보다 패망한자들의 복수심리가 작용한 테 로행위였다.

이런 판에 구원을 청하는 녀인들의 웨침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때였다. 수옥을 덮치고 씨부렁거리던 강도놈 의 입에서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쏟아져나오 더니 순식간에 손땀을 흘리고 둔중한 몸이 렬차복 도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것이였다. 누군가 강 한 힘으로 그자를 타격한것이였다.

그것은 실로 눈감박할새에 벌어진 일이였다.

이윽고 렬차가 긴 굴을 벗어났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렬차안을 둘러보 며 눈이 휘둥그래졌다. 한놈의 강도만 쓰러졌는 가 했더니 두놈의 강도가 자빠져 신음소리를 내 며 덩굴고있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한동안 술렁거 렸다.

그러나 강도들을 한주먹으로 때려눕힌 용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도들이 비실비실 나간뒤 이 번에는 수옥이가 안고있던 아이가 차칸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울어댔다.

혼잡통에 놀라 잠을 깬것이였다.

수옥은 진땀을 흘리며 달렸으나 막무가내였다. 렬차안은 또다시 소란해졌고 비난의 목소리가 터졌다.

《애에미라는게... 아가리를 틀어막어!》

《쥐새끼같은걸 차창밖으로 집어던져.》

침략전쟁에 출전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일본군패잔병 한무리가 객차칸 한구석에 몰려앉 아 술을 치며먹으며 하는 소리다.

수옥은 조선사람들을 모욕하는 패잔병놈들의 악담에 얼굴이 달아올라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때 맞은편 좌석에서 쉼표 좋게 코를 끌고있던 사람이 수옥을 두둔해나섰다.

《여보시오. 사람을 모욕하지 마오! 우리도 저에만할 땐 울며 컸다는걸 생각해야지요.》

허름한 누린 군복차림에 어깨가 실하고 두눈에 젊음과 지성이 넘치는 청년이었다.

일본군괘장병놈들은 범상치 않은 젊은이를 보자 입을 다물었다.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방금전에 있었던 렬차 강도들처럼 호된 징벌을 당할가봐 두려웠던 것이다.

청년은 속상해 안절부절하는 수옥의 애리애리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싱긋 웃었다.

낮선 사나이의 눈길을 감축한 수옥은 얼굴을 붉히며 그를 바라보았다.

제품에 안겨서 낮선 사람을 눈물고인 눈으로 뵈히 올려다보며 입을 삐죽삐죽 내밀며 울음을 참고있는 어린것을 본 수옥은 설음이 북받쳐 그만 흑 하고 어깨를 떨었다.

젊은 청년은 놀랐다.

《무엇때문에 그러오?》

《우유를 먹여야 할텐데 어디서 더운물을...》

《걱정마오. 내가 더운물을 얻어봅시다.》

수옥에게서 빈 물통을 받아가지고 그는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수옥이를 웅색케도 하고 도와나서기도 한 그 청년의 이름은 김태삼이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도쿄 게이오대학에서 고학생으로 의학공부를 했다.

학생때 그는 대학적으로 소문난 격술명수로서 일본인학생들을 벌벌 떨게 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 열기를 머고있던 때에 징모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끼나와섬에 있는 대피호공사장에서 혹사당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동포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처음 그는 동료들과 함께 놈들의 순시정을 빼앗아타고 곧장 바다 건너 조국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태삼은 생각을 달리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조선동포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칼에 맞고 살해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귀국을 미루었다.

그는 시모노세키에 남아서 동포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나섰다. 그는 동포들을 묶어세워 일본반동놈들과 대결하는 한편 각지에 있는 조선동포들과 편계를 취하기 위하여 도쿄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더운물 한고뿌쯤 얻는것도 생각밖에 난감한 일이었다.

그는 일반객차칸 맨뒤까지 와서는 눈보라치는 승강대박을 내다보며 무거운 한숨을 토했다.

어둠이 한껏 내려앉은 바닷가습을 돌고있는 렬

차뒤를 바라보던 김태삼은 보이지 않던 두개의 객차칸이 더 달린것을 보고 놀랐다. 그 객차칸에는 불이 환히 켜있었다.

《저 방통엔 어떤 사람들이 타고있소?》

《미군장교들이 타고가는 특수객차요. 방금 지나온 역에서 더 달았대요.》

《미군특수객차?...》

김태삼의 머리속에는 그 객차에 식당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혹시 거기 가면 더운물을...)

렬차가 다음역에 들어서기 바쁘게 김태삼은 뛰어내려 특수객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불켜진 차안에 눈을 팔며 반달음치던 그는 승강대에서 미군놈이 불쑥 내대는 총구에 흠칫 놀랐다.

《서라, 어디로 가?》

태삼은 그놈을 향해 빈 고뿌를 보이였다.

그리고 류창한 영어로 자기가 찾아온 사연을 설명했다. 그자는 태삼의 영어솜씨에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으나 원래 성질이 거친 놈뎡이었다.

그놈은 껌을 질경질경 씹으며 뇌까렸다.

《더운물! 어린 생명? 우리 병사들 그런건 몰라. 어서 제칸으로 가!》 하며 총구를 들이대였다.

김태삼이 놀라 한걸음 물러섰을 때 그놈의 등뒤에서 차림새가 단정하고 철색이 도는 얼굴에 일본해군장교복을 입은 젊은 사나이가 복도의 불빛을 등지고 불쑥 나타났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퍼런 지폐 한장을 꺼내여 월슨의 손에 쥐여주었다.

《사카모또, 당신은 일본군장교치고는 피상한 사람이요. 당신한테 어쩔수 없구만...》

《패전국장교의 감상주의로 생각하구려.》

뜻밖의 호의에 태삼은 얼떨떨해졌다.

《저자들한테 팔라면 만능의 통과중이요.》

일본군장교인 사카모또라고 불리운 그 사람의 입에서 능숙한 말투의 조선말이 흘러나오자 태삼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갓 견장을 땀 일본군장교복차림의 그는 태삼을 세워둔채 안으로 사라졌다.

태삼은 기웃이 렬차안을 들여다보았다. 여태껏 보지도 못했던 호화로운 객차칸이었다. 연하고 부드러운 불빛아래서는 미군장교들만이 아니라 패망한 일본군장교들도 몇명이 식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너나없이 어깨에 붙은 견장과 목깃에 박은 계급장들을 뜯어낸 시누린 군복에 턱수염을 더부룩하게 자래운 낮썹들이었으나 취기가 오른 벌거우리한 눈빛들만은 사납게 번뜩이였다.

식탁우에는 위스키며 흑맥주병들이 놓여있었다.

그자들을 보는 순간 태삼은 일체침략군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당한 동족들의 피비린내가 확 풍

겨오는듯싶어 얼굴을 돌렸다.

이런 인간도살자, 전범자들을 특수객차에 태우고 환대하는 미군의 속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맥아더사령부가 세상에 대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 《군벌해체》와 《전범자치벌》이란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이란 말인가!

태삼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때 사까모또가 낡은 보온병을 들고나왔다. 태삼은 보온병을 받아들며 묻는듯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겠소. 미군이 어디로 끌고가는지. 일본군의 한다하는 두뇌진이며 전문가들만 끌라 대접하는걸 보니 죽이지는 않고 씹먹자는거겠지.》하고 그는 말머리를 돌리었다.

《아까 나는 당신의 영어발음을 듣고 조선사람인줄 알았소. 조국으로 가는 길이겠지요. 안해와 어린애를 데리고... 귀국을 축하하오. 부럽구려...》

태삼은 왜서 그러는지 그의 결을 인차 뜯수가 없었다. 그의 몇마디의 말과 철색의 얼굴에 어린 쓸쓸한 표정이 한순간에 곡절많은 그의 운명을 말해주는듯싶었다.

《이 보온병을 나의 성의로 받아주오. 내가 포로생활할 때 쓰던것이요. 이제는 이 물건도 쓸데가 없게 되었소.》

태삼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신세를 지고 헤어지자니 어쩐지 허전합니다. 이름이라도 서로 나누고 헤어지면 고맙겠습니다.》

《내 이름이요? 하잘것없고... 국적도 없는 사람의 이름이나 알아선 뭘 합니까. 지금은 패전국장교에 불과합니다. 혹시 운명이 달라져 다시 만날 수 있겠는지는 몰라도...》하고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허구뜨게 웃었다.

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잘 가시오, 동포!》혼자 입속말로 뇌이며 그는 눈발이 날려드는 승강대에서 떠날줄 몰랐다.

그는 조선청년 최길이었다.

2

이즈모지방의 첫눈은 눈보라로 바뀌어 미구에 닥쳐올 사나운 겨울을 예고하듯 숲을 마구 뒤흔 들고있었다. 최길은 두줄기의 철길을 달리는 렬차의 긴 꼬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금은 한궤도를 달리고있지만 자기와는 다른 운명의 길을 가고있는 동포들을 태운 앞렬차칸, 비록 불빛 한점 없고 더운물 한모금 얻을수 없는 보잘것 없는 객차칸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동포들이 모여 혈육의 정을 나누고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다리는 조국이 있다고 생각하니 불시에 눈곱이 저려났다.

최길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국이 자기를 버린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국을 등졌기때문에 동족이 타고가는 그 길을 갈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패전군의 군복을 입고 전범자들과 함께 끌려가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

그는 어릴 때부터 태를 묻은 고향의 푸른 바다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소년시절부터 바다를 정복하는 해양학자가 될 아름다운 꿈을 길렀고 그 꿈을 실현해보려 현해탄을 건너 이미 일본땅에 정착하고 살고있는 고모를 찾아갔다. 그때는 이미 고모가 일본남자와 결혼하고 국적을 바꾼 후 일본인행세를 하고있을 때였다.

《잘 결심하고 왔다.》

고모는 조카를 부둥켜안고 말했다. 최길은 고모의 사심없는 후원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말그대로 이악하게 공부하여 누구도 범접 못할 조선청년의 인격과 권위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넋을 빼앗긴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그의 꿈은 한순간에 깨여지고 그는 해군사관학교로 징모되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 청춘의 꿈을 키우려 힘을 모아 닦은 해양학의 지식도 조선청년의 뛰어난 두뇌도 한갓 침략전쟁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나라를 빼앗긴 조선사람에게는 어디 하소할 곳도 없었다.

최길은 뒤늦게야 그것을 체험했고 깨달았다.

(아, 그때 왜 그 녀자가 눈물로 애원하던 길을 따르지 못했던가. ...)그는 가슴을 찢는 아픔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는 화염에 휩싸였던 무인도가 떠올랐다. ...

일제패망을 한해 앞둔 때였다.

일제는 련전련패하며 전 전선에서 퇴각을 거듭하고있었다. 최길이가 속한 야마나시해군함대는 태평양의 어느 한 섬을 향하여 항행하고있던중 본토로 급히 되돌아오라는 긴급명령을 받았다.

미제의 악명높은 살인장군 맥아더가 섬 하나씩 탈취하던 전술을 버리고 전략적요충지를 들이친데 이어 일본본토와 오키나와섬 공격작전을 서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무렵 일본본토는 미군비행기의 공습을 받아 도시와 마을들은 불길에 휩싸여있었다.

사태가 절망적이었지만 호전적군부세력은 《최후결전》을 부르짖으며 군대와 국민들을 무모한 류혈전으로 내몰았다.

최길은 본토수역에 들어서자마자 미군함대들의 침로로 가상되는 몇개의 무인도를 목표로 실탄사격훈련을 하여 함성원들의 저락된 사기를 올리라

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오른 전투함은 함장이하 많은 성원들이 루쑈섬전투에서 즉사하고 배도 손상을 입었다. 남태평양수역에서 본토까지 배를 끌고올수 있는 항해기술과 능력을 소유한 장교는 최길밖에 없었다.

하루밤사이에 계급장이 올라가고 평범한 기술 장교로서 대리함장으로 된 최길은 이번 실탄사격 훈련에서도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리라 단단히 결심하고 자기 항을 무인도로 몰아갔다.

질은 안개를 헤치며 난바다물결을 타고넘으며 전진하는 배갑판우에서 망원경렌즈안에 다가오는 섬을 목표로 당장 사격구경을 내리려던 최길은 놀랐다. 안개속에서 네댓명의 처녀들이 섬기슭 바위주변을 맴돌고있는것을 발견했다.

모두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스무살안팎의 처녀들이었다. 바구니를 들고있는걸 봐서는 조개와 섬 등 해산물이 많이 나는 이 섬에 쪽배를 타고 건너온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최길의 머리속에는 섬과 마주하고있는 본토대안에 조선에서 끌려온 조선인인부들이 많이 살고있는 조선인부락이 있다는 생각이 편뜻 떠올랐다.

최길은 흥건히 내뺨 이마의 땀을 훔치며 사격을 잠시 뒤로 미루게 했다. 그리고 구명요트를 내리게 하고 배를 몰아 섬으로 갔다. 시간은 몇 분밖에 없었다.

섬에 오른 최길은 처녀들이 몰려있는 너럭바위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여기서 뭇들 하고있는거요? 빨리 이 섬에서 빠지시오!》

당장 옷을 벗고 무잠이질차림으로 바다물에 뛰어들려던 처녀들은 갑자기 나타난 최길을 보고 기겁을 하며 주저앉았다.

이때였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너슬너슬 물기에 젖은 해파리 한마리가 썩 하고 날아와 최길이 쓴 전투모우에 철썩 붙었다.

《호호호...》

주저앉았던 처녀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악이 오른 최길은 한순간에 해파리를 뜯어내쳤다. 그리고는 《누구야!》하고 창황중에 조선말로 웨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 말에 처녀들은 놀랐다.

방금 솟아오르는 아침노을을 받아 금빛으로 잔물결치는 물가에 사뿐히 내려선 한 처녀가 바위우에 올라선 그를 쏘아보고있었다.

바다바람에 가무스름하게 탄 가름한 얼굴에 날씬하고 단단한 몸매며 진하고 가느스름한 눈썹아래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다.

최길은 한순간 정신을 버쩍 차렸다.

《아가씨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 섬은 일

본군함대의 포사격구역안에 들어있소. 거절 보시오》하고 그는 바다우에 떠있는 수십척의 함선들을 가리켰다.

그제야 처녀들은 바다우에 떠있는 함선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았다.

함선은 무인도를 향해 포문을 돌려대고있었다.

《아이구머니야! 사람 살려요.》

처녀들은 경악을 해서 바구니를 집어던진채 나무가지들과 바위우에 벗어놓았던 옷가지들을 급히 걷어가지고 섬뒤쪽 쪽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날 최길은 함대사령관앞으로 불리워갔다.

야마나시중장은 지휘함 《사구라마루》호의 갑판우에 접이식결상을 내다놓고 그우에 퍼더앉아 최길을 심문했다.

《사카모토, 너 조선계집들이 몇이 있는것때문에 사격을 중지시켰다는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최길은 고개를 외로 틀며 대답하였다.

《전시군법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있겠지?》

총살이었다.

최길은 자신의 운명을 각오하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조선처녀들과 만났던 일을 잊을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한목숨과 네댓명의 처녀들의 생명과 바꿨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았다.

야마나시는 면도를 하지 않아 수팔송이처럼 턱수염이 수북이 덮인 턱을 썰룩이며 날카로운 눈매로 그를 쏘아보았다.

죽음과 삶의 계선이 갈라지는 이런 때에는 한다하는 일본군 사나이들도 두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조선인청년장교는 결코 용서를 빌지 않았다.

야마나시는 그것이 패썬했다.

그는 조선청년의 침착성과 태연성에서 조선민족의 도덕적순결성과 강의성을 엿보았다.

그것을 뒤흔들어놓고 꺾어야 했다. 꺾어놓을 방도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는 최길이라는 조선청년의 그 강의성을 잔인한 방법으로 꺾어놓을 생각을 했다.

《네놈이 조선인아녀자들의 생명때문에 내 명령을 무시하고 대일본제국의 군법을 거역한것은 저<히노마루>에 깃든 야마도의 정신을 물랐기때문이야.》하고 지휘함에 필력이고있는 일장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뇌까렸다.

《일본군의 해외파병의 첫걸음도 조선이었구 일본제국의 번영과 발전도 조선강점에 있었다.

나도 젊었을 때 총창에 <히노마루>를 꽂고 조선에서 싸웠다.

그런데 너는 그 몇명 안되는 계집들의 생명때문에 일본군군통을 우롱했어. 다른 일본군장교라

면 제식대로 총살을 해서 유골을 고향에 보내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는 홀몸뿐이니 네가 구원해준 조선년들대신 우리 함대의 사격목표가 되어야 해.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 함대함선의 포신은 네가 있는 무인도로 포문은 열고 불을 토할 것이다. 네가 살아남으면 다시 우리 함대에 태워줄 것이다.》

그것은 그가 다시 살아남게 된다면 제놈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수 있다는 타산에서였다. 그리고 최길이가 포화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선인장교 하나쯤은 그리 아까울것이 없다는 생각도 했던 것이었다.

최길은 그날 밤으로 무장해제되어 섬으로 호송되었다.

밤은 깊었다.

최길은 너럭바위앞에 웅크리고앉아 쪽잠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나무가지에 걸려 펄럭이는 너자의 웃고름을 발견했다.

무서운 퇴성과 죽음이 다가오게 될 이 시각에 눈앞에 펄럭이는 한오리의 흰 웃고름은 삶을 단념했던 그의 심장에 무엇인가를 속삭이며 부르는 것 같았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어제 아침 처녀들이 쫓겨내려갈 때의 일이 되살아났다.

그때 자기에게 해파리를 집어던지며 항의했던 초생달눈썹의 처녀만은 쫓겨가면서도 나무가지에 걸어놓은 자기 웃고름을 벗기지 못해 안타까이 발을 동동 굴렀었다.

그는 나무가지에 걸린 웃고름을 벗겼다. 최길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건져줄 호신부처럼 생각되었다.

이윽고 수평선위에 해가 한발이나 되게 솟아올랐다.

최길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섬을 둘러싸고 육박해오는 야마나시함대를 맞받아 앞으로 걸어갔다 수십척의 함선과 수백문의 포신을 단신으로 맞선 그는 한오리의 흰 웃고름밖에 손에 건 것이 없었다.

(좋다. 어디 해보자. 왜놈의 종자들아. 조선의 녀은 죽지 않는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거센 반항심이 치솟아올랐다.

함선들에서는 일제히 포화를 내뿜기 시작했다.

3

말끔히 씻은듯이 말쑥한 동근달이 바다위에 떠올랐다. 한척의 쪽배가 물결우를 오르내리며 섬쪽으로 건너오고있었다. 용암처럼 뜨겁게 달아오르

며 화염속에서 몸부림쳤던 무인도도 달빛속에서는 밤바다의 고요속에 잠들고있었다.

수옥이는 순찰선이 나타나면 골장이라는 불안감에 가슴을 조이며 배를 조심조심 몰아갔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준 조선인청년장교가 함포사격의 산 목표물이 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섬경찰에게서 들었다.

불기둥이 솟구쳐오르는 무인도를 가슴을 움켜쥐고 바라보던 수옥이와 바다가처녀들은 일본군대의 무서운 형벌과 잔인성에 치를 떨었다.

포성이 멎고 날이 어둡자 수옥이는 다시는 얼씬하지 말라는 경찰의 눈을 피해 쪽배를 저어 무인도로 왔다.

《살아있거나 하겠는지.》

포탄파편에 맞아 죽어나부러진 갈매기며 물고기들의 찢겨진 형체들이 너저분한 섬기슭의 풍경에 겁을 먹은 수옥이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부서져나간 섬기슭바위부근과 골짜기들을 살살이 뒤지고 또 뒤졌다. 그때 섬 서쪽 비탈진 곳에서 바람소리에 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쪽으로 다가가던 수옥은 바위아래에서 잔물결치는 바다물에 잠겼다가 떠오르곤 하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였다. 얼굴과 온몸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다가 불에 그슬린 바지가랭이며 옷소매는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아마 옷에 달린 불을 끄느라고 바다물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었던것 같았다.

수옥은 허둥지둥 달려가 최길은 물속에서 건져내다 섬기슭의 평퍼짐한 곳을 끌라 눕혔다. 그리고는 혼몽속에서도 물을 찾는 최길의 목소리에 쫓기듯 가지고왔던 보통이에서 물병을 찾아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

정신을 잃고 신음하던 최길은 맑고 시원한 샘물이 목구멍에 흘러드는 차거운 감각에 눈을 떴다. 안타까운 눈길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는 녀인을 보았다. 그 녀인은 이틀전에 섬에서 만났던 그 처녀였다.

그는 몽롱한 의식속에서 그렇게도 듣고싶었던 조선말을 들었다.

《정신이 드세요?》

얼마후 자리에서 일어난 최길에게 수옥은 이 섬을 탈출하여 본토대안기슭에 있는 조선인부락으로 가자고 간청했다.

《내가 설사 이 섬을 벗어난다 해도 가면 어디로 가겠소. 도피자로 락인찍혀 죽느니 사나이로 여기남아서 내 운명과 떳떳하게 맞서고싶소. 함대사령관이 나의 시체라도 꼭 찾을거요.》

《그걸 믿지 마세요. 일본은 멸망직전에 있어요. 어서 나와 함께 떠나요.》

수옥은 최길의 손을 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최길은 빙그레 웃으며 자기 품에 건사했던 저고리웃고름을 꺼냈다.

《아가씨, 어쩐지 나에게는 나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이 웃고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군 하오. 나도 아가씨를 따라가고싶소. 하지만 여기는 일본땅이요. 내가 어디 가든 왜놈들은 나를 찾아낼것이요. 그러면 나는 물론 아가씨까지도 목숨을 잃을수 있소.

왜놈들이 어떤 놈들인가는 잘 알테지요. 내 혼자의 목숨이 뭐라고 아가씨까지 위험에 빠뜨리겠소?》

수옥은 그의 손에 쥐어져있는 자기 웃고름을 보자 머리가 숙여졌다.

《전 당신을 이 섬에 혼자 두고 갈수 없어요. ...》
최길은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고맙소. 거들 말하지만 아가씨를 따라 바다 건너 이 세상 어디라도 가고싶소 하지만 그건 피차간에 피로움만 남길거요. 이 못난 사나이를 위해준 아가씨를 잊지 않겠소. 어서 여길 떠나주요.》

《고림 좋아요. 결심대로 하세요. 저도 함께 있겠어요.》

수옥이는 자기의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끼며 말했다.

생사를 같이하겠다고 남은 너자, 래일이면 또다시 죽음의 불도가니로 끌려가야 할 사나이를 위해 섬에 떨어진 처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동안 자신을 다잡지 못하던 최길은 처녀가 펼쳐놓은 음식보통이와 물병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 다음날 미군함선들이 일본 남쪽수역에 나타났다.

야마나시함대사령관은 섬에 대한 수색도 못하고 함대를 이동시켰다.

멀리 수역에서는 격렬한 해전이 벌어졌다.

런 사흘동안이나 포성과 함께 낮에는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르고 밤에는 섬광이 번뜩이었다.

포성이 뜸해지자 수옥은 쪽배를 타고 본토대안으로 건너갔다.

수옥은 먹을것과 입을것을 가지고 인차 돌아올것을 약속하고 또 떠나갔던것이다.

바로 그날 일본해군폐잔병 수십명이 무인도에 올랐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패전한 야마나시중장은 자결을 선포하고 지휘함상실에 혼자 남았다고 했다. 무인도에 미군수색정이 왔다.

최길은 수십명의 일본군폐잔병들과 함께 미해군에 포로되었다. ...

생각에서 깨어난 최길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렬차는 어느 산간역에서 멈춰서고있었다.

불이 꺼진 앞객차를 바라보던 최길은 문득 아까 만났던 조선청년이 생각났다.

한모금의 더운물을 얻으러 이 혼잡통을 뛰어다니다니 그가 못내 대견하게 생각되었다.

(한번 만나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

겠지. ...)

최길은 그들이 안고간다는 애기에게 불현듯 생각이 미치였다.

《안으로 들어가시오.》

월슨보초의 목소리에 문을 열고 객차안으로 들어서려던 최길은 차갈이를 하느리고 렬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자리에 굳어져 역구내를 둘러보았다.

그가 탄 두개의 특수객차는 어느새 분리되어 서서히 인입선에서 빠져나가고있었다.

두개 특수객차만 단 기관차가 기본선에 들어서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때 최길은 맞은편 객차의 차창가에 앉아있는 아이를 안고있는 녀인의 모습을 띄여보았다.

순간 최길은 《앗.》하고 놀라며 제 눈을 의심했다. 아니, 분명 수옥이었다.

《수옥이!—》하고 찾으며 그는 속도를 높이는 렬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보초병이 그의 뒤덜미를 잡아끌며 총구를 내대었다.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최길의 심장은 놀뛰었다.

수옥이가 안고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일수 있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 운명적인 나날은 짧았으나 사랑은 뜨거웠다.

최길은 수옥이와의 사랑도 무인도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이를 안은 수옥이를 다시 본 순간에는 단념했던 사랑도 삶도 다시 이어질수 있다는 믿음이 가슴속에 불타오름을 느끼었다. 더우기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현실은 그 믿음을 더욱 확고한것으로 가슴속에 자리잡게 해주는것만 같았다.

렬차안으로 들어온 최길은 급히 고모에게 전보문을 썼다.

도쿄 무사시노 하라노촌 시노하라 게이코앞.

이 전보문을 받은 즉시 시모노세끼항에 가서 조선으로 출국하려는 조선인녀인 김수옥(당년22세)과 그 아이를 찾아 돌봐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생명이며 사랑의 전부입니다.

꼭 고모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조카 최길 올림

최길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 월슨에게 주면서 전보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 경솔한 처사가 어떤 불행을 낳게 되리라는것을 최길은 알수 없었다.

4

최길이 후미코와 함께 도쿄교외에 있는 고모네 집으로 향한것은 따뜻한 봄별이 쏟아져내리는 어

느날 오후였다. 근 3년만에 밝아보는 본토였다.

그동안 최길은 미군포로수용소에서 전범자수용소로 이관되어간다는 미명하에 특수렬차와 배를 타고 외계와 차단된 어느 한 외진 섬으로 실려갔다. 여기서 최길은 미국동군사령부가 극비밀리에 진행하는 조선동서해안에 대한 해도작업에 일본인 전문가들과 함께 동원되었다. 그들에 대한 실제적 책임자는 미군사고문 드레이조소장이었다. 장차 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야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드레이조소장은 그들에게 조선동서해안에 대한 실제적인 답사도 하게 하고 구일본군해군성에서 입수한 자료들까지 전부 넘겨주면서 해도의 완성을 감시통제했다.

근 3년세월이 지난 끝에 일을 일단락 지은 최길은 어제 밤 드레이조에게 고모를 만나게 해줄것을 요청했었다. 사실 해도작업에 착수하던 초시기 최길은 드레이조에게 이 요청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 드레이조는 최길을 따로 불러 해도작업만 잘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적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 최길은 고모와의 면회허락과 미군태평양해양탐측소 연구생으로 임명한다는 드레이조소장의 명령을 후미꼬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도작업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지은데 대한 《표창》이라고 후미꼬는 덧붙여 말해주었다.

후미꼬는 미국동군사령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고있는 일본인녀성이었다. 최길은 포로수용소에서 전범자수용소로 가는 특수렬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그 녀자와 접촉하여 가까와졌다.

후미꼬는 능숙한 영어실력과 아름다운 용모로 하여 미군고위장성급들속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다.

차를 타고 오면서 후미꼬는 최길에게 여러가지 《한담》을 들려주었다. 그 《한담》들중에서 최길의 관심을 끈것은 남조선에서 곧 미군에 의해 단독 《정부》가 서게 될것이며 《국방군》이 조직될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구일본군에 복무했던 조선인장교들중 일본땅에서 자취를 감춘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길은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으로 좌절되었던 어린 시절의 꿈과 포부를 해방된 조국땅에서 마음껏 펼쳐보리라던 기대가 허물어지는것만 같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고 고모가 살고있는 집앞에서 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려 대문앞에 다가선 최길은 가지가지의 추억과 감회에 잠겨 한동안 자신을 잊고 서있기만 했다.

그 시각 고모는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정원루각에 올라가 따뜻한 봄볕에 취해있었다.

서울장안에서 한다하는 명문집 딸로 태어나 부럼없이 자라온 자기가 어떻게 되어 이 일본땅에 인생의 닳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로서도 잘 알수

없는 운명의 회룡이라고만 생각하는 고모였다.

부귀와 영달로 무궁하리라고만 믿어오던 자기의 생활이 전쟁열에 환장한 일제로 하여 남편을 잃고 패전과 더불어 원자탄의 피해까지 입어 모든것이 풍지박산이 났다.

몇해전에 남태평양전선으로 출전했던 조카는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

나무도 가지가 있고 산에도 자매산이 있건만 혈육 하나없이 부귀영화를 찾아 사랑하는 조국과 고향산천을 버리고 온 죄 누구탓이나...

이런 회한으로 가슴을 저미고있을 때 누군가 《고모!》하고 부르는 소리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고모라니?!... 이 늙은걸 고모라구 이 땅에서 불러줄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지 않는가!...)

그는 총계로 내려서며 소리난쪽을 돌아보았다. 서둘러 돌총계를 뚫아오르며 자기한테로 다가오고있는 일본군장교복을 입은 젊은이는 분명 조카 최길이었다. 그뒤에는 몸에 맞게 미군장교복을 입은 젊은 녀자가 손가방을 손목에 걸친채 뒤따르고있었다.

《네가 살아서 내곁으로 왔구나. 이게 얼마만이냐?》

고모는 최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몸을 떨었다.

《고모!》

몰라보게 늙은 고모를 부여안고 최길은 눈물을 흘렸다. 일찌기 부모없는 어린 최길을 친자식처럼 길러준 고마운 고모...

최길은 걱정을 애써 누르며 고모를 진정시켰다.

《저기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내 정신봐라. ... 누구냐?》

고모는 눈곱의 눈물을 닦아내며 의미있는 어조로 물었다.

《후미꼬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제야 고모는 앞뒤를 짐작했는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다잡았다. 고모는 후미꼬와 인사를 나누고나서 그들 두사람을 루각으로 이끌었다. 그러자 후미꼬는 두사람이 할 얘기가 많겠는데 자기는 정원산보나 하겠다면서 떨어졌다.

고모와 함께 루각으로 올라온 최길은 그동안 고모의 일신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으며 시노하라교수가 일본헌병대놈들의 손에서 비명에 목숨을 잃었다는 말에 아연해졌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일제의 패망으로 행방을 알길 없었던 교수가 뜻밖에도 한줌의 재가루가 되어나까노 미쓰시마의 산속에 있는 유골함속에 보관되어있다는 기별을 받고 고모는 집을 떠났었다.

그곳에서 남편의 죽은 사연을 들은 고모는 그 자리에서 까무라쳤다.

미쓰시마에는 태평양전쟁발기 《천황》의 거처와 전시최고통수부를 지하에 둘 목적으로 군부가 막대한 자금과 로력을 총동원하여 건설한 지하시설

물이 있었다.

시노하라교수는 설계가의 한사람으로 비밀지하 시설물건설에 참가했었다. 건설에 참가하면서 그는 조선사람들에게 감행되는 끔찍한 학살만행과 소름끼치는 야수적인 살해현장을 직접 목격하던중 더는 참을수 없어 놈들에게 항거해나섰다. 일본헌병대놈들은 교수를 독감방에 가두고 《치료》하다가 《비밀루설》이라는 구실로 그를 굶겨죽였다는 것이다.

최길은 남태평양상에 있는 섬들에서 있는 일본군병사들의 식인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도 있었으나 다시금 접하게 되는 놈들의 잔인성에 또 다시 가슴속에서 울분이 치솟아오름을 어찌할수 없었다.

한동안이 지나서 최길은 정원을 거닐고있는 후미꼬쪽을 살펴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고모. 내가 보낸 전보를 받았어요?》

《음, 받구말구. 그래 사람을 시모노세끼에 보내 그 녀자를 데려왔었지.》

《그래서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길이 다우쳐묻는 말에 고모는 놀라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데 있다니?! 너한테로 보냈지.》

《예?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챈 고모는 생각을 더듬으며 말했다.

아이가 귀엽더라는것, 보름나마 정이 들었었는데 하루는 푸른색 승용차를 타고 두사람이 찾아와 최길이 찾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갔다는것이였다.

깜짝 놀란 최길은 억이 막혀 말없이 고개를 꼭 숙이며 곧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떠나다니? 네가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나?》

《고모...》

최길은 다음말을 잊지 못했다. 이때 어느새 루각우로 올라온 후미꼬가 나서며 웃음을 지었다.

《고모님, 용서하세요. 사까모또씨는 오늘 밤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후에 하세요.》 하고 껍듯이 고개를 숙여보였다.

최길은 정작 고모와 헤어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고서도 차에 오를념도 못하고 눈물이 글썽해서 고모를 바라보았다.

(언제 만나게 될지... 아니, 살아생전에 다시 만나게될 날이 있을까?)

서글픔이 가슴을 조여들었다.

그날 밤이 이슬하여 후미꼬는 최길이 든 방에 찾아왔다.

그 녀자의 입에서는 술냄새가 풍기고있었다.

후미꼬는 비칠거리며 말했다.

《사까모또씨, 저를 돌봐주세요.》하며 그 녀자는

최길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최길은 빙그레 웃었다.

《후미꼬, 당신은 패전국의 녀성같지 않소.》

《저에 대한 찬사인가요, 아니면 비난인가요.》

후미꼬는 곱지 않은 눈길로 흘겨보며 몸을 떨었다.

《당신이 부러워서 하는 말ियो. 어디서 그런 용기와 대담성이 솟어나오?》

그 녀자는 술잔에 술을 부어 단숨에 비워버리더니 간드러지게 웃었다

《사까모또씨, 남자가 뭘 그리 시시해요.》

《당신은 드레이조소장이 신임하는 통역관이 아니요.》

녀자의 숨소리가 높아지자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래도 후미꼬는 최길의 손을 잡아 눌러 앉히었다.

좀처럼 놓아줄 기세가 아니다.

《후미꼬, 나에게는 안해가 있소.》

《안해?!》

후미꼬는 놀라운듯 상반신을 제치고 최길을 뻗히 쳐다보았다.

《누구예요. 저보다 더 이쁜 녀자인가요?》

《음, 조선녀자요.》

《조선녀자요, 이름은요?》

《...》

최길이 대답이 없자 후미꼬는 얼굴에 비양기를 띄우며 말했다.

《사까모또씨, 당신의 수옥이 말은 나도 들었어요.》

《뭐라구?!》

최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후미꼬는 고개를 제치고 웃어댔다.

《그래요. 저의 아버지와 드레이조 사이를 통역하면서 나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라니? 당신 아버지가 수옥이를 어떻게 아오?》

《사까모또씨, 당신도 얼마전에 자결한 니시하라 중장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답니다.》

일본군부의 고위인물이였던 니시하라 겐지로중장은 일제가 패망하자 제일먼저 해군성의 극비자료들까지 미군놈들에게 넘겨바치고 그들의 비호하에 전범자명단에서 벗어났던 친미분자였다. 그러다가 련합군측의 압력에 못이겨 극동군사재판소의 피고석에 앉게 되자 자결의 길을 택했다는것을 최길도 알고있었다.

《그 녀자의 이름과 사까모또씨의 이름이 자주 화재에 오르기에 웬 녀자인가 했더니... 바로 당신의 애인일줄이야... 당신은 고모에게 수옥이를 돌봐달라고 전보를 날린적이 있지요?》

《있소.》

최길은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그러니 자기가 날린 전보를 드레이조가 가로챘었다는것이 명백했다.

《그래 후미꼬는 수옥이의 행처도 알고있겠지?》

《어쨌겠어요. 행처를 안다고 해도 말해서는 안된다는걸 아시면서요…》

《후미꼬!》

최길은 그 녀자의 두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금 물었다.

《솔직히 말해주오. 그가 지금 어디 있소?》

최길이 다그쳐문자 총혈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후미꼬는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정 알고싶다면 말하겠어요. 바로 우리 섬의 W 기지에서 세탁부로 있어요. 아이는 얼마전에 물에 빠져 죽었다던지…》

그의 말에 놀란 최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5

최길은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지나온 꼭절많은 자신의 인생행로를 돌이켜보며 고뇌에 모태기고 있었다.

아 내 녀은 포탄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진 살점 마냥 이국의 광야에서 몸부림쳐야만 하는가. 더는 이렇게 지낼수 없다.

그렇다. 운명을 결정할 때가 왔다.

그러나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자신도 몰랐다. 수옥이를 찾은 다음 결정해야 했다. 수옥이가 무인도에서 자기를 구원했던것처럼 그만이 이번에도 몸부림치는 자기의 녀을 구원해주고 수치와 분노에 떠는 이 몸을 따듯이 감싸안아줄것만 같았다.

후미꼬와 함께 섬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별로 살벌한 분위기였다. 밤금 리룩한 전투폭격기편대들이 북쪽 상공을 향해 요란한 폭음을 내며 날아가고있었다. 항구들에서는 대소함선들이 굴뚝들에 연기를 무럭무럭 피워올리고있었다.

섬은 대륙을 향해 던져질 하나의 첩퇴덩어리와 방불하였다.

최길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북벌》전쟁의 어마어마한 장악과 첩퇴형성에 자기도 참가했고 구체적으로는 조선동서해해상해저도를 작성했다는 때늦은 죄의식감때문이었다.

최길은 섬으로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아 후미꼬로부터 미국동군사령부의 명의로 된 특별통행증을 받았다. 후미꼬는 그 특별통행증을 넘겨주면서 수옥이를 만날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까지 다 말해주었다.

《이 특별통행증의 유효기간은 래일 일요일 하루뿐이에요요 만약 이 통행증을 내가 내주었다는것

이 알려지는 날에는 당신은 물론이고 나도…》

《알겠소.》

《수옥이란 그 애인을 만나보고는 꼭 저녁중으로 돌아오세요.》

최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미꼬의 손을 짹 짹 아 흔들었다.

《정말 고맙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사랑했던 녀성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려는 당신의 그 열정에 반했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당신들이 부럽군요.》

이튿날 최길은 승용차를 타고 섬의 해변가포장도로를 달리며 자그마한 휴양소전물앞에 이르렀다.

해수욕장까지 달린 화려한 휴양소였다. 최길은 몇년동안 이 섬에 살면서도 이런 호화휴양소가 있는줄은 몰랐었다. 그러니 결국 수옥을 곁에 두고도 몇해동안 보지 못한것이 아니었던가.

전보를 가로채서 수옥이를 이 외진 섬에 유괴해다놓고 내 운명을 조일 인질로 써먹으려고 한 드레이조! 네놈들도 사람이냐… 내 그 값을 기어 이 받아내리라.

최길은 무도장에서 울려오는듯 한 자즈음악소리를 들으며 휴양소의 원형식당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구석쪽의 빈 식탁에 자리잡고앉아 커피를 요구했다.

20살안팎의 젊은 접대부가 다가와 커피잔을 놓으며 상냥한 어조로 물었다.

《코냐크도 드릴가요?》

《아가씨와 함께라면…》

최길은 퍼런 지전을 꺼내어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아가씨, 아름다운 백사장에서 산보라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전 아직… 오후에라면 시간을 낼수 있어요.》

접대부는 웃음어린 어조로 깉듯이 대답했다.

《좋소. 그럼 기다리겠소.》

최길은 오후 짙푸른 옷을 입고 기다리는 접대부처녀를 만나 백사장을 거쳐 산굽이를 돌아 퍼그나 걸어 미군기지에 이르렀다. 그 녀자를 돌려보내고 후미꼬가 내준 통행증 《덕분》으로 수옥을 만났을 때는 벌써 해가 기울무렵이었다. 놀라움속에 말도 못하던 수옥은 백사장의 외딴 솔밭에 와서야 왈칵 눈물을 쏟으며 소리내여 울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디 갔다 인제야 나타났어요? 바다에 몸을 던져 몇번이나 죽고싶었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수 없었어요.》

《그건 무슨 소리요?》

《처음 여기에 끌려올 때 저는 당신때문에 유괴되어온줄은 몰랐어요. 다만 미군부대 인부인줄 알았지요.》

《아이는 어디 있소?》

《진석이 말예요? 고모님이 진석이라고 이름지어주셨어요. 그 애는 지난해에 믿을만 한 사람한테 보냈어요!》

《보내다니?》 최길은 놀랐다.

《그 애만이라도 아버지품으로 보내려구요.》 수옥은 눈물겹게 전후사연을 이야기했다.

《어느날 일이 너무도 고달파 제가 앓아누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약을 가지고 온 미군의무관놈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 아니겠어요.

<너는 죽어선 안돼. 죽을수도 없구. 너와 애는 최길이란 수재형의 조선인장교를 우리가 필요할때까지 잡아두게 하는 족쇄란 말이다.>

그때에야 난 불우한 나의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와끼섬에서 굴을 싣고온 인편에 김태삼이란분의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석이만이라도 놈들의 마수에서 빼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가져온 인편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밀려드는 파도에 아들을 잃었다고 거짓소문을 돌렸어요. 진석이를 보내놓고도 너무도 고생스러워 죽어버리려고 몇번이나... 그러다가도 내가 죽으면 당신에게까지... 후환이 미칠가봐 죽지도 못했어요.》

수옥은 오열을 터뜨리며 최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울었다.

《걱정마오. 여기서 도망칩시다!》

《알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수옥은 속삭이듯 말했다.

《진석이는 살아있을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분은 좋은분이에요. 때가 되면 진석이를 만날수 있을거예요》

수옥은 최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웃고 울며 끊임없이 속삭이고 또 속삭였다.

그날 밤 두시경이었다

섬 서쪽 후미진 만을 빠져나온 철갑기관정 한 척이 솔밭 도래곶이에서 한 녀인을 태우자 망망한 밤바다를 향해 뚝안 물보라를 일으키며 전속력으로 복상하기 시작했다. 패속기관정 조타실에 최길과 나란히 앉은 수옥은 방수포로 감싼 트렁크를 꼭 안고있었다. 트렁크안에는 극비에 작성된 해도가 들어있었다.

패속정이 미군해상탐지기에 걸린것은 그 이틀날 새벽이었다. 드레이쥔의 명령에 의해 몇척의 고속경비함과 직승기들이 추격전에 참가하였다. 놈들은 직승기로 북쪽항로를 가로막고 마이크로 귀환을 설교했다.

직승기가 이 패속정상공을 빙빙 돌며 투항할것을 강박하면 그는 기관포로 대응했고 경비함이 좌우로 달려들면 맞부딪쳐버릴 태세를 취했다.

강경한 자세에 아연해진 추격본건대 대위는 드레이쥔한테 무전으로 문의했다.

《조금도 항복할 기색이 없이 계속 복상하고있음. 얼마 안있어 북조선해군 함선들이 항행할수 있는 수역에 들어서게 됨. 결정적인 대책을 요구함.》

전문을 받은 드레이쥔은 배를 침몰시킬것을 명령했다.

바다는 아침노을빛에 붉게 물들고있었다. 앞뒤 좌우로 바투 따르던 추격선들이 추격을 포기하고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공을 선회하던 직승기만이 계속 패속정상공에 떠있었다.

《조국땅을 밝아보고 싶어요.》

수옥은 최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속도를 내서 한치라도 조국땅 가까이로 갑시다. 여보!...》

이윽고 고요해진 아침 바다위에 불비가 쏟아져 내렸다.

갈매기 몇마리가 그들의 령혼을 찾아 날아예머슬피슬피 울었다. ...

×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려나.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기 전까지만 하여도 나는 김태삼부부를 나의 친부모로만 생각했었다. 이들은 나를 친자처럼 키웠다. 총련의 품속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공화국의 어엿한 조청일군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 대한 이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내가 조국에서 진행되는 공화국창건기념경축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태삼은 나에게 나의 친부모들인 최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것이다. 곡절과 수난으로 얽혀진 친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조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김태삼은 나에게 꽃다발 두개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희 대표단이 라고 갈 배가 아마 너의 친부모들이 수장된 그 바다를 지나게 될게다. 그때 이 꽃다발로 부모님들의 명복을 빌어다오.》

나는 김태삼의 당부대로 내가 탄 배가 조국가까운 수역에 들어섰을 때 눈물과 함께 꽃다발을 바다물위에 뿌렸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대는 바뀌었어도 미제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상처는 가셔지지 않고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단순한 추억이라기보다 선대들의 곡절많은 인생행로와 피맺힌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남기고간 피의 교훈을 통해서 나의 자식들과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고싶어 서투른 펜을 들었던것이다.

숲은 애국으로 푸르다

장명길

최전연초소를 찾아
먼길을 달려오신 장군님
먼저 찾아가신 곳은
병사들이 소문없이 꾸린
부대의 양묘장이었다

철의 전선에 무성하게 설레는
애국의 마음을 헤아려보시며
초소에 걸어놓은 산림 조성도를
기쁨에 넘쳐 바라보실 때
바쁘신 걸음 멈추시고
병사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실 때

조국산천의 푸르른 숲은
전선길 따라서는 마음과 마음들에
애국의 푸르름 가득 채워주었나니
봄을 맞아 나무를 심을 때면
그리움속에 어려오는 그날의 장군님 모습
흘러간 세월의 기슭에
이 마음도 세워주누나

어딜 가나 빼앗겼던 흔적이 력력한
조국의 모습비낀 모란봉에 오르시여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이 땅에서
혈뱃던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시며
몸소 나무를 심으신 그 봄날에서
푸른 숲의 새 력사 시작되었거니

풍치수려한 조국강산
그것은 수령님과 어머니의 념원이여서
언제나 장군님 마음속에 있어
전선길에 푸르른 산천을 지나실 때면
달리던 차를 멈추고 눈여겨 살펴보시며
소중한 마음들을 기쁨속에 안아보시었나니

문수봉과 장자산, 장산을 지나
오늘도 전선길에 이어지는 자욱우에서
이 강산엔 새소리 유정하고 록음 우거졌나니
날로 무성해가는 푸른 숲의 력사에는
어려있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
후손만대 번영할 래일을 당겨주시며 바치시는
애국이

심고 가꾸어야
나무는 거목이 되고 숲을 이루리
애국을 심어 찬란한 미래를 자래우는
그 마음들에 햇빛을 뿌려주시며
장군님은 오늘도 앞장서 길으신다
걸음걸음 애국의 길 승리를 낳는 길

아, 이 봄날
봄빛으로 스며드는 장군님의 뜻이여
그 뜻에 받들려 그 애국으로 가꿔져
사회주의 이 강산에 무릉도원 꽃피어나니
푸르른 숲과 함께
인생도 애국으로 더욱 푸르러지리라!

작가소개

소설을 가장 많이 쓴 작가

가장 많은 소설을 쓴 작가는 남아프리카 케이프주 서머세트 웨스트출신의 너류작가 캐슬린 린제이(1903—1973)인데 그는 8개의 필명을 써가면서 904편의 소설을 창작출판하였다.

현재 살아있는 작가는 인디아의 바보라오 아나르가(1907년생)이다. 그는 1936~1984년 사이에 1092편의 단편추리소설을 창작한 외에 기타 여러 작품들을 써서 책으로 냈다.

숲과의 인연

박상민

내 이 땅에
숲을 그리도 사랑한
아버지의 넋을 받고 태어나
저 한그루 한그루 나무에
떨수 없는 정이 들었던가

조국을 지킨 방위자들이
전호가에 옮겨심고 싸웠다는
그 소중한 애솔포기가
가슴깊이 뿌리내리는 나날에
끊을수 없는 인연이 맺어졌던가

해방된 조국 혈벗은 산에
푸른 숲의 새 역사를 안아오시려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몸소 나무를 심으신
모란봉에 깃는 이야기 들으며
내 마음은 그 나무들과 함께 자랐고

조국이 무엇인지
심장으로 느끼기 시작했을 땐
가슴속에 먼저 자리잡은 숲이
지금은 산마다 푸른 자락을 날리며
나라의 샘솟는 재부로 되었거니

용재림, 건재림, 유지림...
흐뭇이 보물산의 《열쇠》춤에 굴리며
나는 손금처럼 환한 숲속을 걷는다
이럴 때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

아 달리는 야전차 창너머로
흘러가는 울창한 이 숲 바라보시며
여기엔 숲을 가꾼 참된 애국자가 있다고
우리 장군님의 분에 넘친 말씀 받아안을 때
정녕 숲과의 인연은 내 한생의 연분이었던가

말하라 푸른 숲이여
장군님 심으신 모란봉의 그 나무가
내 가슴속에 애국의 터전을 다져주지 않았다면
불타는 전호가의 그 애솔포기가
어떻게 이 가슴에 뿌리내릴수 있었으랴

진정 장군님의 위대한 조국에는
나를 키워 숲과의 인연을 맺어주었거니
그 인연 그 정으로 사랑으로 더 장하게 엮으며
무성한 내 나라 푸른 숲의 역사를
선군시대에 더욱 빛내가리라!

숲향기 | 외 1 편

로윤미

내 허리를 붙잡고
애무를 조르던 나무모가
이제는 높이도 자라
부드러운 가지로
나를 쓰다듬으며
상긋한 향기에 이 마음 실어주누나

푸른 하늘 유유히 떠가던 구름
이깔의 우듬지에 걸터앉음은
싱그러운 숲향기에 취해서인가

나는 알았노라

십여년을 하루같이 숲을 가꾸며
몇그루의 나무에선 풍길수 없고
그루그루 빼곡이 들어찬 숲이라야
향기중의 향기 풍길수 있음을

빈자리 있는 숲이라면
그것은 숲이 아니리
풍기는 향기 어찌 향기라 말하랴

아 이산 저산 풍겨오는
숲향기 숲향기는
심장의 박동 다듬어주며

심장의 피를 더 붉게 해주며
 내가 가꾸고
 나를 가꾸는
 내 마음의 향기!

나는 새겼노라
 이 수림속에 진정한 향기 풍길 때
 내 삶도 아름다운 향기로
 어머니조국땅에 남아있음을

숲과 폭풍

썩—웅 썩—웅
 숲이 함성을 일으킨다
 저기 열두척 강대를 부러뜨리며
 푸른 잎을 마구 후리쳐 뿌리며
 밀려오는 폭풍에 맞서
 숲은 총창의 대오인양 서슬푸르다

잔악한 살풍으로
 질어가는 록음마저 쓸어버릴듯
 온숲을 갈가리 찢어버릴듯
 폭풍의 갈기 하늘땅을 휩쓸어
 산뿌리마저 뒤집힐듯 하는데

결전장에 나서는 전우들의 포웅마냥
 뻗쳐든 아지들을 억세게 틀어잡고
 전구에 나선 억찬 숲은
 이깔나무 참나무
 분비나무 너도밤나무 하나가 되어
 산두리에 진을 치고
 격랑을 일으키며 솟구친다

단말마의 울부짖음으로
 폭풍은
 우뢰를 물고
 번개의 검을 뽑아 숲우에 휘두르며
 산이 무너져라—
 장대같은 비줄기를 쏟아붓는다

오, 파피와 수호의 격전장에서
 폭풍의 힘 한계를 넘는다 해도
 삶의 터전을 지켜

땅을 거머쥐고 대지를 번디디며
 거연히 일떠선 숲의 기상은
 드물지 않는 담력과 위엄으로
 광란을 위압하며
 산천을 장엄하게 돈구어올린다

바로
 저 담찬 숲의 모습에
 불타는 심장에서 터져나온
 사랑의 단즙이 스며있다
 저 위엄찬 숲의 기상에
 나의 량심의 한생이 새겨져있다

숲이여
 나는 너를 그냥 나무로만 볼수 없다
 너는
 고난을 웃음으로 물리치고
 시련을 의지로 이겨낸
 선군의 넋을 년륜으로 새긴
 애국의 기념비이다

불사신마냥
 수호신마냥
 숲은 솟구친다 일떠선다
 하늘끝에 닿던 폭풍의 갈기
 자기의 힘마저 잊어버리고
 숲밀에서 감도니
 구름새로 쏟아지는 해살뭉음
 승리의 축포런듯
 쏟아져내린다
 쏟아져내린다



석남진

내가 ××발전소건설장에서 일을 제끼는 대대로 널리 알려진 은하시대대를 찾아갔을 때 그 대대는 웅장하게 일떠선 연제가까이에서 지대정리작업을 한창 벌리고있었다.

삼복의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돌격대원들은 토랑운반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작업을 지휘하고있는 대대참모장은 여기 돌격대지휘성원치고는 비교적 젊어보였다. 그는 꽤 무뚝뚝한 인상인데 어쩐지 내심의 그 어떤 충동을 자제하는 사람같았다. 그는 목에 걸고있던 세면수건으로 얼굴이 땀을 흠쳐내며 딱한 기색을 보였다.

《기자선생이 바쁜 대목에 찾아왔군요. 대대장이 출장중이어서 내가 대리리를 보고있는데… 하지만 나야 뭐 아는게 있습니까? 이제 정치지도원동지가 올 겁니다. 런던정치부에 갔으니까요.》

《그럼 기다려보지요.》

나는 흔연하게 대꾸하고 돌격대원들속에 끼여들었다.

대대참모장은 놀란듯 한 표정으로 그러나 흥미있어하는듯 한 표정도 엿쉬인 얼굴로 나를 지켜보았다.

그는 내가 한 돌격대원과 맞들이를 맞잡고 몇번 정해진 장소까지 가서 흠을 부리우고 돌아오자 빙긋이 웃음을 띠었다.

《기자선생의 잡도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뭘요.》

《아마 우리 돌격대원들에 대한 생동한 글을 써보자는거겠지요?》

그의 똑한 얼굴인상이 부드럽게 풀리고있었다. 실은 그가 매우 다감한 사람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습니다. 그럼 함께 땀흘려봅시다.》

그는 나와 함께 맞들이채를 잡고 걷기 시작했다.

한참 걸더니 뜨직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 할가보군요. 이젠 우리 정치지도원동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시 말을 끊었다.

건설장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었다.

혼석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고가고 맞들이채를 쥐고 달리는 돌격대원들이 붐비었다.

검실검실하게 탄 얼굴, 시뻘겋게 익은 얼굴, 웃는 얼굴, 심각한 얼굴, 말하는 얼굴, 웨치는 얼굴, 각이한 얼굴들이 나의 눈에 비껴들었다.

그런데 그 각이한 얼굴들마다에서 하나같이 뿜어나오는 빛이 있었으니 그것은 젊음과 열정의 빛이었다. 그 빛으로 하여 돌격대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싱싱하고 활기차보인다.

(저들이 흘리는 땀과 불같이 내뿜는 열정이 속속들이 습배여들어 연제를 바위처럼 굳히었을것이며 발전소건물들도 보다 현대적으로 훌륭하게 건설했으리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대참모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발전소건설이 갓 시작되던 몇년전 겨울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 대대는 런던지휘부로부터 원목을 생산하여 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밀림속채벌지에 들어가 전투를 벌리고있었습니다.》

1

밀림속에 눈이 내리고있었다.

나무베기를 하던 돌격대원들은 유쾌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여— 눈이 오는구나.》

《동무들, 다그치자구. 건설장에서 목재를 기다린 다네.》

와—합성이 밀림을 뒤흔든다.

나무를 켜대는 톱질소리, 넘어진 나무들에서 아지를 쳐내는 도끼질소리… 그다음에 그 모든 소리를 짓누르며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다.

《넘어간다!》

《또 한대 넘어간다!》

꺾기가 한아름이나 되고 길이가 30여메터는 실히 될 이깔나무가 무겁게 들쓰고있던 두터운 눈층을 털어버리며 한옆으로 자빠진다.

빠억— 쿵— 울스산한 소리를 내지르며 나가넘어지는 거목의 태질에 눈가루가 뽀얗게 일고 옆의 나무들이 부르르 몸을 뒨다.

여기서 저기서, 또 좀 떨어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련거퍼 《넘어간다.》의 웨침소리와 함께 거목들이 넘어지는 장쾌한 소리가 밀림을 뒤흔든다.

도끼를 휘두르며 아지치기를 하던 대대정치지도원 리설화는 잠시 허리를 펴고서 자기 대원들의 작업모습을 만족감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발전소건설장으로 나오기전엔 시당의 선전부에서 사업하던 녀성당일군 리설화는 지금 남자들과 다름없이 솜뚱을 입고 털모자를 꼭 내려쓰고서 도끼를 어깨에 멘 모양으로 서있었다.

그는 40대초엽의 나이로 체육선수처럼 큰 체격을 가진 녀인이다. 하긴 그가 중학교시절에 룡구라든지 배구선수로 활약했다는 풍문도 돌고있었다. 얼굴이 흰한편인데 가느스름한 눈이며 도두룩한 입술엔 유순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대원들을 바라보는 설화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설화의 눈에 띄우는 대원들의 모습은 여기 름산사업소의 채벌구역에 도착한 후 톱과 도끼를 들고 아름답디나무들과 마주서던 《애송이》들과 큰 차이를 가지고있었다.

그때 어떻게 벌목을 하는지 몰라 허둥대던 대원들이 오늘은 능숙한 벌목공들로 자라났다,

초기엔 다듬은 통나무를 서너명이 어깨에 메고 날랐는데 이제는 두명이 메고서 자신있게 걸음을 옮긴다.

오늘은 아지따기를 하던 처녀돌격대원들까지 통나무를 메겠다고 나섰다.

《너자가 나무를 매면 나무가 성이 나 벌떡 일어선다오.》

어느 남대원이 시까스르는 말에 웃음들이 터져오른다.

이때 대대장이 나타났다. 그는 장년나이의 일군으로서 시인민위원회에서 부장사업을 하다가 돌격대에 나왔다.

대대장은 리설화를 찾아서 한옆으로 불리냈다.

《정치지도원동무, 여기 일을 나에게 맡기고 통나무를 나르는 차를 타야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글쎄… 뭐 큰일이야 아니겠지만…》

대대장은 잠시 말을 끊고 바재이든듯싶더니 동을 달았다.

《집의 세대주 말입니다. 박진호동무가 탄광기술혁신에 필요한 자재를 구하러 갔다오다가 산비탈에서 그만 굴렀다는군요. 심하게 외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집에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버렸다. 그는 금시 넘어지려는 몸을 지탱하려는듯 옆에 서있는 나무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었다. 나무가지들에 실려있던 눈들이 부실부실 떨어져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서있었다.

《너무 상심하지 마오. 시병원에서 대책을 세우겠지요.》하는 대대장의 근심어린 목소리가 울리었다.

《어서 진정하고 내려가보시오.》

설화는 번쩍 눈을 뜨며 몸가짐을 바로했다.

《난 괜찮아요.》

설화는 눈들이 떨어져 녹고있는 얼굴을 두손으로 문대었다. 그리고 대대장을 피하려는듯 몸을 돌려 벌목구역안으로 깊이 들어 갔다.

그는 누구도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이깔나무를 부둥켜안고 차디차고 꺼슬꺼슬한 줄기에 얼굴을 묻었다.

아, 귀중한 사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니.

그의 눈앞에는 남편의 거룩진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은 얼굴이 시커멓고 키가 구척같은 사나이였다. 중학교 3학년생인 설화의 아들에게는 장신의 아버지에게 대해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나 보인다.》고 말하며 웃곤하였다

얼핏 보기에 무서운 사람같았지만 사실 인정이 많고 살들하기도 한 사람이었다.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는 설화가 조금이라도 퇴근이 늦어지면 시당정문 건너편의 상점부근에 와서 기다리고있다가 함께 집으로 가곤 하였었다.

설화가 한밤중에 시내에 있는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볼 때는 말없이 전지불을 켜들고 따라나서던 사람… 어느모로 보나 설화가 한가정의 기둥으로 의지하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는 사업과정에 파오를 범하여 해임되었으며 그때부터 시외에 있는 자채탄광개발지에 자진하여 나가서 로동을 하고있었다.

남편의 파오와 해임은 설화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었다.

남편이 집을 떠나가있는데 자기까지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에 설화는 속을 많이 썩었다.

그러나 설화는 도자체의 힘으로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리자는 도당위원회의 호소를 외면할수가 없었다.

도안의 각 시, 군들에서 돌격대가 조직되어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가고있었다.

설화를 힘있게 떠밀어준 사람은 남편이었다.

《당신이 그런 결심을 한것이 정말 고맙소. 나의 마음까지 합쳐서 일을 잘해주오.》하고 남편은 그를 고무해주었다.

그래서 설화는 고향에서 살고있던 늙은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놓고 떠나왔던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아픔으로 가슴에 매달려있는 남편의 일이 오늘은 새로운 상처를 내며 허비고드는것이였다.

당장이라도 가보고싶었다. 가서 자기 눈으로 남편의 상태를 보기만 해도 한결 마음이 놓일것만 같았다.

그러나 설화는 스스로 머리를 흔들었다.

애초에 굳은 결심을 품고 집을 떠나오지 않았던가. 마음을 더욱더 모질게 먹자.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할것이다. 내가 이 발전소건설장에 와있다는것을 알게 되면 남편의 치료에 더욱더 정성을 쏟아부을것이다. 설화의 가슴속에는 어느 사이엔가 그 어떤 믿음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는 품속을 더듬어 사진 한장을 꺼내었다.

남편과 아들이 보고싶을 때마다 들여다보곤 하는 가족사진이였다.

그는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은 내 심정을 이해하겠지요? 당신이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기에 나도 강심을 먹고 여기서 이겨내겠어요. 어쩌면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가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고생이 큰데...

이때 《넘어간다!》하는 벼락치는듯 한 소리가 가까이에서 울려왔다

설화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눈을 한줄 움켜쥐고 얼굴을 문지르고 나서 허리에 찢렸던 도끼를 손에 틀어잡았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점심시간이 되였다.

돌격대원들은 우등불가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녀들은 밥이 들어있는 가마를 통채로 사위여가는 불무지우에 올려놓는다. 이제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비닐에 포장된 찌꺼기 불결에 놓아두었던 두서너가지 찬을 다 쏟아내고 나무주걱으로 휘휘 저어서 식기들에 옮겨담으면 돌격대원들의 《야전식사》가 되는것이였다.

대원들이 언 손들을 녹이며 룡담을 주고받는데 설화는 저도 모르게 품속을 더듬게 되였다. 남편생각이 나서 사진을 찾아보는것이였다.

그러다가 그는 흠칫 놀라며 손을 움츠렸다. 그만 가족사진을 잃어버렸던것이다.

어디서 잃었을가?

틀림없이 아까 홀로 서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넘어간다.》는 웅성소리에 놀라 다급히 행동하는 서슬에 떨곤 모양이다. 눈이 내렸으니 사진은 눈에 묻혀버렸을것이다.

설화는 허전하고 알찌근한 심정에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도 몰랐다.

오후작업이 시작되자 설화는 자기가 사진을 떨구었다고 짐작되는 그 장소에 갔다.

호젓한 눈길우에서 무엇인가 들여다보고있는 청년이 눈에 띄웠다. 설화는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청년이 얼굴을 쳐들며 설화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정기수라고 1소대 대원이였다.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서었는데 진중하고 일에서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 빛을 띄웠다.

《정치지도원동지, 사진을 잃지 않았습니까?》

기수는 손에 들고있던 사진을 내밀었다.

설화는 눈에 젖어 녹녹해진 사진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이 근방에 사진을 떨구었던 모양이였다.

《고마워요. 난 이제 사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어요.》

설화는 사진을 가슴에 꼭 눌러대었다.

기수는 설화의 눈길을 외면하면서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동무의 기분상태가 좋지 않은것 같구나. 무엇때문일까?)

설화는 다시한번 기수를 살펴보았다.

기수는 다부진 체구에 얼굴이 곱살했다. 깊은 눈확속의 두눈은 총명하게 빛나는데 서글픔이 어린듯 침울해보이기도 했다. 두툼한 입술은 국 다물려있는데 마치 자물쇠를 채운듯 조만해서는 열릴것 같지 않았다.

기수는 어쩌지 입술을 떠는듯싶더니 소심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정치지도원동지, 어서 내려가보십시오. 집에 불상사가 생겼다는데...》

설화는 놀랐다. 어떻게 기수가 자기 집일을 아는것일까?

설화의 의문이 실린 눈길을 느낀듯 기수는 변명처럼 말했다.

《오전에 대대장동지가 정치지도원동지에게 말하느걸 들었습니다. 집의 세대주가 외상을 심하게 당했다는...》

《그래요?》

설화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 동무는 내 남편의 일이 걱정스러운 모양이구나 어쩌면...)

설화는 자기를 생각해주는 기수에게 무엇인가 속을 털어놓고싶는 생각이 들어 말하였다.

《그 사람은 체격이 굉장해요. 그런 사람이 산비탈에서 굴렀다는게 우습지 않아요? 뭐 큰일은 없을거예요.》

설화는 코허리가 시큰거리지면서 눈가장자리가 더워났다.

그는 정기수앞에서 눈물을 보일것만 같아 얼른 몸을 돌렸다.

2

정기수는 축 처진 모양으로 우두커니 서서 리설화의 뒤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설화는 금시 넘어질듯 휘청거리며 걸어가고있었

다.

설화가 쓰러지지 않고 걷고있는것이 오히려 기수에게는 놀랍게 생각되었다.

저 녀자는 지금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안고있는것인가.

비록 설화가 기수에게 별치 않은듯 한 태도를 지어보였지만 기수는 그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겠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기수의 두눈에 물기같은것이 어렸다. 그것은 설화에 대한 동정의 빛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회오와 고통의 진액이었다

설화의 뒤모습이 나무들사이로 사라지자 기수는 그자리에 머리를 싸쥐고 주저앉았다.

아, 일이란 얼마나 공교로운가.

기수는 사진을 통하여 설화의 남편을 알아보았다.

설화의 남편 박진호는 은하시 어느 큰 공장의 직맹위원장이었다. 그는 시에서 저수지공사를 위해 립시건설대를 조직하였을 때 그 대장으로 선출되었다. 기수는 그 립시건설대의 대원이었다.

박진호가 철직되고 그리고 자진하여 탄광개발지로 가게 된것은 전적으로 기수때문이었다.

박진호가 탄광개발지로 떠나가던 때의 일이 지금 기수의 눈앞에 지긋게 떠오르며 그를 괴롭히고있었다.

창살같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이었다.

정기수는 박진호가 자진하여 탄광개발지로 간다는 소리를 뒤늦게 듣고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진호를 만나려고 차를 잡아타고 달려갔다.

진호는 어느새 시내를 벗어나 농촌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배낭을 등에 지고 비옷도 입지 않은채로 꽃꽃한 자세로 걷고있었다.

지나가는 차들이 곁에 벗어나며 타라고 일렀으나 그는 손짓으로 그냥 지나보내고는 고개를 숙인채 수직수직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기수는 진호의 곁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대장동지, 이건 모두 제탓입니다.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진호는 엄격한 얼굴로 기수를 바라보았다.

《물려서요.》

그의 말에선 서늘한 기운이 풍기였다.

기수는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진호는 기수를 설복하려는듯 한결 억양을 낮추어 계속했다.

《책임자의 파오는 그 무엇보다도 큰 법이요.》

기수는 세찬 비살을 채찍처럼 얻어맞으며 온몸을 떨고있었다.

《동무는 우선 치료를 잘하오. 그리고 동문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량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마시오.》

힘이 느껴지는 진호의 억센 손이 기수를 옆으로

비켜세웠다.

《대장동지.》

《됐소, 난 가야겠소.》

팔죽같은 진흙탕에 주저없이 발을 내짚으며 진호는 걸어갔다. 그 걸음걸음에 깊은 생각과 결심이 어려있는듯싶었다.

기수같은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듯 한 어찌보면 거만하기까지 한 그 위엄이 수치감과 죄의식속에서도 기수의 존경과 감탄을 자아내는것이였다.

비는 망연히 서있는 기수만을 사납게 후려갈기는 듯싶었다.

그날의 아프던 비발이 지금 밀림속의 채벌지에 마리를 싸쥐고 주저앉아있는 기수의 머리우에 다시금 떨어지고있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젖어들수록 자기 환멸감과 수치감을 더해주는 추억의 비였고 맛을수록 절망감을 증대시키는 질책의 비였다.

그 비발속에서 기수는 설화의 남편이 이번에 당한 불상사도 자기때문에 일어난것만 같은 자격지심을 느꼈으며 결국 자기는 정치지도원의 마음에 큰 그늘을 던진 인간이라고 끝없이 한탄하는것이였다.

기수는 동무들이 찾아서야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던 번민의 나락에서 헤어나올수가 있었다.

그는 고뇌를 잊기 위해 무섭게 일을 해대였다.

어떻게 오후시간이 흘러갔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밤이었다. 동무들은 모두 잠자리에 누웠다. 피로가 심했던지라 눕자마자 코고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기수는 자신이 쉽게 잠들수 없으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슬그머니 숙소를 빠져나왔다.

숙소를 나서서 몇걸음 걸어가면 립산마을 한가운 데로 흐르는 석은천이 있었다.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있는데 밝고 푸르스름한 빛으로 삼라만상을 쓰다듬어주는것만 같았다. 석은천의 흐름까지 푹푹히 분간해볼수 있는 흰한 밤이었다.

석은천기슭의 구름나무와 잡관목들에 활짝 핀 서리꽃이 달빛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시위하고있었다.

기수는 손을 뻗쳐 서리꽃이 핀 가지를 잡아보았다. 차디찬 감각... 그러나 어쩐지 짜릿하게 젖어오는 그 감각... 언젠가 이런 감각을 느껴본적이 있었었다.

그렇다. 처음 여기에 도착하였을 때 석은천의 정결함과 신비한 흐름 그리고 그 주변의 풍경에 경탄하면서 이렇게 서리꽃가지에 손을 대보았었지.

아. 그때는 얼마나 포부가 크고 기백이 웅솟음쳤던가.

북방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을 세우리라. 지난날의 파오를 씻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리라. 이렇게 거듭거듭 속다짐하며 돌격대대오에 탄원했던 정기수였다. 이러한 정기수를 석은천도 서리꽃을 아름답게 피워 반겨주는것만 같았었다.

그러나 지금 기수의 눈에 안겨오는 이밤의 서리

꽃들은 오히려 팽담한 빛을 띠고있는듯싶었다.

어쩌면 한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씻고 인생의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는것이 이처럼 힘든 일인 것인가.

만약 설화가 나에 대해 낱알이 알게 된다면, 자기가 설화의 가정에 그들을 가져다주었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아! 기수는 몸서리가 쳐졌다.

그는 흰김이 안개마냥 뽕얇게 서려오르는 석은천가의 평평한 바위돌우에 털서덕 주저앉았다.

칼바람이 불어쳤으나 추운줄도 몰랐다.

사람이 고민에 취해버리는 경우도 있는것 같다.

기수가 바로 술먹은것처럼 고민에 취해 시간의 흐름도 잊고 온몸이 꿈꿈 일어나는줄도 모르고 석은천가에 앉아있었다.

만약 설화를 비롯한 대대지휘성원들이 제때에 그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앉아있었을지 몰랐다.

《여기서 뭘하는거예요?》

설화가 다가와 물었으나 기수는 입이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참모들이 그를 부축하여 대대지휘부로 데려갔다.

거기서 몸이 좀 녹자 기수는 설움에 겨워 눈물이 나오려는것을 겨우 눌러버렸다. 그는 자꾸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따져묻는 설화와 대대장에게 같은 말을 고집스럽게 되뇌이었다.

《걱정마십시오.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제가 괜한 생각에 움해있었습니다.》

3

은하시대대는 원목생산전투가 끝나자 발전소산업 건물건설에 참가하게 되었다.

대대는 우선 블로크생산전투에 달라붙었다.

추위속에서도 지장없이 블로크를 생산하기 위하여 가설병실안에 블로크양생장을 지어놓았다. 밖의 온도는 령하 30도를 오르내렸지만 양생장안의 온도는 령상 25도를 보장하였다. 그 양생장안에서 돌격대원들은 물을 끓여서 몰탈을 이겨 블로크를 찍어냈고 찍어낸 블로크를 당반식건조대에서 건조시켰다.

블로크를 찍어내는 작업의 강도가 높은것으로 하여 녀성돌격대원들은 양생장안에 들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리철화만은 예외였다. 그는 자신이 녀성이라고 하여 대대의 가장 힘든 전투장을 외면할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대대정치지도원이었던것이다. 그는 대대지휘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대장과 함께 각기 한교대씩 책임지고 블로크생산을 다그치도록 하였다.

블로크생산전투의 어느날에 있는 일이었다.

오전 10 시경에 대대후방참모가 식사시간사이마다 대원들에게 보장해주는 중식을 들여왔다. 그런데 그 중식은 어느때와 나르게 푸짐하였다.

기름에 튀겨낸 파배기와 밀가루빵, 감자엿도 있

었다. 거기에 시원한 들쭉단물까지 곁들여서 ...

모두들 입이 벌어져서 놀라움을 표시하는데 후방참모가 하는 말이 오늘이 정기수동무의 생일이라는 것이었다. 생일상을 따로 차릴수가 없어서 중식겸 들여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저저마다 터뜨리는 환성소리가 양생장을 들었다놓는것만 같았다.

《축하하네.》

《축하합니다.》

제가끔씩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데 정기수는 게면쩍게 웃고있었다.

재빨리 몰탈을 한판 이겨서 밀어치우고 중식을 펼쳐놓았다. 중식을 먹는 시간은 10분이였다 언제 허리띠를 풀어놓고 홍타령을 부를 새가 없었다.

동무들의 축하의 말에 웃고있는 기수를 보는 설화의 마음은 흐뭇했다.

40 여일전의 그 달 밝은 밤 석은천가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인 후로 기수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대신 기수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완강성과 인내력을 가지고 일에 투신하였다.

지금 그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져있었다. 사를 쥐고 너무나 쉬임없이 손목을 놀리다보니 그 부위 기 부어올랐던것이다.

그래도 그는 설줄 모른다. 설화는 기수가 미덥기도 했지만 저러다가 혹시 덜컥 앓아누워버리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했다.

그렇게 기수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

설화는 기수가 정신적으로 그 무엇에 쫓기우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어쩌다 자기와 눈길을 마주칠 때면 황황히 피하는 기수의 눈빛은 죄를 진 사람처럼 떼뻗치 못하고 우울한 빛이 가득 어려있는것만 같았었다.

이러한것을 느낄수록 설화는 더욱더 기수에게 원심이 씌여졌다.

(언젠가는 그가 자기의 마음속을 털어보일 때가 있을것이다.)하고 설화는 생각하고있었다.

설화는 자기의 호주머니에 간수했던 사과를 꺼내여 기수에게 내밀었다.

《나도 기수동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과를 보고 누구나 감탄의 소리를 내지르는데 기수는 애원하는 눈길로 이윽도록 설화를 바라보았다.

《정치지도원동지. 너무 이리저리 말아주십시오.》

기수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숨이 가쁜듯 모두 숨을 내쉬었다.

밖에서 보장작업을 하고있던 세명의 처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정기수의 생일을 축하해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였다.

설화는 언제나 매 대원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뜻깊게 쇠도록 마음을 쓰고있었다.

처녀들은 몰탈판끝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정다운 어머니 손길이런듯

지금도 내결에 감도는 사랑
떠나온 고향은 아득히 먼데

어느새 몰탈판우에서 삽날들이 번뜩거리며 몰탈을 이겨나가고있었다. 그 량옆에서는 블로크형타에 가득한 몰탈들을 다짐봉으로 두들겨댄다

설화는 모래와 세멘트를 몰탈판우에 보장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남편과 말하고있었다.

여보, 당신이 외상을 당해 앓고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한달음에 달려가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내가 여기 먼 곳에서 간절히 바라고있어요.

다음순간 리설화는 눈앞이 휘 돌아가면서 온몸의 맥이 발밑으로 새어버리는것만 같은 허탈감을 느꼈다. 파로가 겹치다나니 몸이 약해진탓이었다.

설화는 슬그머니 벽을 손으로 짚고서 자신을 지탱하였다. 그는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 겁내면서 대원들쪽을 보았다. 그는 정기수의 눈길과 마주쳤다. 기수가 걱정이 어린 눈으로 그를 살피고있었던 것이다. 설화는 아무일도 없었던듯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수십여일에 걸치는 블로크생산전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마지막블로크를 찍어내고 양생장을 나선 대원들의 얼굴엔 공지와 보람이 가득 어려있었다.

대원들의 손에 쥐여져있는 삽날은 블로크생산전투기간에 다스려지고 다스려져 두께는 종이장처럼 얇아졌고 그 폭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대원들과 함께 양생장에서 나온 리설화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솟아어나왔다.

얼마나 힘든 고비들을 넘어왔던가!

설화의 두볼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대원들도 눈물이 글썽했다. 그 눈물에는 정치지도원에 대한 존경과 사람이 깃들어있었다.

《휴식이요. 래일까지... 블로크생산전투참가자들을 위해 휴식을 조직하겠소.》대대장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해빛이 파스하게 내려쬘이었다. 아직 강산은 흰눈에 덮여있었으나 한낮의 봄별은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는것만 같았다.

기쁜 일은 겹쳐서 찾아들었다.

다음날 오전이었다.

은하시에서 보내는 지원물자를 가득 실은 자동차가 대대가설건물마당으로 들어섰다.

그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들중에는 설화의 남편 박진호도 있었다. 박진호는 그동안 치료를 받고 몸이 추셨다. 그는 안해도 보고 돌격대원들도 고무해 주기 위해 건설장으로 왔던것이다.

설화는 남편과 기쁨의 상봉을 하였다.

너무도 뜻밖에 찾아든 상봉이고 또 그 반가움과 기쁨이 너무도 가슴벅차게 차오르는것이어서 설화는 미처 주위를 돌아볼 새도 없었다.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억제하느라 애쓸뿐

이었다.

이윽고 남편의 건강에 대해 어느정도 마음을 놓게 된 설화는 한결 편안한 기분으로 친정어머니랑 아들의 소식을 이것저것 묻고있었다.

그때 목욕탕에서 목욕을 끝낸 대원들이 벌거우리하게 혈색이 퍼진 얼굴들을 하고 하나, 둘씩 나왔다. 그들은 지원물자를 실은 자동차를 보고 달려왔다. 자동차를 타고 온 지원자들이 그들에게 격려의 인사말을 했다.

설화는 문득 남편의 눈길이 다른데 쏠려서 자기말을 건성으로 듣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쪽을 보니 목욕수건을 든 정기수가 굳어진 자세로 서있었다.

다음순간 기수는 황급한 기색으로 몸을 돌려 어디론가 급히 사라져버렸다.

《당신 저 동무를 아세요?》

설화는 아직도 기수가 서있던 곳을 보고있는 남편에게 물었다.

《글쎄...》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지만 설화는 이제야 비로소 기수의 고인이 무엇때문인가를 알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4

정기수는 비틀거리리는 걸음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걸어갔다.

하여 기수가 닿은곳은 텅 빈 블로크양생장이었다. 그는 이제는 짜늘하게 식어버린 양생장의 한구석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는 요행이 자기를 보호해줄것을 바랐었다.

그는 돌격대생활을 끝마칠 때까지 설화가 기수 자기의 과거에 대해 모르고 지낼수도 있을것이라는 그 기대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피로운 마음을 위안하곤 했었다.

그러니 요행에 대한 기대는 한갓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박진호를 보자 더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설화앞에 숨길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정기수는 저수지공사때 한개 작업조를 책임지고 일하였다.

박진호는 작업조호장간 경쟁을 조직하면서 기수에게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맡겨주었다.

《기수동무를 믿겠으니 일을 책임적으로 해주오.》

박진호는 이렇게 강조했었다.

그런데 승벽심이 강한 기수는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했다. 하여 그는 저수지쪽 장식공사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기 보다는 작업속도에만 열을 올렸던것이다. 그는 자기에 대한 박진호의 믿음을 저버렸다.

이것이 큰 후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하였다.

갑자기 큰 비가 쏟아져내렸다. 저수지뚝안의 물

이 불어난데다 세찬 바람이 일면서 물이 폭을 파도 처럼 때리며 출렁거렸다.

한 구간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그 물구멍은 점점 커졌다. 뒤늦게 그것을 발견한 정기수는 억이 막혀 가슴을 쳤다. 사고난 구간은 바로 기수가 책임지고 작업한 그 구간이었던 것이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쳤단 말인가.)

기수가 사람들과 함께 독보강에 달라붙었으나 폭의 일정한 구간이 끝내 무너져나가고말았다. 그 서술에 정기수를 비롯한 몇사람이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장식공사에 든 많은 자재와 로력이 허실되었다.

심각한 사고심의회가 있었다. 여기서 박진호는 조금도 자기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스스로 모든 책임을 걸머지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파오를 씻기 위해 자진하여 탄광개발지로 떠난 것이다.

기수는 이 소식을 병원침대우에서 전해들었다.

기수의 불찰로 사고가 났는데 박진호가 처벌을 받은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죄의식에 시달렸다. 자기때문에 해임되어 탄광개발지로 간 진호에 대한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거기에 사고의 전말을 아는 어떤 사람들이 기수가 비량심적인 인간이라고 꺼리낌없이 비난하였는데 이것은 더욱더 기수가 머리를 들고 살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때 도에서 거창한 수력발전소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을 세워 수치를 씻고 새로운 인간, 성실하고 자랑높은 인간 정기수로 사람들앞에 나서리라 마음먹었다. 그것이 박진호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정치지도원이 박진호의 안해라니 얼마나 공교로운 운명의 회통인가.

설화는 이제 진호에게서 자기의 과거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쯤 벌써 알고도 남았을 수 있다.

정치지도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까?

물론 기수는 우리 당이 내세워준 당일군인 리설화가 결코 편협할수 없으리라는것을 믿고있었다.

하지만 설화도 인간이 아닌가. 남편이 있고 자식을 가진 녀성이 아닌가.

나를 볼 때마다 그는 해임되어 탄광개발지로 간 남편의 일을 눈앞에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그를 괴롭힐 것인가.

아, 정치지도원에게 끼치는 고통, 이것이 박진호에게 지게 되는 2중의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제날의 죄우에 겹쳐지는 2중의 죄... 기수는 온몸에 소름이 내돋는것만 같았다.

아, 다시는 비량심적인 인간이 되고싶지 않다.

다시는...

먼지냄새와 불냄새가 풍겨도는 텅 빈 블로크양생장,

넓고 싸늘한 그 공간이 어느사이엔가 점점 더 좁아지면서 기수의 온몸을 숨가쁘도록 압박하는것만 같았다.

마당에서 동무들이 부르는 흥겨운 노래소리가 그의 귀전에 들려오고있었다.

희열과 랑만에 폭 젖은 유쾌한 사람들이 밖에 있었다. 이 건설장에서 위훈을 창조해가며 삶의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기수에게는 펍 쫓았던 시절의 자기의 생활이 돌아켜졌다.

웃음도 많고 자부심도 컸던 그 시절... 노래도 잘 부르고 성격도 호방하여 사람들의 호감을 사던 그 시절이 지금 자기를 비웃는것만 같았다.

다음순간 그의 가슴속에 울분이 치솟아올랐다.

지나친 고민은 자제력의 폭을 허물어버렸다. 가슴속에는 무분별의 물결이 범람한다.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졌단 말인가!)

그는 큼직한 주먹으로 땅바닥을 내리쳤다

5

리설화는 발전소건설장에서 한 30여리 떨어진, 밀림속에서 대원들의 나무모뜨기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3월에 들어서 돌격대는 이 지구의 곳곳에서 나무심기작업을 몇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오늘 아침에 대대앞에는 또다시 나무심기과제가 떨어졌다.

리설화는 한개 소대를 이끌고 어린 종비나무가 많은 이곳으로 왔다. 여기는 밀림이 뻗뻗하여 나무들을 숨여주는 작업이 제기되는 곳이어서 나무모를 뜨는 장소로서 그저 그만이었다.

대대의 기본대렬은 대대장의 지휘하에 산업건물 기초굴착작업을 벌리고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설화는 나무모뜨기작업을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는 자기 대원인 정기수를 두고 착잡한 생각에 포로되어있는 자기자신을 비웃고있었다.

당분간 기수를 피해있고싶었다. 하여 설화는 대대의 기본대렬과 떨어져 이 나무모뜨기작업에 참가한 것이었다.

오후 서너시쯤 되어 나무모뜨기작업은 완전히 끝났다.

나무모를 뜨는 자체로 발구에 실어 대원들과 함께 떠나보냈으므로 은하시대대의 발구대렬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서 움직이고있었다.

눈이 많이 내려 룬전기체들의 가동이 불가능해져 발구전을 벌리고있었다.

리설화도 나무모를 실은 발구 한대를 끌고 길을 떠났다.

설화의 뒤에서 대여섯명의 대원들이 따라오고있었다.

한 15리쯤 발구를 끌고나니 힘이 진해졌다. 그래도 가야 했다. 정치지도원이 녀자라고 해서 뒤질수가 없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가면 닭은 강냉이가 기다린다. 그것을 몇알씩만 입에 넣어도 뒤떨어진 대원들도 자기도 힘을 낼수 있을것임을 그는 알고있었다. 그는 나무모뜨기작업을 위해 이곳 밀림으로 행군해들어올 때 건설장과의 중간지점의 눈속에 닭은 강냉이주머니를 묻어놓았었다. 그 닭은 강냉이는 남편이 이번 길에 가져온것이였다. 그는 대원들이 그 지점까지 발구를 끌면 틀림없이 지치고 허기가 저서 한걸음을 옮겨놓기가 어렵게 되리라는것을 예견하고있었다.

《자 동무들, 좀 더 힘을 내자요.》

설화는 안간힘을 쓰며 뒤떨어진 대원들에게 말하였다.

《조금만 더 가서 쉬자요.》

설화는 땀을 흘리며 발구를 끌었다. 그는 자기가 정신적고통이라는 무거운 짐도 함께 끌고 가고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처럼 정기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때로부터 설화의 피로움은 컸다.

박진호는 자꾸만 캐여묻는 설화에게 정기수와 저수지공사장에서 함께 일하였다고 얼버무렸지만 설화는 모든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이제 와서 설화는 기수가 어찌하여 원목생산전투장에서 자기네 가족사진을 보고 이상하게 허둥거렸는지 그리고 그날밤 왜 석은천가에 나와 앉아 고동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다 이해할수 있었다.

기수에게 야속한 생각이 들었었다.

무슨 사람이 그렇게 속이 썩하던 말인가. 왜 나에게 툭 털어놓고 말하지 못한단 말인가.

박진호가 왔다간 후 기수는 더욱더 의기소침해져서 설화를 피하고있었다.

무서운것은 기수가 설화 자기를 두려워 한다는것이였다. 이것이 설화를 괴롭게 했고 결국 그는 자기가 없으면 기수가 다소 긴장을 풀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것이였다.

설화는 닭은 강냉이주머니를 묻어놓은 장소에 당도하였다. 눈을 헤치고 반키로그람정도 되는 그 주머니를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대원들의 손에 닭은 강냉이를 한줌씩 놓아주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요기해요. 그리고 힘을 내자요.》

멀리 앞서간 대원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뒤떨어지는 대원들이였다.

닭은 강냉이가 좀 더 주머니에 남아있기에 다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조금씩 더 나누어주었다.

설화는 자기의 입에도 닭은 강냉이알을 넣고 씹었다. 그는 여기 북방의 발전소건설장에 와서 닭은 강냉이가 얼마나 맛있고 고소한가를 체험하였다.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소

금이 제일 달고 맛있다는것을 느꼈다고 하는데 지금 돌격대원들은 여기서 일하면서 닭은 강냉이의 맛을 알게 되었다.

설화는 발구를 끌고 행군을 계속하였다.

행군과 함께 깊어지는 생각은 어언간 자기자신에 대한 강한 타매로 이어지고있었다.

내가 그를 혁명동지로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더라면 그가 어찌 나를 두려워할수 있겠는가.

어처구니 없는것은 내가 그를 피해있다는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그를 뜨겁게 포옹했어야 할것이 아닌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제날에 우리 가정에 아픔을 준 장본인이라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이때 설화의 머리우에서, 파랗게 개인 하늘가 어디에선가 하나의 엄숙한 목소리가 메아리쳐오는것만 같았다. (동지! 그 무엇을 허물한다면 우리가 어찌 동지로 결합될수 있겠는가.)

설화의 가슴속 밀바닥에서 그 어떤 희열이 차오른다.

그는 길설의 깨끗한 눈을 한웅큼 쥐어들었다. 그 눈으로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았다. 상쾌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날이 어두워졌다. 짙은 어둠의 자락이 소리없이 삼라만상을 뒤덮는다.

아직도 갈길은 5리나 남아있었다.

설화는 더 걷기가 힘들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뒤떨어진 대원들도 자기처럼 힘이 진했을것이라는것을 생각하였다.

《자 동무들, 노래를 부릅시다.》 그는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동무들이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

대원들은 힘겹게 걸음을 옮겨놓으며 설화가 선창을 댄 혁명가요를 따라불렀다. 발구대렬은 한치한치 전진해가고있었다.

리설화가 발구를 끌고 대원들을 마지막 한명까지 부축하면서 대대에 도착한것은 밤 9시경이였다. 아픈 다리를 두드리며 앉아있는 설화에게 대대장이 정기수가 떠나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예? 가다니요?》

설화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대장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나서 정기수가 떠날 차비를 다해가지고 대대장을 찾아왔다고 한다. 그는 밀봉한 편지 한통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정치지도원에게 전해주면 다 알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대대장은 정기수가 정치지도원과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 짐작하여 부디 그를 붙잡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설화는 서둘러 편지를 개봉하였다. 백지에 큼직 큼직하게 쓴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다른 건설장에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맹세하니 믿어주십시오. 정기수》

그것이 다였다.

아무말도 나오지 않았다.

(자기가 할바는 제가 다 안다는 식이로구나.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끝났단 말이지.)

찬바람이 불면서 땀에 젖었던 그의 몸을 식혀주었다. 주변의 나무가지들을 잡아흔드는 바람소리가 아츠럽게 귀전을 울리었다.

6

길은 어둠속에 희미하게 뻗어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지나다니는 차 한대도 없었다.

정기수는 철도역이 있는 쪽으로 향한 길을 따라 걷고있었다.

길도 주변의 우중충한 밀림도 그의 마음처럼 짙은 어둠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것만 같았다.

그는 더는 자기자신을 다잡고있을수가 없었었다. 설화가 비록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이 혼연한 태도를 지어보였지만 그자체가 기수에게는 괴로움을 자아내는것이였다. 상대방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척 한다는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큰 정신적부담이 아닐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내가 떠나가자, 그것이 정치지도원을 도와주는 것으로 될것이다.) 그는 이렇게 제나름대로 정당한 타당성을 세웠다.

그러나 떠나가는 앞길에 기다리고있는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수 없었다.

막막하고 아픈 심정, 그것만이 가슴을 꽉 메우는듯 싶었다.

그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었다. 크나큰 희망과 불같은 지향을 안고 온 길을 무거운 걸음으로 허청허청 걸어가고있었다.

검푸레한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떠가고 희미한 별 몇개가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그 가냘프고 연약한 별들은 마치 기수의 앞길을 우려하고 동정하며 물기를 머금고있는것만 같았다.

《가자, 다른 생각 말고 가자.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을 찾아갈테다.》

이때 뒤에서 불빛이 달려오고있었다.

부르릉거리는 자동차의 동음소리가 다가오고있었다.

기수는 도로 한옆으로 비켜섰다.

자동차가 가까이 닥쳐들었으나 그는 세워달라고 손을 들지 않았다. 그는 차를 타고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끝없이 혼자서 걸어가고싶었다. 지칠 때까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런데 자동차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추어섰다.

운전칸문이 열리고 누구인가 뛰어내렸다. 그 사

람이 전지불을 비치며 기수에게로 걸어왔다.

《기수동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게 울리는 녀성의 목소리... 그는 리설화였다.

기수는 심장이 푹 멎는것만 같은 충격을 받았다.

《어쩌면 그렇게 쉽게 대대를 떠나갈수 있어요?》

설화의 노여움에 떨리는 목소리가 교묘한 밤공기를 찼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기수는 서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박진호동지에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의 해임은 나때문에... 난 정말 정치지도원동지를 보기가 괴롭단 말입니다. 나도 그렇고 정치지도원동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함께 생활한다는 건 피차에 고통으로 될겁니다.》

《내 하나 문자요. 동문 내 얼굴을 보고 여기로 왔어요? 나를 보고 왔는가 말이에요.》

《아니 그건... 그건...》

《물론 동무는 내 말을 부정할거예요. 그래요. 동무는 내 얼굴을 보고 돌격대에 입대한것이 아니예요. 난 잘 알고있어요. 동무가 어떤 지향을 품고 이 발전소건설장으로 왔는가... 그런데 동무는 내 눈치를 살피다가 떠나간단 말이지요?》

설화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는 알릴듯말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다음 설화는 안타까운 어조로 부르짖듯 말했다.

《그래 내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말이에요. 그래 정치지도원이라는 관직이 동무에겐 그렇게 크게 보였는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기수는 저도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며 항변하듯 말했다.

《전 다만...》

《그만뒤요》

설화는 날카롭게 기수의 말을 잘랐다.

《어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만약 이 리설화란 인간이 정치지도원이 아니었다면 동무가 그렇게 쉽게 대오를 떠날수 있었겠어요?》

기수는 예리한 창끝이 심장을 찌르고드는것만 같았다. 그는 설화의 말을 더는 반박할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를 떨어뜨렸다.

《동무가 말한바와 같이 우린 피차에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예요.》

설화는 한결 능처진 어조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정보다 더 귀중한것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한길을 가는 동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설화의 절절한 말은 포근한 깃요처럼 기수를 감싸안는것만 같았다. 기수는 눈곱이 젖어들었다. 그러나 왜서인지 입으로는 뱉어떨어진 말이 튀어나가는 것이였다.

《전 몸을 눕습니다. 그래서 전 떠나가는겁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습니다.》

《못잡니다.》

설화의 목소리가 유리에 금을 굿듯이 켜켜하니 울리었다.

《그건 도피예요. 자기의 의무에서 도피하고 동지들의 기대로부터 도피하는거예요. 난 정치지도원이 기전에 동무의 혁명동지로서 동무를 보내지 않겠어요. 그 어데서보다 바로 여기서 동무가 자기의 삶을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에요.》

기수는 길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정치지도원동지...》

크나큰 감동, 뼈아픈 자책이 하나로 뒤엉켜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세찬 파도마냥 홍벽을 돌이켜는 바람에 그는 가슴이 터져나갈것만 같았고 숨이 가빠올랐다.

《정치지도원동지...》

가슴속은 걱정으로 꽉 차있는데 왜서인지 이 하나의 부름말만이 입밖에 터져나올뿐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기수에게 있어서는 《정치지도원동지》라는 말처럼 뜨겁고 친근하고 숭고한 말이 없었으니 이 단순한 부름말속에 수천마디의 뜨거운 언어들 이 응축되어있는것이였다.

눈물이 건잡을수 없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싶었다.

《고맙습니다. 정치지도원동지, 절 믿어주십시오.》

여기 돌격대의 동지들속에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찾을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기수의 가슴에 밀물처럼 차올랐다.

《알겠어요. 동무의 심정을 알겠어요.》

설화가 기수의 한손을 잡아일으켰다.

《됐어요. 빨리 돌아갑시다. 대대장동지랑 모두 기다리고있어요.》

차머리를 돌린 자동차가 다가왔다. 자동차의 전조등빛에 비쳐진 설화의 얼굴은 엄숙하게 빛나고있었다. 하지만 정기수는 그 모습에서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느꼈다.

《동지》... 알릴듯말듯 들먹이는 설화의 가슴에서 다정히 고백치는 그 목소리도 들리는듯 싶다.

그것은 사랑이며 희망이며 미래 등 모든 아름다운 합친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다.

정기수와 리설화가 탄 자동차는 밤길을 달려갔다. 자동차의 전조등빛에 어둠이 사방으로 달아나고있었다.

기수의 마음도 거침없이 래일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참다운 동지와 함께 있을 때 인생은 결코 어두운 것도 피로운것도 아니였다.

구름한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에서 태양이 이글 이글 불타고있었다. 그 태양빛을 받은 언저에서 무수한 구슬같은것이 반짝 반짝 빛나고있었다.

은하시대대는 작업의 실참에 오락회를 벌리고있었다.

오락회장과 떨어져서 대대참모장은 나와 함께 천년성벽처럼 느껴지는 언저를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그때부터 정기수는 인생의 길을 새롭게 걸었습니다. 그는 저 언저가 일떠섰을 때 꿈에도 바라던 조선로동당원이 되였습니다. 정치지도원동지가 그의 입당보증을 했지요.》

참모장은 이야기가 끝났다는듯 말을 끊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문질렀다. 강인해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회가 어려있었다.

《그 정기수라는 사람이 지금 대대에서 일하고있겠지요?》 나는 참모장에게 물었다.

《물론이지요.》

《만나보고싶습니다. 어느 동무입니까?》

《꼭 만나야겠습니까?》

참모장은 느슨하게 웃고있었다.

《그렇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는수없이 고백해야겠군요. 제가 바로 정기수입니다.》

다년간의 돌격대생활에서 단련된 일군의 체취를 강하게 풍기는 대대참모장 정기수의 거만한 얼굴에서 내가 본것은 긍지와 자부심의 미소였다.

방송차에서 녀성방송원이 시를 읊고있었다. 그중에 문득 나의 가슴에 젖어드는 시구절이 있었다.

서로 같지 않은 수천수만의 이름을

서로 다른 부모들이 지어주었다

허나 당이 지어준 하나의 이름만이

우리의 심장에 통한다 동지!

정기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 한바탕 땀을 흘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 참, 저기 정치지도원동지가 오는군요.》

곤색작업복차림에 모자를 쓴 녀성일군이 멀리서 걸어오고있었다.

소박하고 듬직한 모습, 건설장에서 흔히 만날수 있는 녀성돌격대원의 평범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 모습에 깃든 아름다운 정신과 힘은 얼마나 고귀한것인가.

리설화는 점점 가까이 작업장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나에게에는 전혀 그가 낯설어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나는 그에게서 친누이를 보는것만 같은 친근감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새 들 아 외1편

—남녘의 한 통일애국투사가 부른 노래—

홍철진

또 날아왔구나
못보면 기다려지던 새들이
철창가에 올려놓은 꿈보리밥
그리도 맛있는게지
보금자리처럼 찾아왔으니

열심히 밥알을 쪼아먹는
너희들을 보니
먹지 않아도 즐겁구나
너희들은 배가 부르고
나는 마음이 부르고

새들아 배불리 먹고
힘껏 날으거라

저멀리 그리운 북녘하늘
꿈에도 밟고싶던 내 고향의 푸른 들판
나를 대신하여
네가 다 보아주렴

가거들랑 또 오너라
만일 철창가에
더는 밥알이 놓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알아다오
통일된 조국을 그리며
인심후한 이 사형수가
그 자리에 밥알대신
웃음을 남겨두고 갔음을

들꽃 한송이

부디 필곳이 없어
너 여기 홀로 켜느나
아름다움이 있을 곳이 못되는
또 있어서도 안되는
이 교도소 키높은 담장안에

사형수—
나의 마지막길을 바래주려고
더 바람타고 날려온게지
산과 들에 차마 내려앉지 못하고
여기에 뿌리를 박은게지

네가 한벌 쪽 깔린 고향들판을
자유로이 뛰어다니던
어릴적 생각이 난다
그때는 덩굴고 밟고다니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줄 내 몰랐구나

앞집 분이 《각시》라고
머리우에 꽂아주던 이 들꽃

배꼽을 드러내고도 《신랑》이라고
그옆에 앉던 일
어제런듯 생생해라

작은 아름다움이지만
나에게는 고향이기에
조심히 너를 꺾으려드는데
아서라
내 무슨 생각을...
내 뒤에 또 다른 동지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도 이제
너를 보며 용감할것이니
내 고향만이 아닌
수많은 고향이 실려있는
한송이 들꽃아
너를 두고 나는 혼연히 일어섰다
이제는 내자신이
통일위해 몇몇한
고향의 한송이 꽃이 되련다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송정우

어제도 바라고
오늘도 바라는 통일
대화와 교류, 접촉이 활기를 띠는
이 벽찬 6.15통일시대에
통일이여 너 정녕 어떻게 오느냐

부산행 열차타고 씩씩 가닿고픈
너와 나 우리 소망 안고서 오누나
가족친척방문단으로 평양에 와서
함께 모여살 날 눈물겹게 하소하던
남녘의 내 할머니 그 소원도 안고 오누나

긴세월 갈라졌던 겨레의
헤아릴수 없는 슬픔의 대하넘어
파도쳐오는 통일
이미 벌써 왔어야 할 그 통일이
다시는 헤어져 살수 없는 겨레의 맘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가까와오나니

눈물속에 갈라졌다가
웃으면서 오는 통일이구나
귀여운 제 아들 제 딸 이름찾듯
피가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제 민족을 찾아오는 통일이구나

기세높아라
애국의 기운은 삼천리에 뻗쳐라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양키들의 기를 꺾을 선군의 힘이 있어
분렬의 장벽이 흔들리고있거늘

황포한 원수들의 도전을 맞받아
굴함없이 오고있는 통일이구나
반목과 불신의 어둠 가시며
반미항전의 불길을 높여가는
북과 남이 굳게 잡은 손과 함께 오는 통일이구나

그래서 얼싸좋아 마중가는 이 겨레
당장이라도 통일이 된듯
평양에서 찾으면 서울에서 화답하며
지척인듯 그날을 내다보고있으니
이 정말 꿈은 아닐가

새날의 태양은 동쪽에서 솟는다만
백두에서 솟아오른 통일의 우리 해님
한나산 한끝까지 밝게밝게 비추주는
민족의 태양모셔 밝아오는 우리 새날
세상이 보란듯이 춤을 추며 오는 통일

삼천리 이 강산에 파도쳐오는
가슴벽찬 이 환희를 력사여 기억하라
양키들의 발악도 절망에 이른 오늘
사무치는 분렬을 옛말하며 살게 될
자유로운 그 세상 어떻게 오고있는가를

7천만의 운명을 굳게 지켜주시는
선군령장 손길아래 오고있는 이 통일
국력이 하도 강해 미제가 벌벌 떠는
백두산강국의 위용펼치며 오는 통일
만세! 만세! 통일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

경구, 격언

- 마음이 없는 예술가들은 항상 남의 안경을 쓰고있다.
-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사랑하고있을 때에 시인이다.
- 모방한것은 본보기를 흉내할수 없다. 모방자는 속된 인간의 처지를 면치 못한다.
- 문학은 반드시 인민의 내적생활의 표현으로, 상징으로 되어야 한다.
- 문학은 인민의 의식이며 그의 정신생활의 꽃이며 열매이다.
- 미란 희망하는것이기때문에 찬양받아야 하며 동시에 선한것이기때문에 쾌감을 주는것이다.
- 사고하는 예술가는 자기 로동의 가치를 몇배로 높인다.

통일운동의 첫 세대에 바쳐진 감동적인 화폭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제4부)을 두고—

박덕남

최근년간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1, 2, 3부가 연속 출판되어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있는 가운데 얼마전에 제4부가 또 나와 독자들을 기쁘게 하여주고있다.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허문길작)은 복잡다단하고 첨예한 정치세계와 그에 대한 각이한 계급과 계층, 인간들의 세계를 실재한 역사적사건들과 인물들의 운명을 통하여 예리하게 들춰내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다부작장편력사소설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1. 시대정신과 맥박

장엄한 력사의 전진을 추동하고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의 용용한 흐름에 목소리를 합치는것은 문학작품의 필수불가결의 본분이며 작가들의 시대적사명이다.

오늘의 시대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대행진이 도도히 굽이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력사적인 시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제의 악랄한 전쟁책동과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민족끼리》!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의지가 집약되어있는 이 구호야말로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있는 6.15통일시대의 불멸의 정신이며 기상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들을 미제와의 판가리대결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4부는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호응하여 반미반전투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반미반전통일운동의 피어린 새벽길을 헤쳐나간 첫 세대 애국투사들의 투쟁모습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문학사적전지에서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고무추동하는데 기여한 작품의 하나로 된다.

소설은 반미반전투쟁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 투

쟁에 펼쳐나선 주인공을 비롯한 긍정인물들과 미제와 그주구들과의 첨예한 대결을 실재한 력사적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치밀한 구성과 극적인 정황속에 끌고나가면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를 보여주고있으며 미제와의 대결전이 반드시 우리 인민의 승리로 결속되리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격조높이 선언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미제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선 정시명을 비롯한 통일애국투사들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초를 비롯한 미제의 전쟁책동의 하수인들이 정면으로 대결하여 치렬한 공방전을 벌려나간다. 등장인물들속에는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전쟁책동에 반기를 들고나선 피뢰군사단장 방대광, 피뢰총리 리법석과 같은 인물도 있고 미제의 전쟁도발에 쌍북을 두드리고있는 리승만과 같은 실재한 인물들도 있으며 미제와 리승만의 파수군으로 복무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고있는 있으나 제 한몸의 영달때문에 민족의 원수로서의 체질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오성도와 같은 인물도 있다.

우리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들과 그들이 엮여가는 이야기에 심취되면서 50여년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남조선의 정치실태를 방불하게 보는듯 싶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듯 싶다. 그리고 반미반전투쟁에서 승리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단결하며 민족공조를 이룩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4부의 인식교양적가치는 더욱 큰것이다.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것은 형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시대정신은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사상주제적문제를 제기하고 인물들의 성격과 형상의 전반에 걸쳐 구현될 때 커다란 인식교양적가치를 가진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4부는 력사물소설에서 시대성을 구현하는 문제에서 일정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 그려진 시대모습은 오늘의 시대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의 《북진》 나발이 기정사실로 되고있다는 소식에 접한 주인공 정시명은 리승만의 《북벌》 정책에 반기를 들고나선 피뢰군사단장 방대광과 《화평통일》론을 제창하고있는 피뢰총리 리법석을 반미반전통일운동에 참가시킬 대답한 용단을 내린다. 그러나 그의 이 비상한 결심은 너무 과격적인것으로 하여 동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방대광이 조국해방전 만주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맞붙질을 하고 《천황》의 감사까지 받은 친일본자인데 그의 역적대죄를 어떻게 용납할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는 정시명도 말문이 막힌다. 암중모속을 거듭하던 정시명의 심장은 민족의 운명을 한품에 안고계시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로 달린다. 쓰라린 고뇌를 안고 달려온 정시명을 넓으신 한품에 안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방대광을 반미반전전선에 합류시키고저하는 정시명의 제안을 애국적인 대응단으로 높이 평가해주시며 뜨겁게 말씀하신다.

《전쟁의 구름이 밀려오고있는 현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기발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것도 없이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을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쫓아내야 하는것입니다. 반전련합전선의 대문을 더 활짝 열어놓읍시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회가 생기면 리승만에게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동맹도 혈맹보다는 굳건할수 없다고, 외세에 붙어서 정치적으로아가 되지 말고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주인공의 감격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야, 얼마나 민족에 대한 정애에 사무쳐있는 금언인가.》

독자들은 이 가르치심의 구절구절에 담겨진 심원한 뜻을 새기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공조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이 얼마나 심원한 뿌리를 가지고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 철리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생각하게 된다. 민족단결의 큰 뜻이 담겨져있고 민족의 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주인공의 그후 투쟁의 지침이었으며 소설의 전면에 걸쳐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모든 형상의 기초로, 사상주제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철석의 의지를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인 정시명은 드물지 않는 담력과 포용력으로 한생을 반공1선에서 날뛰여온 방대광을 끝내 반미반전전선에 합류시키며 리범석까지도 반전평화통일투쟁에 내세우고야 만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였다.

작가는 예리하고도 세련된 필치로 미제와 리승만역도를 비롯한 반통일분자들의 전쟁책동과 민족분열책동을 치우는 민족적의분을 안고 폭로단죄하고있다. 미제는 어떻게 하든지 전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권을 확립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치는 조선침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한다. 놈들은 리승만을 사촉하여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반공화국책동을 강화하도록 하며 끝내 전쟁을 도발하고야 만다.

한편 리승만역도일당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제놈들의 권력지반을 수습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미제의 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동족상쟁의 길로 나간다. 우리는 소설에서 놈들의 이러한 침략자, 매국노로서의 물골을 보면서 아직도 남녘땅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보는듯 싶으며 미제의 시녀가 되어 매국배죽행위에서 저들의 어부지리를 얻고저 자주평화통일세력에 필사적으로 도전하고있는 《한나라당》 족속들을 비롯한 친미반통일분자들을 생생히 보는듯 싶다. 민족공조로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기개의 체현자인 주인공 정시명은 리승만파의 대화에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지금 우리 이남은 미국과 짝을 못고 북과 맞서고있습니다. 조상들의 넋을 욕되게 하는 이 불미스러운 대결구도를 깨버려야 합니다. 북과 손을 잡고 미국놈들과 대결합시다.》

참으로 민족공조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가 투철하게 구현된 이 심장의 웨침에 접하면서 우리는 주인공의 애국의 열정과 기상에 뜨겁게 공감하며 소설에서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창작적인 탐구를 엿보게 된다.

이렇듯 오늘의 6. 15통일시대를 관통하고있는 시대정신과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를 50여년전의 이야기에 구현함으로써 작품은 현대성을 훌륭하게 보장하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제4부에서는 미제와의 오랜 기간의 피어린 대결에서 반드시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나리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력사의 대결의 종점에 대하여 선언하는 정시명의 웨침은 참으로 통쾌하고 의미심장하다. 《확인하건대 대결에서 우리가 얻을것은 민족의 존엄이고 강토이지만 당신들 미국에 차례질것이란 수치와 파멸뿐이라는것을 새겨두시오.》

우리 민족의 드높은 기개를 과시한 정시명앞에서 미제의 현지 두목들은 공포에 떨며 전율한다. 《평화의 사도》로 치장을 하고 전세기에 이 나라에서 태어난 이래 50여평생을 대를 이어 오면서 조선사람들의 넋을 휘잡으려고 동분서주하여온 노불도 정시명앞에서 자기들의 정신적패배를 통감하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다. 《반도가 뿔어올린 용암같은 저 거센 절규에 우리모두는 눈을 떠야 한다. 미국이여, 너도 눈을 뜨라. 언제면 뜨려나.》 민족의 거센 절규에 소리합치는 작가의 격동적인 모습까지 방불히 그려주는 이 영화의 화폭과도 같은 장면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와 북남인민의 드세찬 반미열풍에 전전긍긍하고있는 미국의 부위집권세력과 남조선의 매국노들의 비명소리를 듣는듯 한 통쾌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 반미대결전의 빛나는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치도록 시대정신과 맥박을 그대로 구현하여놓

은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노력은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형상과 이야기들에 6.15통일시대의 시대정신과 기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역사물주제의 소설작품에서 현대성 구현의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고 우리 시대의 통일운동에 실질적으로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성과작으로 되게 하였다.

2. 형상의 철학적, 민족성의 구현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4부는 철학적인 사색이 심오하고 민족성이 강한 작품이다.

소설은 성스러운 통일운동사에 길이 전해질 실재한 역사적사실들과 시대의 무게가 실려있는 인물들을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며 감동깊은 여운을 주는 통일운동의 첫세대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담은 작품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있다. 작가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러한 사상에술적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소설을 완결부로서의 특성에 맞게 주요 등장인물들의 감동적인 형상의 세계에로 철학적심도가 깊게 승화시켜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다.

력사물소설에서 정치와 역사를 다루면서 실재한 인물들의 성격을 전형화, 개성화하는것은 작가의 깊은 탐구와 높은 수준의 형상력이 없이는 성공할수 없다. 특히 《력사의 대결》 제4부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계층의 인물들은 이미 3부까지 높은 수준의 성격묘사가 보장된 인물들이기때문에 4부에서 새롭게 그들의 성격을 탐구하고 보다 높이 끌어올리는것은 쉽게 해결될수 없는 문학적과제라고 할수 있다.

주인공 정시명의 성격은 이미 1. 2. 3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을 신념화한 불굴의 애국투사로 전형화되어있다. 제4부에서는 이러한 주인공을 전쟁전야라는 매우 긴박하고 첨예한 극적환경의 한복판에 세워놓고 실재한 역사적사실과 다양한 생활속에서 주인공의 형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립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불사신같은 통일애국투사의 성격을 성공적으로 완결하여 내놓았다.

정시명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이다. 이것은 소설의 3장 《순화강기슭》에서 작가가 뜨거운 감동속에 이채롭게 펼쳐놓은 주옥같은 화폭을 통하여 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에 재가 차서 서울에서 달려온 정시명에게 벼락도 휘어잡을 방략을 안겨주시며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번 다진 맹세를 버리지 않고 충암절벽에 뿌리박은 로송처럼 오가는 폭풍과 세월의 부대낌에도 휘어들지 않음이 불덩어리같이 뜨겁고 강직한 열혈충신》을 꼭 끌어안으시자 정시명은 그 행복의 무아경에 휩싸여 생의 마지막까지 장군님을 위해 살겠노라 심장의 맹세를 다진다. 정시명은 순화강기슭에서

다진 그 충성의 맹세를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있었기에 미제와 리승만을 눈아래로 굽어보며 안하무인처럼 행세하는 피뢰군사단장 방대광을 반미반전대오에 참가시키며 미제와 반동들이 500만 원의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어놓고 추적하고있는 속에서도 용기백배하여 싸워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흠모심으로 하여 정시명은 수령님께서 그의 신변을 념려하시여 평양으로 불러주시였을 때도 굳이 초소를 떠나지 않으며 방대광의 의로운 인생전환이 박헌영도당의 간계에 의하여 좌절되었을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리승만과의 최후의 결전의 길에 용약 나서는것이다. 심중팔구 운명의 마지막길인 줄 알면서도 이 길에 결연히 오르는 주인공의 비장한 감정을 작가는 무한한 애정과련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격조높이 개방하고있다.

《그것은 겨레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 시대가 제기한 역사적과제를 걸머진 공민적의무감, 좌절과 상실의 울분, 뚫고나가려는 몸부림, 대제난앞에 떨고있는 민족의 사활에 자기몸을 깡그리 불태우려는 비장한 녀의 충동이다. 살아도 민족과 더불어, 죽어도 민족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할 신성한 삶의 지향이 굴러가는 전쟁마차에 서슴없이 한몸을 던지게 한것이다.》

여기에는 한생을 민족과 더불어 살아온 주인공의 운명에 대한 작가의 깊은 동정과 운명의 마지막길에 올라야 하는 인물의 정신적변화와 결단을 두고 고민하고 사색하는 작가의 고뇌어린 모습도 비껴있다. 정시명은 서대문형무소의 피비린 감방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다진 맹세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을 치면서도 전사된 랑심을 깨끗이 지켜낸것으로 하여 행복에 잠긴다.

작가는 앞부분에서 주인공 정시명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통일운동의 한모퉁이를 담당한 지휘관으로서의 로숙한 품위를 일관성있게 보여주면서 제4부에서는 정시명을 반제반전투쟁의 가시발길을 역세게 헤쳐가며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애국통일위업에 바쳐가는 보다 거인적인 인간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하였으며 동지들앞에서는 무한히 뜨거운 열의인으로, 의리와 정을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정의인으로 인간의 향기와 투사의 슬기가 넘치게 형상하고있다.

작가는 정시명이 지니고있는 투사다운 기질과 눈물겨운 인정의 세계를 방대광과의 관계에서 재치있게 펼쳐고있다. 정시명은 《장글노부시》라고 악명을 떨쳐온 방대광을 드센 담력과 넓은 도량으로 로숙하게 한판에 눌러 애국대오에 들어서게 하며 그가 량다리치기를 할 때는 원칙과 야량을 가지고 모처럼 선택한 애국애족의 길에서 곳곳이 걸어나가도록 이끌어준다. 그리고 방대광과의 사업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앞뒤로 적들이 조여들고있는 엄혹한 환경에서 일신의 신변위협을 무릅쓰고 분노와 울분으로 몸부림치는 방대광을 찾아가며 그가 남은 여생을 애국의 길에서 보내도록 눈물겨운 인정을 부여준다. 분노에 치를 떨던 방대

광이 정시명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디 신변에 류의해달라고, 사장님 말씀 금언으로 받들어가리라며 술을 따를 때 주인공의 눈물겨운 의리와 인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작품에는 정시명을 중심으로 뭉쳐진 김명호, 레영, 김아성, 순애, 송호정 등과의 동지애의 화폭도 감동깊게 펼쳐져 시종일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그러나 작가는 주인공을 리상화하지 않았으며 그에게도 실패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사람들의 따뜻한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럽고 다심하며 티없이 깨끗한 인간으로 형상하였다. 리순애의 희생을 놓고 자기를 타매하는 모습이며 민순입에게 고향으로 가라는 권고를 했다가 짹짹한 반발에 접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순박한 모습이며 김명호가 다시 감방에 들어가며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고 자기를 질책하는 그의 인상적인 모습들은 불사신같은 투사의 인간적 면모를 새롭게 보여준 것으로 하여 더욱 친근하게 안겨온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충신전사의 거인적인 성격을 작가자신의 설명으로 규정하지 않고 여러 계층의 인물들의 입과 심리를 통하여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천하를 눈아래로 굽어보는 호방한 인격과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을것 같은 정시명...》(김창기), 《예상했던바대로 무초췌은 시중군다루듯 하는 백전로장이다》(노불), 《네 따라지인생 백천으로 이분과 금새를 같이할수 있다면 백천번 형장에 올라서겠다. ...이 사람 다쳤다간 하늘이 내리는 급살을 받을줄 알아라.》(송호정), 《음, 무서운 사람이야. 과시 듣던바 그대로군》(리승만), 《...노랑게 색이 바랜 은행나무잎들이 가을바람결에 밀려다니는 인적없는 조용한 마당을 꿰질러 정시명이 머리를 쳐들고 방정한 걸음새로 걸어가고있었다. 팔을 휘휘 저으며 가는것이 참으로 태평스러운 모양새다. (염동이 저러하니.) 리범석은 부지중 다시 혼자소리를 하였다. ...》

이처럼 소설에서는 주인공 정시명을 통일문학사에 길이 전해질 첫세대 통일투사로 인상깊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4부에서는 주인공의 운명과 극적으로 얽혀져있는 김명호, 길철, 레영, 김아성, 송호정, 민순입 등 긍정인물들이 저마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인간적으로 완결되고있다. 특히 본의아닌 실수로 조직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김명호의 형상은 무척 감동적이며 교훈적이다.

김명호는 비록 엄중한 실책을 범하였으나 오로지 조직과 동지의 운명을 걱정하여 동지들의 오해를 받을것을 각오하면서도 보석방에 동의하고 출옥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데리고있는 전우들속에서 변절자가 나오고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죽음이 기다리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옥중투쟁을 지도한다.

참으로 범상치 않은 혁명가의 류리로서 통일애

국자들의 세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빛나는 형상이다. 그러기에 김명호는 사형장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자기에게 동지적민음을 변함없이 안겨주는 주인공과 전우들에게 행복의 미소를 남기고 떠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동포애의 빛발을 받아안고 인생전환의 길에 오른 방대광과 리범석의 운명사도 소설의 지면을 길게 차지하지는 않았어도 철학적깊이가 있게 형상되어 작품의 심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특등친일주구였던 방대광이 반미반전투쟁에 나서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위대한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빛나는 승리로써 오늘의 통일운동에도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주는 매우 의의깊은 설정이다.

또한 소설의 제1부에서부터 주인공과 서서히 간격을 좁혀온 부정인물들이 제4부에 이르러서는 주인공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작품이 제기한 사상주제의 해명에 지향되도록 깊이있게 형상되고있다. 여기서 작가가 몸을 들인것은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이며 미중앙정보국의 현지책임자인 노불의 형상이다. 노불은 리승만의 뒤에서 미제의 식민지정책실현으로 조종하고있는 미제의 침략적, 강도적본성의 체현자로서 정시명과는 벌써 제1부에서부터 소리없는 공방전을 벌려온 로회한 정탐배이다. 작가는 노불의 성격을 침략자, 강도배로 그리면서도 도식화하지 않고 정교적 감각이 있으며 자기로서는 실존주의적인생관이 정립되어있고 자본주의적지성의 면모가 있는 인물로 형상하였다. 노불은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의 투쟁을 연구하면서 조선민족의 성격적기질을 놓고 공포에 잠기며 직업적정탐배로서의 감각과 지성을 가지고 미제의 조선침략력사와 조선인민의 반침략력사간의 세기를 넘은 대결이 미국의 패배로 끝날것이라는 정시명의 엄숙한 선언에 공감하고 시인하며 패배자의 비명을 내지르게 된다.

노불의 비명과 전율은 곧 그가 대표하고있는 미제의 전율이고 공포일뿐아니라 력사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며 조선인민과 미제와의 력사적대결의 엄정한 총화이기도 하다. 노불의 성격은 정시명과의 대조속에서 깊이있게 개방되어 제4부까지에 걸치는 장편소설의 사상주제를 무게있게 결속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안고있다. 정시명은 비록 투쟁이 좌절되기는 했어도 자기들이 벌린 투쟁의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한다.

《우리가 흘린 피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 사람들이 외세의 노예살이에 만족을 하고 민족의 재앙앞에서도 분노할줄 모르는 박약한 정신적기형아로 되였더라면 조선도 영원히 세계에서 빛을 잃게 될것이며 분렬의 력사도 고착되고말거요. 그래서 안되오. 오랑캐들이 이 나라 사람들을 숫보게 해서는 안된단 말이요.》우리 민족의 산악같은 신념과 의지를 드디어 정시명에게서 확인한 노불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미국이며 눈을

뜨라고 전률한다.

참으로 방대한 규모의 폭과 심도를 안고 전개하여온 다부작소설의 중점을 무게있게 장식한 세련된 형상수법이다.

1부에서부터 중심적인 부정인물로서 등장하여온 리승만역도도 제4부에서 주인공의 상대인물로 직접 충돌하면서 제놈의 권력욕에 미쳐 민족의 생사존망에는 티끌만 한 관심도 없이 미제의 전쟁책동을 부추기고 앞장에서 감행하고있는 천추만대에 저주받을 사대매국노로 폭로단죄하고있다. 오성도와 무초의 형상도 굴곡있고 성공적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는데서도 소설은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있다. 우리는 소설의 구절구절에서 민족의 존엄에 대한 작가의 열렬한 옹호와 주장, 사색을 느낄수 있다. 조선민족의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기질의 체현자인 주인공뿐 아니라 김명호 송호정 등 인물들과 오성도, 노불, 무초에 이르기까지에도 적절한 묘를 주고 재치있게 해결함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성과있게 구현하고있다.

여기에서 노불의 주정은 참으로 인상적이며 깊은 여운을 준다. 《조선사람은 이 땅의 거악한 산줄기처럼 정신력이 굳건하고 웅장하다. 불의에는 타협이 없고 부정의에는 끝까지 도전한다. 이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것이 조선의 성격이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성격에 대한 미제의 대변자의 이 심중의 고백을 더듬으며 우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를 가지게 된다.

3. 높은 형상력

형상력은 모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사상에술적성과를 담보한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제4부는 1, 2, 3부에 이어 작가의 높은 형상력으로 하여 선군시대 소설문단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채로운 작품으로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이 문제를 놓고서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수 있겠지만 지면상관계로 몇가지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작가는 소설의 구성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어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집약화하고 묘사밀도를 높임으로써 작품의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인물들의 극적관계를 치밀하게 조직하고 그들의 형상밀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형상의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작가는 1, 2, 3부에서 독자들에게 친숙해졌으며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인간들로 형성된 긍정인물들을 다양하고 풍부한 형상수법으로 완결함으로써 고결하고 아름다운 통일운동의 첫세대 투사들의 기념비적군상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노불과 무초, 리승만과 오성도도 립체적인 구성조직에 알맞게 그리고 마지막부로서의 특성을 살려 부단히 굴절시켜나감으로써 작품전반의 형상과 사상주제를 심도있게 풀어나가고있다. 이것은 작가의 끊임없는 탐구와

높은 형상력 그리고 정치와 사회관계의 복잡다단한 현상의 본질과 그 리치를 정확히 투시해내는 예리한 사회적안목, 정치적식견을 떼어놓고서는 생각할수 없다.

작가는 소설의 인물구성과 그 형상뿐아니라 감정조직을 사건과 정황과 밀착시켜나감으로써 시종일관 독자들을 감동시키면서 작품의 깊은 세계에 이끌어가고있다. 주인공과 김명호, 주인공과 김아성, 주인공과 레영을 둘러싼 감정선들은 감정을 축적해나갈수 있는 계기가 명확하며 감정축적과정이 점진적이면서도 다양한것으로 하여 특색이 있다. 더우기 작품의 감정조직에서 귀중한 경험으로 되는것은 주인공의 최후에로 이어지기까지의 감정선을 작품의 중심에 굵직하게 세워놓고 이야기줄거리를 줄기차게 펴나가면서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간것이다. 정시명이 무척 품을 들여 경사롭게 준비하여온 순애와 김아성의 결혼식의 파탄과 순애의 영웅적희생, 순화강반에서 받아안은 크나큰 행복,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김명호의 편지를 받은 정시명, 모처럼 준비하여온 방대광과의 사업의 결렬, 체포와 회생을 각오하고 리승만과의 마지막결전에 나선 정시명과 그의 옥중투쟁 등 감동적인 사건들과 생활세부들로 인물들의 눈물겨운 운명사가 련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감정선이 절정으로 치달아오른다. 이렇게 끌고나오면서 쌓이고 덧쌓여온 감정은 드디어 주인공의 최후를 앞두고 폭발한다. 작품을 읽어가다가 주인공이 최후의 싸움에 나설 때부터 눈시울을 적시게 되며 마지막대목에 가서는 흐르는 눈물을 건잡을수 없는것은 주인공의 운명사를 놓고 작가가 감정조직을 면밀하게 짜고 심화시켜나갔기때문이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제4부의 높은 형상력은 작품에 관통하고있는 정론적인 맥박과 불동적이며 자유분방한 문장, 풍부한 표현력, 지성이 넘치는 묘사와 뜻이 깊은 대사들에서 표현되고있다. 작가는 일관하게 문장을 경쾌한 불동감으로 구사하고있으며 속도감있게 이야기를 끌고나감으로써 독자들을 헛는팔새없이 작품의 세계에 붙잡아두고 주인공과 함께 호흡하고 사색하고 움직이도록 한다. 비극적이라고 볼수 있는 소설의 색채가 결코 무겁거나 어둡지 않으며 밝고 량만적이며 영웅적인 정서를 준다.

여러 등장인물들의 비장한 최후를 접하면서도 비감이 아니라 영웅적이고 숭고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며 통일에 대한 락관과 신심에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것은 활달하고 약동적이며 기백이 넘치는 묘사에 크게 기인된다.

《리승만은 마치도 호랑이발통에 놀리운 메돼지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다. 사지가 뻗뻗해져 한동안 초점을 잃은 눈만 데굴거릴뿐이었다. 정시명의 질책에는 감히 부정할수도 쳐버릴수도 없는 산악같은 무게와 하늘을 진동하는 벽력같은 힘과 장중함이 실려있다. 거기에는 한마디의 예누리도 통하지 않는 력사의 진

실이 있고 인생의 대의가 있다.》이것은 정시명의 사리정연한 지탄에 물린 리승만의 몰골과 그의 심중을 집약적으로 개방해놓은 묘사의 한 대목이다. 이 짙막한 직관적인 묘사에는 정시명앞에서 허둥거리는 역도의 몰골이 그림처럼 방불하게 그려져있으며 수세에 빠진 역도의 심중이 툴돌적으로 내비쳐지고있다.

작품에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면이나 묘사가 없다. 성격발전과 사건이 함축과 비약으로 속도 있게 전개되면서도 노리는 장면이나 대목에서는 집요하게 파고들어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이고있다. 작가는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보일 때에도 진부한 심리설명을 하지 않고 군더더기없이 독자들의 감정과 심리정서를 들어줄수 있게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묘사밀도를 높이고있다.

작품의 마지막처리는 작가의 높은 형상력을 확인할수 있게 하는 매력있고 인상적이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지위와 성격 그리고 정황과 환경에 어울리게 어떤 때에는 정치와 생활의 오묘한 의미가 담긴 품위높은 대사로, 어떤 때에는 평범한 이야기에 심오하고 고결한 뜻을 담은 대사로 작품의 무게와 품격을 높이고있다.

《서울에 가시면 내가 평양에서 기다리고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장군님, 제 평생 장군님생각을 하며 살렵니

다.》

이것은 순화강기습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정시명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정시명이 올리는 대답이다. 아무런 미사려구도 없는 지극히 평이한 짙막한 대화가 가슴을 후덥게 하는것은 그 간단명료한 대사가 수령과 전사사이에 오가는 사랑과 충정의 끝없는 높이를 말해주고있기때문이다.

×

실로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4부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 정시명을 비롯한 통일운동의 첫세대들의 영웅적이고 숭고한 애국의 세계에 대한 레찬을 담아 웃고 울게 하며 미제와 역적무리들의 천추만대의 죄행에 치를 떨면서 반미통일운동에 일떠서게 하는 우리 시대 또 하나의 통일문학작품인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의 완결부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우리는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과 같은 조국통일문제를 전면에 제기한 품위있고 철학성이 깊은 작품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북남전체인민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야 할것이다.

수필

병사와 애국

고정철

어느날 우리 중대는 병영주변에 새로 심은 나무들에 받침대를 세워 주고있었다.

며칠후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기상예보를 받았던것이다. 내가 새끼줄로 받침대를 동여매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옆에서 중대장동지와 함께 일하던 한 신입병사가 문득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중대장동지, 여긴 온통 바위투성인데 어쩌면 이렇게 나무가 많습니까? 마치 숲속에서 사는것 같습니다.》

《그래? 하하하... 남수동무, 병사가 있는 곳에는 웅당 나무가 많아야 하는거요. 그래야 자기 초소에 애국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수 있거든.》

그리고는 여기 돌박산에 처음 배낭을 풀었을 때 온 중대가 펼쳐나 등짐으로 흙을 져나르던 일이며 강추위속에서 어린 이깔이며 너도밤나무모들을 살려내던 일들을 옛말처럼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나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궁지에 넘친 눈길로 《숲속의 중대》를 바라보았다. 그 나날에 고난은 많았지만 조국당 한부분, 우리의 새 초소에 푸른 옷을 입혀간다는 생각으로 하여 모두가 성수가 나서 나무를 심었다. 그런 애국의 마음과 헌신의

구슬땀이 밀거름으로 되였기에 오늘은 이깔나무, 잣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푸른 옷자락을 날리며 온갖 새들을 손저 불려들이는것이 아니라.

중대장동지의 이야기에 저으기 감동된 병사는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푸르러 설레는 조국산천에
심어가꾼 한그루 나무도 없이
참다운 애국을 어이 말하랴
...

병사와 애국! 이 말의 의미를 새겨보느라니 두 해전에 입대한 동생이 보내온 편지의 구절구절이 생생히 떠올랐다.

《보고싶은 오빠! 저는 지난 봄에 꿈결에도 뵈고싶던 아버지장군님을 우리 대대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어요. ... 장군님께서는 돌배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병영구내의 류다른 풍경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한 지휘관에게 몇년 자란 나무인가고 물으시였대요.

30년 자란 나무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

빠하시던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애국의 일념을 안고 부대의 원림화, 수림화를 훌륭히 실현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돌배나무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대대를 <돌배나무대대>라고 정답게 불러주시었어요...》

《돌배나무대대》!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초소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심오한 애국의 원리가 담겨져있는 뜻이 깊은 이름이다.

눈만 감으면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초소의 풍경이 안겨오고 그 이름 한번 불러보면 산 좋고 물 맑은 내나라의 풍치수려한 산촌의 향취가 폐부 속깊이 흘러드는것만 같다.

예로부터 나무를 많이 심는 사람이 진짜 애국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도 눈앞에 뜨겁게 어려운다.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병사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며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씨앗을 심어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그 영상이, 그날 병사들은 위대한 그 영상을 우러르며 후대들에게 푸르른 조국강토를 물려주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었고 온 나라의 수림화는 초소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애국의 일념으로 불타올랐다.

하기에 길을 가다가도 산불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불속에 뛰어들고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를 보면 《산림감독원》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못가는 우리 병사들이 아닌가 진정 선군시대병사들은 위대한 선군애국령장의 품속에서 참다운 애국을 배우고 총대로 조국의 아름다움을 가꾸며 지켜가는 군복입은 《원예사》들이다. 우리 어찌 잊을수 있랴. 현지시찰의 길에서 밀림속을 지나거나 무성한 숲을 볼 때면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마음이 더없이 즐거워지며 자연히 숲을 가꾸어온 사람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숨은 노력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말씀을 우리 병사들은 다는 몰랐다.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성의 길에서 잊을수 없는 추억을 안겨준 초소들을 가리켜 부디 꽃과 나무의 이름을 따서 다정히 불러주시였던가, 《다박솔중대》, 《감

나무중대》, 《들꽃중대》, 《돌배나무대대》...

이 세상에 화려한 이름은 많고많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애국자이시여서, 조국의 일목일초를 제 살점같이 끔찍이도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정성다해 가꾸어가는 병사들의 그 애국심이 너무도 대견하고 기쁘시여서 그렇듯 소박하고 뜻이 깊은 이름들을 달아주신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 이름들은 위대한 선군애국령장께서 조국을 사랑할줄 아는 병사—애국자들에게 특별히 달아주신 정다운 애칭이며 병사들의 불타는 애국심에 대한 표창중에 제일 값높은 표창인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라면 그가 누구이건 나무를 사랑하며 심고 가꾸라고, 오늘에 나무를 사랑하며 가꾸는 병사가 참다운 애국자이며 그런 병사만이 매일에 빛나는 위훈을 세울수 있다고, 이것은 애국의 공식이며 위훈의 법칙이다.

만일 이 땅에 결전의 그날이 온다면 병사는 영웅적으로 싸우다 이름모를 어느 나무밑에 피를 흘리며 쓰러질수도 있을것이다. 허나 조국은 영원히 아름답게 추억하리라. 그 영웅은 평시에 나무를 사랑한 병사였다고...

위대한 선군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파사로운 해빛을 자양분으로 하여 무성하게 자라 파도쳐 설레이는 밀림!

아! 위대한 애국령장께서 이어가시는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전선길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감나무중대》, 《돌배나무대대》들이 태어나게 될것인가!

우리 병사들은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값높은 애국의 표창을 심장에 간직하고 오늘도 매일도 사랑하는 어머니 내 조국에 푸르름을 더해갈것이다. 《조국》이라는 푸르고 역세인 아름답드리거목에 애국의 년륜을 끝없이 새기며...

◎조선 속담◎

근면성

- 가마속의 콩도 삶아야 먹는다.
-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낀다.
- 개미 금탑모으듯.
- 개미는 작아도 탑을 쌓는다.
- 돌쩌귀에는 독이 쓸지 않는다.
- 드나드는 개가 똥을 묻다.
- 부지런한 물방아는 열새가 없다.
- 제발이 효자보다 낫다.

◎유모아◎

《어느것이 더 가까운가?》

어느 한 나라 대학입학시험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달까지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프리카가 더 가깝습니까?》
《물론 달이 더 가깝지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달은 볼수 있지만 아프리카는 볼수 없기때문이지요.》

철 산 봉

리연희

숲의 음향

이 아침도 해빛이
산정이 비쳐 내리면
번쩍이는 철의 가슴 빛을 뿜으며
거창한 숨결로 들먹이는 철산봉

여기엔 없구나
유정한 물소리
지저귀는 산새소리
봄이면 봄꽃이 풍기는 향기로움도
여름이면 푸르른 천만잎새의 수려함도

검고 묵직한
너는 쇠돌뿐
너는 그 어떤 계절의 장식을 모른다
아낌없이 자기의 보화를 바치며
한겨울의 눈보라속에서도 곳곳이
그 모습 변함을 모르는 철산봉

어이 그저 산이라 하라
너에겐 너의 말이 있다
천년지심을 터놓는 발파소리
묵묵히 쇠돌을 안아올리어
조국에 드리는 쇠돌폭포의 메아리 메아리

철산봉

너의 쇠돌엔 마음이 있다
자기의 한몸을 깡그리
깨고 부스어 고르고 골라
드디어 그 순결함
보석같은 정광으로 바치고싶은!

하기에 이 땅에
푸른숲 푸른산이 많아도
들끓는 너의 음향을 더없는 노래로 안으며
그 가슴 또한 무쇠같은 사람들
너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것 아니라

쇠돌산악의 대교향악인가
낮이나 밤이나
치심을 울리는 회작기들
흥겨웁게 긴팔을 휘두르는 굴착기들
계단마다 우리의 음향 드높은 철산봉

여기선 들려온다
숲이 설레는 소리
숲이 설레는 소리
부강하는 내 조국의
무성하는 강철의 숲이 자라는 소리
아 철산봉의 설레임소리

광부와 시인

서로의 인사말보다 먼저
힘껏 마주잡는 손에서
티없이 환한 웃음에서
어느새 구멍이 되어버리는
광부와 시인

깔아주는 장갑을 밀어놓으며
기름에 절은

돌가루 배인 그 손을 다시 잡으며
시인은 들었다
툑툑 심장이 뛰는 소리

산악을 울리며 바위를 울리며
쇠돌과 말을 하는 그 가슴
층층 산악의 계단을 굴줄로 삼았는가
쏟아지는 쇠돌로 보화의 시를 새기는 광부

벽찬 숨결
 번쩍이는 눈빛
 수억만톤의 쇠돌밭을 타고 앉아
 이 땅을 굽어보는 사나이
 말없이도 하많은 말을
 누구보다 뜨거웁게 열렬하게
 심장을 툭 터놓을줄 아는 그 가슴
 그 목소리를 시인은 듣고있었다
 쇠돌과 조국에 대하여

이 땅의 공지와 자부에 대하여
 오늘에 대하여
 래일에 대하여
 ...
 시인은 함께 보고있었다
 저멀리 아득히
 벌써 래일을 바라보며
 조국의 래일과 말하는 광부
 다름아닌 그는 시인이었다
 철산봉의 시인이었다

아 침

—아들일가?
 —딸일가?

밤새 산악을 푸던 사나이
 가슴 후련히 굴착기문을 열어제낀다
 셋째가 태어날 그날을 그려본다
 첫째도 사내
 둘째도 사내라
 어머니는 은근히
 고운 손녀를 안아보시련만

성차지 않아
 철산봉을 통채로 들어올릴
 그 욕심엔 아직 성차지 않아
 령너머 아득히
 산원의 먼 하늘을 바라보는데

짱—짜르릉
 온 무산령을 들었다놓는 발파소리...
 이때라 무릎을 치는 광부의 목소리
 —그렇지
 철산봉이 새 아들을 봤다는 소식일테지!
 순간 또 한발과
 철봉너머에서도 우렁찬 메아리...
 —아무렴
 아예 아들쌍둥이라면 더욱 좋지!

산마루엔 불그레
 안해의 수줍은 얼굴인양
 웃음지며 떠오르는 아침해
 서둘러 운전대를 다시 잡는 그 사나이
 무쇠바가지로 건듯 안아올리네

산... 산...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산기슭에 아담한 유치원
 그 이름도 《철산유치원》

다섯살 여섯살
 놀이터 앞마당에 뛰노는 애들
 꽃봉오리 가슴가슴
 마음마다 꿈마다 산이랍니다
 분홍땡기매여 늘인 처녀애

저는 커서 철산봉의 신호수랍니다
 까만눈 총각애도
 어서 커서 철산봉의 굴진공이랍니다

아 철산봉
 오늘도 자라는 어린 꿈속에
 높아만지는 보배의 산
 승엄히 안아보는 래일속에
 더 높이 오르는 애국의 산...산...

철 산 봉

이 땅의 푸른산
푸른숲 한그루 나무도
돌기돌기 년륜을 감으며
감을수록 제모습 키를 솟구건만

굽이굽이 쇠돌을 캐며
주름주름 계단길을 감으며
감을수록 묵묵히 키를 낮추는
철산봉

나에겐 생각되누나
대로천채굴장의 계단길
그것은 너의 봉우리에 한생을 새겨온 사람들
그 삶의 년륜처럼

말해보면 말씨도 모두 달라
알고보면 떠나온 고향도 서로 다른 그들
조국의 북변에도 한끝 이 길우에
청춘의 위훈을 새겨온 사람들

오늘은 부부운전사로
남편과 나란히 대형차를 몰아가는 너인
가정의 행복도
그 행복의 년륜도
너의 봉우리에 감아온 사람들

그저 열어온 길이 아니었구나

너의 이 길에도
봉쇄의 시련이 막아서던 그날
자기의 한생을 바쳐
조국의 강철의 산악을 떠올려야 했기에
쓰러지면서도 한치한치
목숨을 바치면서도 기어이 헤쳐온 이 길

이 길이였구나
우리 장군님
천리 전선길을 이어
수백여리
너의 굽이굽이의 사연
다 안아주시며 오르시던 그날로부터

어제는 3부자
오늘은 4부자 광부로
끝끝한 운전사로
무산의 대가정의 혈맥을 이으며
더 억세게 대를 이어 열어가는 이 길

아 철산봉
내 정녕 네앞에서
쇠돌의 산악만을 보는것인가
아니여라
고결한 인간의 한생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환희로움으로 빛을 뿌리는
또 하나의 철산봉을 우러러 보는것이다!

○로막상식○

우리 나라는 콩의 원산지

콩은 우리의 선조들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농작물이다. 수천년전에 해당하는 오동유적(함경북도 회령군)과 남경유적(평양시 삼석구역)에서 불에 탄 콩알이 발굴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수천년전에 벌써 콩을 대대적으로 재배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주체61(1972)년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만 퍼져있는 반재배콩이 발견되었는데 현재의 재배콩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콩의 원산지라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된다.

한편 문헌적자료들에 의하여 2 700 년전에 중국에서 우리 나라의 콩을 가져다가 《숙》또는 《호무》(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콩이라는 뜻)라고 하면서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숙》이라는 한자는 콩을 상징한 상형문자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2 0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의 콩을 《대두》라고 하면서 가져다 재배하였고 유럽에서는 근세에 와서야 콩을 가져다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콩에 대한 현대과학적인 연구와 여러 나라들의 문헌적자료들은 우리 나라가 콩의 원산지라는것을 확인해주고있다

젊은 벗들에게 하고싶은 말

박세옥

1

한생을 지내놓고보면
즐겁던 젊은 시절이
어느덧 다 가고
뒤돌아보는
인생의 그 시절이 오면
생각도 깊어지더라
인생의 꽃도 있었고
성공과 영예도 있었건만
이 땅에 태어나
너 남기는것 무엇이냐
그 물음과 마주하면
후회가 따르더라
젊은 벗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싶다
젊은 시절의 후회는 메꿀수 있어도
늙은 시절의 후회는 보상할수 없음을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었을 때
그런 날은 어쩐지 밤이 길어도
끝없이 걷고만 싶더라
그 무엇이 나를 앞으로 이끌어
그 무엇이 나를 앞으로 떠밀어
제일 피로울 때
그것은 남이 다 아는것을
내 모르고있을 때
그런날은 피로워
온밤 잠자리를 뒤척이더라
궤도에서 멀리 떨어진것만 같아
무식의 수치를 걸메고있는것만 같아
머나먼 길을 가려면
먼 길을 가는법을 알아야 하나니
그것을 모르고는
인생의 먼 길을 가고갈수 없더라

4

2

인생은 꽃밭만이 아니더라
먼 인생의 길
어찌 꽃밭만이 있으랴
가시덤불도 돌밭도 진펄도 있더라
남이 먼저 낸 길 걷기는 수월하거니
하지만 그 길을 내기는 힘들더라
머나먼 길이 그대들을 부른다
천리 만리를 가도 힘이 남는
젊은 그 시절에 험한 길을 택하지 말라
삶의 보람도 기쁨도 벅찬 투쟁속에 있더라
한생은 끝이 있거니
어려움 앞에 주저앉으며
그 길을 외면한 사람은
언제보나 수치만이 따르더라

자기 바친 땀의 무게보다
더 큰 명예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과 뜨거운 사랑을 말할수 있을가
제 배가 부르면
남의 배도 부른줄 아는 그런 사람과
어려운 날에 한그릇의 밥을 따뜻이 나눌수
있을가
제 주머니만 채울줄 아는 그런 사람과
적탄없이 귀전을 스치는 화선에서
목숨을 함께 할수 있을가
그런 사람들과 먼 길을 함께 갈수 없더라
귀중한 조국을 자기의 뒤에 놓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의 사랑을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칠 때
한몸에 만사람의 존경을 모으더라

5

3

제일 기쁠 때
그것은 여적 모르던

인생의 길에 뗏어지는 사랑은
한생에 한번 주고 받는
순결한 토양에 떨어진 첫 씨앗과 같다

그 씨앗에서 아름다운 줄기가 자라고
 먼곳에서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리
 푸른 잎사귀들은 사랑의 노래 끝없이 역으리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목숨으로만 바꾸어야 하는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것
 모든걸 다해 아끼고 지키라
 그것을 잃어버리면
 한생 고통으로 시달리더라

6

젊은 벗들이여
 인생의 꿈이 망울지고
 흰구름처럼 피는 때
 생명이 줍으로 향기로 넘치는 때
 앞으로 내민 가슴에
 희망으로 찬 때
 숭고한 지향과 열정으로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가에 날아도는
 수리개처럼 나래치라
 저 하늘도 네것이다

이 땅도 네것이다
 조국이 그대들에게 다 맡기였고
 그대들을 조국이 주시하고있음을 잊지 말라

7

이제 머잖아 그대들도
 나처럼 이야기할 때가 오리
 가까운 친구에게 말을 하듯
 그대들과 교대할 젊은이들에게
 자기 시대를 땃땃이 빛낸
 그대들의 긍지높은 위훈과
 고매한 사랑
 그리고 성스러운 전통과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두고
 젊은이들에게 말할 때가 오리
 조국의 역사를 먼저 엮은
 그대들의 권리로, 의무로, 당부로
 그대들의 뜻이 이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젊은심장에 불을 달아주어야 할 때가 오리
 그것은 대를 이어 주어야 할 혁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노라!